

중국을 주께로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이동화/ 발행일:1997. 2. 20/ 등록일: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44호

97/3·4



특집 중국 교회와 지도자

이력부 중국에 두레마을 세우는 김진홍 목사

제미나 지상종교 중국선교 문서사의 활성화 방안

국문 지금 공포의 '혈액시장'

국문 중국선교 탄압 강화

1888년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사역용 문서목록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훈련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우 137-069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교회와 선교인력 개발

이동화

나는 가끔 공, 사석에서 선교사 구인난을 호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충분한 선교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선교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막상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교계 신문에 광고를 내고 해서 면담을 하지만,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확신이 드는 그런 책임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 구인난을 호소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꽤 큰 규모의 목회를 하는 분들이라는 것이다. 교회 규모로 보아 이미 상당수의 선교 헌신자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선교인력을 외부로부터 수혈받아야 하는 처지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은 모르지만, 이같은 현상은 이른바 대형교회라고 해서 크게 나은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선교인력의 빈혈 상태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각 교회마다 선교 헌신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년·대학부가 활성화된 교회의 경우는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것을 본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선교한국』에서는 5천 명 참석자 중 약 삼분의 일이 평생 선교사로 작정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에 선교의 인적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풍부하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선교의 새싹들을 잘 가꾸어서 신실하고도 유능한 선교사로 키우느냐 하는 것인데, 역시 이 관건은 교회의 선교인력 개발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는 지난 '95 GCOWE 대회 때 2000년까지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 교회를 향하여 드린 약속이다. 단순히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과목을 부린 것 같으나, 서구 교회 선교의 급격한 퇴조현상을 고려할 때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2000년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 자체를 위해서나 세계 교회를 위해서 선교인력 개발 문제를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선교인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1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의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집 중국 교회와 지도자



16 다섯 가지 위기 데이비드 왕(David Wang)

20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 싱푸젠(邢福增)

23 첫 번째 만남 팡위예(方悅)

26 진리를 이어갈 새로운 세대 양푸잉(楊福英)

28 새 시대, 새 양육 방식 황러링(黃樂靈)

34 무엇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정현진

40 “거기 말씀의 갈증이 있었다” 무쥔(牧群)

선교 나침반

4 선교일언 출애굽 역본화 선교 오치용

6 인터뷰 조선족 상처, 두레마음이 싸맨다-
중국에 두레마을 세우는 김진홍 목사 권수영

10 세미나 지상중계 중국선교 문서사역 활성화 방안 쉬에룽치(薛孔奇)

58 종교법규 종교활동 통제를 위한 새 규정들

90 궁금합니다. 중국선교... 신학은 평신도 선교사에게 꼭 필요할까요?
이동화

인물·역사

48 중국 교회 순례(3) 루난교회(魯南教會)

50 중국선교의 발자취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방지일

52 중국의 신앙인물(2) 왕밍다오(1900~1991)

헌신의 삶

44 중국 성도의 간증 젊은 지식인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타이더(泰德)

60 중국 교회 체험기(7) 옥중에 있는 성도들 메이쥙즈(梅增玖)

86 현지에서 온 소식 부부선교사, 진정한 동역자로 서기까지 박애린

중국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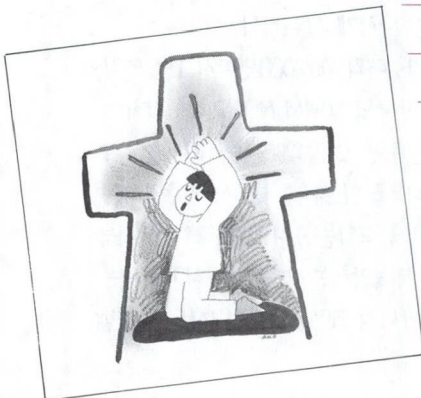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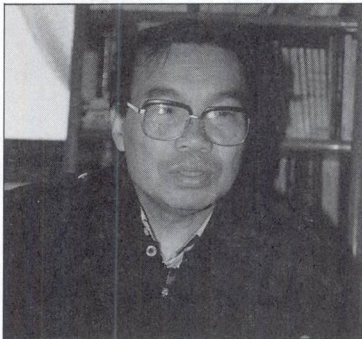
62 변화하는 중국 다시 일고 있는 대학생들의 ‘입당열

65 중국을 읊아매고 있는 법률

78 연재기획 1997. 7. 1. 홍콩반환을 논하다(2)
홍콩 초대 행정장관 등젠화 / 아시아 맹주 깃발 올리는 중국 연구부

82 중국은 지금 공포의 ‘혈액시장’ 편집부

108 중국 동향 초점 중국선교 탄압 강화 연구부



1997년 3, 4월 통권 제44호

중국을 알자

중국·중국인 극장 선전 포스터와 명예훼손 유민호 43

선교사의 사역 중국 물가 동향과 선교사 생활비 편집부 66

중국 단기선교 여행 코스(1) 선양(瀋陽)·창춘(長春)·연변(延邊) 연구부 70

중국문화 젓가락(筷子) 탕룽(唐鏞) 92

중국영화 감상 황비홍(黃飛鴻) 이창우 96

자료실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용 문서목록 118

발행인 칼럼 교회와 선교인력 개발 이동화 7

묵상의 샘 자신의 위치를 지키자 57

시사만평 남편의 비망록 리명젠(李蒙珍) 85

중국인의 유모어 선비가 찾는 책 99

세계선교 동향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편집부 100

선교 중국어 你可以禱告(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이나 104

신간 도서 『한국인은 없다』 외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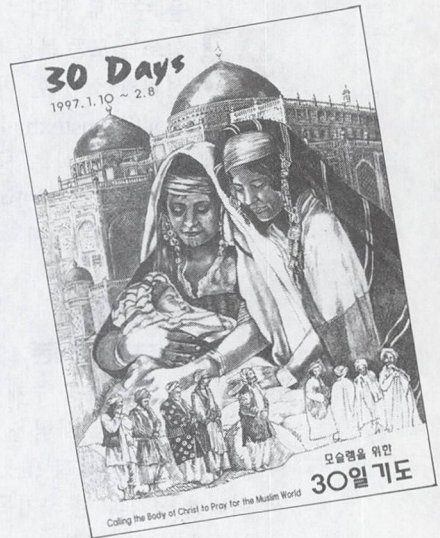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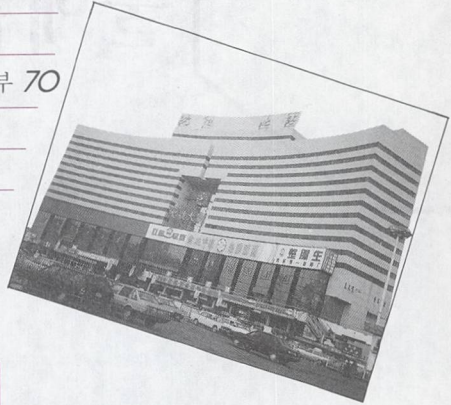
중국어 찬송가 十字爲我榮耀(십자가로 가까이 - 찬 496) 106

중국어 복음성가 每一天, 每一刻(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07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연구부 110

시사용어 개혁 개방 경제 용어(3) 115

선교단신 116



별책부록 '중국을 주께로' 가이드라인더(97. 3. 4월)



표지서명

봄을 맞아 모종을 배양하고 있는 윈난(雲南)성의 소수민족.
파릇파릇 싹이 돋는 모종처럼,
중국 교회의 미래를 밝힐
새벽이슬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출애굽 역본화 선교

오치용

중국

을 주개로 돌리는 선교운동에 힘쓰는 모든 분들과 함께 출애굽적 선교의 소견 한 마디로서 역본화 선교(Transtextualizing Mission)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는 선교의 어떤 집중적이고 공동적인 개발이 중국을 향한 한국 교회 선교에 시급히 요청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본, 상황, 그리고 역본

1984년 8월 21일, 홍콩 주재 선교사 겸 한인 교회 개척 담임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선교의 교본(text)은 한국인으로서 이해한 성경과 한국 기독교였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 있는 상황(context)은 중국 전통 문화와 국제문화가 어우러져 변천하는 홍콩의 상황이었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부로 영국의 유니온 잭 아래서 중국의 오성홍기 아래로 옮겨지는(transition) 이동상황 아래 있었다. 나의 교본(text)이 성경이요 기독교라하지만, 사실은 한국어 성경이요 한국 기독교였기에, 나는 곧 상황화(contextualisation)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한국적으로, 한국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한국 성도들의 의식

구조는, 선교지 내에서 다시 어떤 이동을 통해 극복되어야 함을 느꼈다.

그리고 결국 1987년 7월 4일, 당시 홍콩섬 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교회당을, 중국 대륙에 가까운 신계지의 다이와이라는 곳으로 옮기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중국인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중국 상황에 적응하는 선교운동의 한 역본(a transtext)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은, ‘선교는 기독교와 복음의 번역(Mission as Translation)’이요, 또한 선교는 역본화(Mission as Transtextualisation)’라는 것이었다.

번역(translation)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과 역사의 본(text)을 바르게 담아내는 그런 번역, 교본적인 번역, 이러한 의미는 영어의 ‘translation’이란 단어로 다 담아낼 수 없어서 한자어의 뜻을 빌어 역본(역:translaion+본:text)이라고 표현해 보았다. 그래서 이런 바르게 된 모범적인 번역으로서의 기독교를 이루는 선교운동을 ‘역본화(transtextualizing)’라는 용어를 만들어 표현해 보았다. 보통 우리가 번역본을 역본이라고 하는데, 선교용어로 역본화라고 할 때는 성경적인 기독교 번역 운동, 즉 기독교를 성경적

으로 세우고 상황 속에서 발전시키되,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적(textual)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확립해나가는 그런 선교운동을 의미하려는 것이다. 다만 성경번역같은 그런 번역의 역사, 경험을 우리 기독교와 선교는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적 선교(translational mission)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국선교 자체에 매우 깊은 교훈과 빛을 던져줄 것이다. 번역에서 배우면서 성경적 기독교를 상황 속에서 건설해 나가는 것이 역문화 선교(transtextualising mission)이며 이 차원에서 중국선교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애굽의 역문화 선교

중국선교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선교적 역본들을 만나고 있다. 각종 선교단체, 교회, 그리고 개인 선교사역자들이 중국 내외에서 그 나름대로의 모델을 이루며 중국 복음화를 향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적인 힘의 결집이 부족하다. 또한 중국의 상황이 선교정보의 교환, 협조적 선교를 어렵게 한다. 공인교회, 비공인교회, 혹은 삼자교회,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 등, 사실 어느 하나의 명칭도 정확하게 중국 교회 개개의 교회와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중국 내의 선교는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외견상으로는 나뉘어 있다. 어떤 공동광장들이 필요하나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한 두 가지일 수도 없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탕으로하는 데는 궁극적인 공동광장이 있듯이, 선교적 접근법에도 어떤 공동광장을 개발한다면 중국선교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중국을 주께로 돌이키는 선교 번역가적인 사명을 중국 교회, 세계 교회들과 같이 나누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수차례 경고까지 받을 만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문제도 많으나 열심이 특심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웃 국가 교회와 더불어 선교의 공동광장을 개념, 정책, 전략, 실험적 차원에서 같이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는 중국을 주께로 돌이키는 선교 번역가적인 사명을 중국 교회, 세계 교회들과 같이 나누어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 하나로 제언하는 것이 출애굽과 선교를 결합한 출애굽선교 개념을 같이 개발해보자는 것이다. 역문화 선교의 본을 대표적 구원 개념인 출애굽에서 찾되, 구약과 신약에 걸친 그의 출애굽(눅 9:31)에 입각하여 총력을 기울여, 먼저 한국 교회가 내놓는 출애굽선교 신학과 전략이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선교 신학과 전략을 중국을 주께로 돌리는 데 적용하는 역문화 선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중국선교의 경험을 출애굽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일이다. 새롭게 일어나는 출애굽적 선교운동이 새 부대가 되게 하고, 새 포도주같은 복음의 새로운 번역을 위해 번역 선교사들의 경험도 들어보면서 새 출애굽운동을 중국을 위해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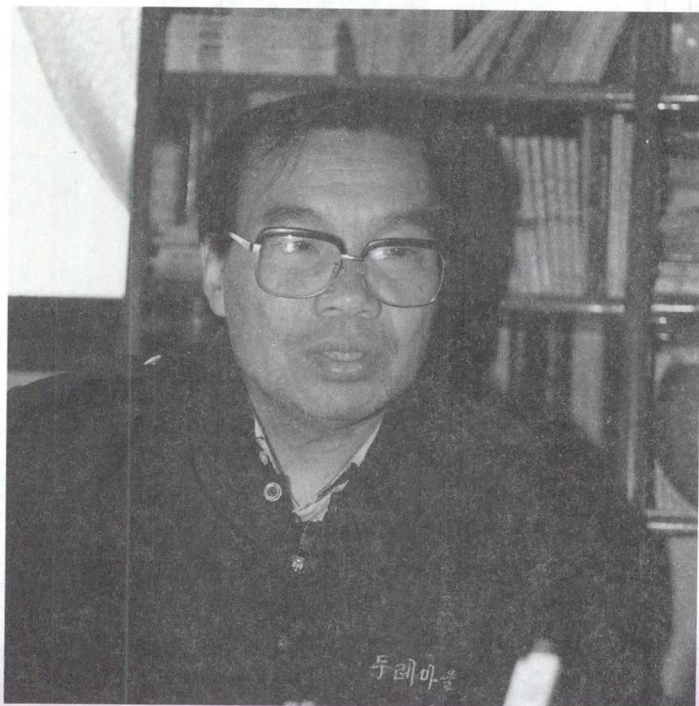
출애굽적 선교운동을 한국 교회가 개발하자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와 함께 나누는 출애굽 역문화 선교의 한 시도로서, 금년 1997년 2월 23일 홍콩의 다윗성 문화중심이 주최하고, 한국선교교회가 뒷받침하는 신 출애굽성회(New Exodus Convention)가 홍콩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같은 역본을 공동의 역본이 되도록 함께 개발할 수 있다면, 장차 한국 교회는 중국을 주께로 출애굽시키자는 각오를 가진 잘 훈련된 중국 출애굽운동가들을 얻으면서 세계 교회가 동참하는 중국 출애굽선교를 발전시킬 줄 믿는다. 한국 교회가 호렙산에 선 듯 우리에게 출애굽적 소명이 오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 상처, 두레마음이 싸맨다

중국에 두레마을 세우는 김진홍 목사

권수영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재중국동포 문제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진홍 목사(남양만 화빈교회 담임목사, 두레공동체 운동본부 대표)를 1월 14일 남양만 두레마을에서 만났다. 한국인에 의해 사기당한 중국 동포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돌아온 그는, '중국 동포 겨안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동포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두레마을 자활촌을 건설할 계획을 털어놓았다.

**중국에 두레마을을 세우려는 계획
을 언제부터 세우게 되셨습니까? 이번 중국
동포 사기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리는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따라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를 잘 감당하면 그로 인해 우리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중국의 14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근대사의 상처로 인해 서구인이 전하는 기독교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체제상 직접적인 복음전도의 길은 막혀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니 두레마을 같은 공동체 스타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넓은 농장에서 중국인들과 더불어 같이 살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간 서서히 연구, 접근해오던 중 이번에 조선족 사기사건이 터지자 본격적으로 중국 두레마을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현지를 방문하면서 목격한
조선족들의 사기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중국 동포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되어, 작년 12월 17일부터 1주일 간 연지(延吉)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빚을 저도 빚쟁이들이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아도 되지만, 중국은 우리와 달라서 해마다 12월 안으로 빚을 완전히 갚고 다시 새로 빌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테러를 가해도 사회가 용납한답니다. 한국인들에게 사기당한 조선족들은, 친지는 물론 한족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는데, 12월 말까지 빚

을 못 갚으니 한족들의 횡포가 매우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서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가족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보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조선족들에게 몸쓸 짓을 했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만 조선족한테 사기친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가들이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에게 사기를 당한 예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같은 입장이라고 할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한국인들이 사기를 쳤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한국에 대해 원망과 한을 품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크리스천과 동족의 입장에서 그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 주자는 취지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그들이 한국에 오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국 동포들이 한국을 왕래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못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조선족들에게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이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중국동포 돕기위원회는 우선 시민연합 차원의 운동을 일으켜, 한국에 오려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국하기 위해 빌린 돈 때문에 길에 나 앉거나, 병들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중국 동포 돕기 모금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여, 이돈을 직접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중에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제때 치료를 해주기는



사기꾼에게 돈도 빼앗기고 몸까지 무너졌다. 사기를 당한 뒤 심장병을 얻어 누운 조선족 할아버지.

커녕 본국으로 추방해버린 경우, 또는 치료는 받았지만 본국에서 재발된 경우 등을 찾아내어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국 동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한국에만 오면 때돈을 벌 것이라는 조선족들의 ‘코리안 드림’ 또한 이번의 사기 사건을 부추긴 주범이 아니었을까요?

한국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이 문제를 떠들어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나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중국 동포들에 대해 한국이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한이 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 현지에서 남한 국적 사람들은 전부다 돈으로 보인다는지, 남한에 오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동경하고 기대하는 중국 동포들의 의식도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살던 중국 동포들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 와서, 기대하던 것

처럼 성과를 거두기란 어렵습니다. 아마 10명이 왔으면 잘해야 2~3명 이외에는 이래도 저래도 실패와 좌절을 겪고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인 한국 시민단체의 조선족 사기 피해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활동을 벌이면서 중국 정부와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조선족은 한민족이긴 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자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56개 민족 가운데 티벳, 위구르, 조선족 등 소위 변방 지역의 소수민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한의 경제적 영향력, 신앙적인 침투를 받는 조선족이 민족 독립 문제를 일으킬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에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기 피해 조사차 갔을 때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조선족은 엄연한 중국 국민이므로 무슨 조사할 것이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중국 정부를 거쳐야지,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일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법규만 잘 지키면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 동포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중국 두레마을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까?

중국 동포들이 중국 땅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두레마을은 중국 지린(吉林)성에 5백여만 평의 땅을 확보하고, 그 땅에 사기 피해자들과 한국에서 산재를 당해 불구가 된 조선족들을 위한 복지마을, 자활마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호받으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심각한 사기 피해를 당한 40가정이 먼저 들어오고, 앞으로 300가정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농사짓고 소, 돼지 길러서 중국의 시범농장을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자립하고,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선진농업 기술을 보여주어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닌 두레마을식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두레마을에서 수확한 농산물은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 쓸 계획입니다.

중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두레마을 정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두레마을은 공동체를 통해 농사를 지으면서, 공동체 삶의 뿌리가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규모있는 두레마을 농장이 이루어지려면 전기, 운전, 용접, 배관, 농업전문가, 기계, 설비 건축 등 각 분야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노력 봉사를 할 일군도 필요하지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뜻이 있는 평신도들이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중국 두레마을이 설립되어 중국선교의 교두보,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취재, 글/ 권수영·본지 편집기자

중국 북한 동포들을 도움시다.

중국의 동북삼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는 2백만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지사들의 후예들이거나 일제의 수탈에 억눌려다 만주로 떠났던 슬픈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동포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수 불량한 한국인들이 그들을 속이고 짓밟고 수탈하여 그들의 어려움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중국인 빚쟁이들에게 집 빼앗기고 몰매 맞고 거리로 내몰린 가정들이 허다합니다. 이에 활발교회와 두레공동체운동 본부에서는 중국동포돕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동포들의 어려움은 더욱 처절합니다. 봄이 다가올 때까지 얼마나 굶어 죽을지를 대충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길을 찾아 동포들을 돕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더러는 몸으로 더러는 물질로 더러는 기도와 지식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중국·북한 동포돕기를 위한 성금을 위해 아래 은행계좌를 열었습니다.
- ☞ 적은 돈 한푼이라도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북한동포 돕기 온라인 구좌안내

국민은행 074-01-0299-621 예금주:중국두레마을

우체국 013086-0200136 예금주:중국두레마을

중국선교 문서사역 활성화 방안

쉬에콩치(薛孔奇)

중국 문서사역의 특징과 역할

상업적 두뇌와 영적인 안목이 필요

책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려면 품질관리와 출판 기술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문서 중에는 이단이 발행하는 문서가 많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문서를 접하면 정부의 압제와 핍박을 받는 비밀을 주게 됩니다.

CCL(복음증주협회:福音證主協會)의 경우, 간체자 문서 사역을 시작한 1980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CCL 마크를 인쇄하여 책을 출판합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 CCL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는 중국 내에서 좋은 책으로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매우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판해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중국 전 지역에 고르게 배분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서적들이 연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산간벽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서가 중

국 내 산간벽지까지 모두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발행망(net)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CL에서는 중국 내의 상황과 정치여건을 살펴보고 그것에 적합치 않는 문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 내는 데 많은 돈이 드는데, 잘못된 책을 내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문서사역자는 최소의 제작비로 최대의 효과-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는 것-를 추구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을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상업적인 마인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가져야 합니다. 즉, 책이 팔릴 때 그 책으로 인해 독자들의 영성이 부흥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서사역은 하나의 수단

현재 중국에서 제일 필요한 사역은 지도자 양육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도구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양육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문서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역과의 협력

책은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이 직접 그 문서를 가지고 가르치며 양육해야 효과가 큼니다. 홍콩에서는 복음방송, 테이프, 양육자, 문서 사역자가 모두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프로그램(중국어)을 테이프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 가지고 간 다음 해외에서 온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테이프와 함께 카세트도 선물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사용한 문서 사역과 양육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도시에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문서 처리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큼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화교 교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출판된 책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 전도에 관한 책의 모든 정보, 예를 들면 출판 시기, 출판사, 저자 등을 알고자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이트가 완성되면 컴퓨터를 사용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도 인터넷이 개방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제재가 있긴 하지만 경제 개방과 과학의 발달에 의해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지식인들과 도시에서 사는 중국 성도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나라들로부터 기독교 관련 정보와 자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중국 내의 문서사역

지금까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양회에서 출판하는 책

양회에서 출판하는 책은 모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인쇄품인 성경은 지금까지 1,500만 권 정도가 인쇄되었습니다. 성경과 찬송가, 주석성경은 중국 정부가 인가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성도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서적

일반 출판사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책을 출판할 경우 기독교 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 양회에서 나오는 책들은 일반 서점에서는 판매되지 않지만, 일반 서점에서는 기독교 관련 책들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서적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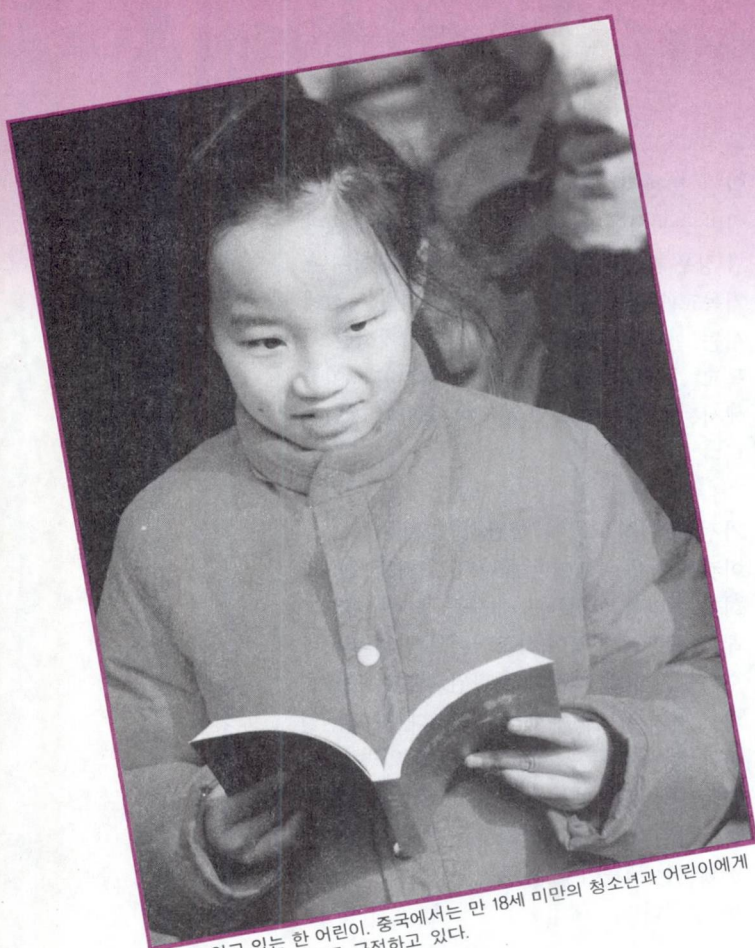
가정교회 성도들이 출판하는 서적

이것은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초기에 가정교회가 출판한 서적들은 대부분 복사본이었는데, 요즘은 발전하여 하드커버로 인쇄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판된 책들은 무료로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 공급됩니다. 양회나 일반 서점에서 나온 책들은 유료인 반면, 가정교회에서 나온 책들은 무료이고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단에서 발행하는 책들이 이 통로를 통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CCL 문서사역의 전략과 계획

1970년대, 복음증주협회가 시작될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 즉 4인방의 혼란시대였습니다. 그 때는 중국과 외부의 연락망이 차단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이 최악의 압박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10년 동안은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1980년도부터 중국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덩샤오핑(鄧小平)이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는 경제 개방노선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CCL은 기도를 시작한지 10년이 되던 그 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녹음 테이프와 문서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초리로 쳐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CCL의 사역자들



성경을 읽고 있는 한 어린이. 중국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테이프와 문서를 들고 중국에 들어갔을 때 무척 긴장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도들이 체포되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발간한 대표적인 문서는 '찬송가 300(중국 교회 성도들이 즐겨부르는 찬송가 300편)'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나가는 책입니다.

1990년도에 와서는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도자 양육과 훈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서사역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문서사역의 목적은 중국 성도들의 성숙이며, 우리는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흑백으로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삼자교회에는 가정교회나 CCL과 같은 단체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또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도 삼자교회를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극단을 달리는 사람보다

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든,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삼자교회에게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만 말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래 양회의 종교적인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성도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싫어합니다.

홍콩 반환 이후의 문서사역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 홍콩 복음증주협회는 다소간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앞으로 CCL의 주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홍콩 CCL에서 가정교회에 공급했던 사역을 국제복음증주협회에 위임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97년 이후에는 CCL의 일을 다른 통로에 분담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생각입니다.

2) 다양한 통로를 사용하여 문서를 발행하고 공급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양회, 일반 출판사, 가정교회에서 출판하는 것, 해외에서 출판하는 것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통로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복음증주협회에서는 중국 내 사역센터를 설립할 15개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홍콩과 해외에서 가져온 서적들은 이 센터로 집합될 것이고, 이 도서들을 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양회의 인가를 받아 출판된 책은 그 도시에서 고속복사기를 개발해서 대량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각 도시의 성도들이 이 문서를 가진 교회 지도자의 양육을 받아 스스로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국 성도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역자들도 이 센터를 통해 양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CCL이 점차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도록 중국 정부 측과 협상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우리 신앙의 입장과 취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입

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문서 공급은 미국, 유럽과 대만 등 해외지부의 사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많은 미국 유학생들을 통해 중국 성도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응답

질문/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중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식으로 계속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 해외에서 양육을 받고 귀국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양육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이 적절한 재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 단체(교회)에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트랜스월드 라디오 등 복음방송을 통해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어려움을 서신을 통해 해외의 기독교 단체에 보내어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해외의 어떤 단체가 자주 중국에 들어가 사역을 한다면 이 형제를 연결시켜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선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괄적인 방법으로 돕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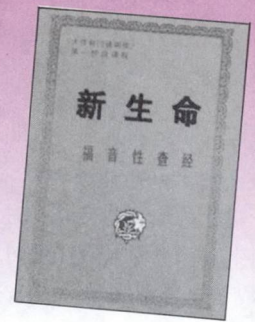
질문/ 한국에서 중국으로 책을 가지고 가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원시적인 규모로

라도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CCL에서 책이 아닌 디스켓을 한국에 보내주어 활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디스켓으로 책을 인쇄할 경우엔 사전에 CCL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출판한 책이 완전 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교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글자가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책 내용의 중요한 의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책이 출판된지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 관리 방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교회에서 출판된 서적 이외에 양회와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중국에서도 지적 소유권과 판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일반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을 가정교회에서 출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출판을 엄격히 통제하므로, 중국 내에서 불법복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가 책을 복사했는지 추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성도들에게 이 책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출판되었으며 지적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문제가 발생해도 그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서나 사진, 카세트 등을 무료로 공급해 줄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의논하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그것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복사했다면 저희들은 그 견본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CCL에서 출판된 책들이 복사되어 나갈 때 아주 좋은 품질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CCL의 책이라도 그 판권이 저자에게 있으면 출판할 때 제한을 받습니다. 즉 위탁



한 개인과 출판사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더 많은 책을 복사해서 중국에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한국에서 중국을 위한 문서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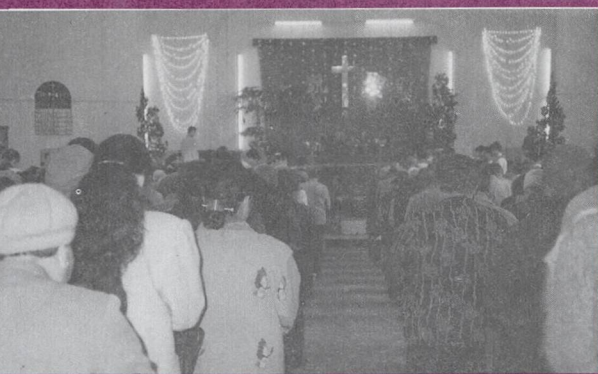
응답/ 지금 중국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양육 교재로 한국인이 쓴 『신생명(新生命)·신생활(新生活)』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 있는 저자가 원고를 홍콩 CCL까지 보내 주어, 홍콩에서 위탁 인쇄를 한 후 중국 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원고를 홍콩에 보내면 CCL에서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명(新生命)·신생활(新生活)』은 이미 중국 어문선교회 CCL협력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출판사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에 보낼 좋은 서적이 있다면 한국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출판사와 경비나 여러 사정들을 협상한 후 출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행을 돕는 것입니다. 주석 성경과 일반 성경은 성도들이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중국 성도들에게 주어서 그 돈으로 주석성경을 산 뒤 여러 집회처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이들이 여행할 때 항상 휴대용으로 신앙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중국 성도들에게 준다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책들이 연안 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륙 지역에도 보급되는 것입니다. 이 때 가급적이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문서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역을 위한 기도와 헌금도 훌륭한 협력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책을 무료로 공급하게 된 배경에는 성도들의 많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지난 12월 18일 쉬에콩치 국제복음증주협회(Christian Communication Ltd.) 총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된 중국선교단체 사역자 간담회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薛孔奇/ 국제복음증주협회(C.C.L) 총재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정리/ 안정숙·본지 편집기자



특집 / 중국 교회와 지도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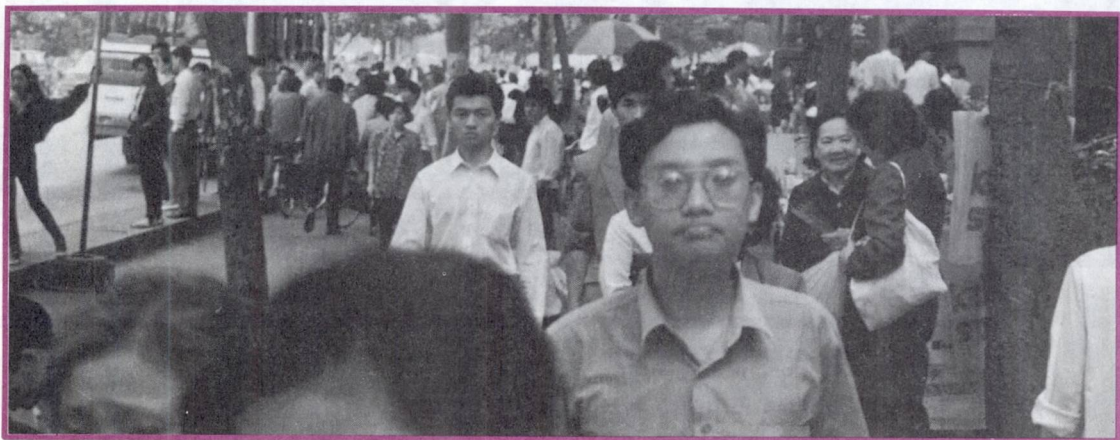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현재 중국 교회의 지도자 기근 사태를 염려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점점 높아가고 있다. 신도의 급속한 숫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를 배출해 낼 중국 신학교가 원천적으로 희소하다는 사실은 중국 교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재난으로 말미암은 중국 교회 구세대, 신세대 지도자 간의 단절문제도 심각하다.

본지는 이번호 특집을 통해 중국 교회의 지도자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중국 교회의 어려움에 어떻게 동참하여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섯 가지 위기

데이비드 왕(David Wang)



최근 필자는 중국 가정교회 운동의 최고 지도층인 원로(老人)들과 만나 그들이 현재 직면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정치적인 압력과 박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회는 지난 47년 간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처신하는 법을 배웠고, 또 살아 남았다. 한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의 박해가 사라져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빈틈없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해주지요. 우리는 가장 심하게 박해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고(故) 왕밍다오(王明道) 목사는 말했었다. “형제님, 로마서는 박해와 시련이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경고하듯 풍요함과 안락함이 우리를 주님 앞에 냉담하게 할 것입니다.”

요컨대 문제는 ‘등록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수년 간 정부는 가정교회를 등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원로들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거짓 가르침과 이단사설도 심상치 않은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원로들은 말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교회는 ‘사도행전’은 경험해 왔지만, ‘로마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중국 교회는 또한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던 문제, 즉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 외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비롯한 각 복음방송 아시아 지부에서 ‘디모데 프로젝트(Project Timothy)’에 참여하여, 조직적인 라디오 방송과 출판을 통해 중국의 젊은 일꾼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중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위기들이 산재해 있다.

관습화와 상례화의 위기

“우리의 모임은 판에 박힌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네”라고 한 원로는 말한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더욱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 그리고 빠르게 관습화되어 가고 있지. ... 설교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해. 신앙 부흥을 위한 우리의 열망은 더 많은 자유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네...”

“교회가 더욱 체계화되어 감에 따라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표적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는 단지 숫적으로만 성장할 뿐입니다. 새신자들의 양육은 더이상 연륜있는 오랜 신자들이나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홍콩으로부터 들어온 책자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언제든지 모이고는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신자들은 기도하거나 성경을 배우기 위해 모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단지 주일에만 만납니다.”

지도력 부재의 위기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그들이 항상 여행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 또 이들은 “우리는 나이가 들고 지쳐 가는데, 젊은이들은 더 이상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라고 불평한다. 젊은 지도자들은

“문제는 우리에게 성실하며 열심있는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야!”



중국 교회는 조직적인 지도자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해외로부터 들어간 성경을 받아든 중국 청년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박해와 정신적 고난에 집착해서, 자신들에게까지 그와 같은 것을 건디라고 요구하는 것을 비난한다. 젊은 지도자들은 선배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정치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배 지도자들은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을 접대할 때 우리를 그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지도자의 말이다. 그러나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너도나도 말한다.

“우리는 이미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더이상 젊은 일꾼들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는 없어. ... 과거 우리는 하루에 네다섯 시간씩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을 기다리곤 했지. 지금 우리는 2세대(老兒)와 3세대(老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방수 마냥 동분서주하고 있다

구. ... 그들에게엔 훈련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늙고 지쳐 가고 있어. 문제는 우리에게 성실하며 열심히는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야!”

분리와 불신의 위기

‘개방 정책’과 함께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부터 포르노그래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중국에 들어와 있다. 또 이와 함께 ‘복음적인 순수한 은사와 불순한 은사’ 사이에 교파주의의 갈등이 있다. 전에 필자는 중국 교회를 가장 카리스마적인 교회라고 묘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황은 바뀌었다.

물질주의에 인한 위기

지난 십년 동안 고층 빌딩이 논이나 연못 가운데 세워졌다. 상하이(上海)만 해도 40층 이상되는 건물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250건 이상이다. 물질주의는 중국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경제 부흥과 부정 부패, 인플레이션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원로들은 과거에는 대체로 공산당과 사회가 ‘신은 없다’면서 교계 지도자를 압박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중국에 유입된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밝고 빛나는 비수(匕首)로 우리들을 찌르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며 탄식하고 있다.

남부의 신자들의 경우 주일에 근무하면 비교적 높은 액수의 수당과 보너스를 약속받는다. 광저우(廣州) 다마잔(大馬站) 교회의 린 센가오(林獻羔) 목사는 필자가 그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제 독실한 신자인가에 대한 시험은 더 이상 감옥에 가꺼이 가겠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은 과거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가, 일하러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가장 많은 고생을 한다. 한 자매는 “돈주머니와 여분의 신발을 지니지 말라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가르

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전도자는, “전적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이들은 오히려 물질주의의 맹습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형제와 자매 사역자들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지하교회’와 접촉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들을 잘 알고 있는지 간에, 함부로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이것은 황금률이다! 무신경한 선물은 관대함을 나타내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교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왕국의 위기

필자는 지난 중국 여행 동안 세 분의 나이 많은 여신도들을 만났다. 그 중 한 분은 상하이에서 어릴 때부터 알았던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내가 1972년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분들이다. 그들은 비록 어떤 직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로부터 모두 존경을 받고 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력과 명예, 혹은 ‘어떤 기회들’을 바라고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외국으로 여행하거나, 자녀나 친척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부터 이 사실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인 신학교 출신이나 가정교회 젊은 지도자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했었다.

“삼자 신학교나 성경학교가 우리를 위해 젊고 생기있는 지도자만을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심지어 박해를 겪은 언론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금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혹은 문화혁명 최악의 시기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것입니다”라고 세 성도는 진심을 털어 놓았다.

“대만이나 서남 아시아, 미국 등 각지에서 중국으로 온 외부인들은, 더욱 크고 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우리의 지도자와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그



양육 훈련을 받는 도중 식사를 하고 있는 젊은 자매 사역자들

들은 더 많은 학문을 쌓기 위해 외국에 있는 학교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냅니다. 또 그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 준다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매들은 우리에게 중국 교회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이들 원로들에게 가르쳐 준 중요한 교훈은 “아니오”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난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 “악한 것에 대해선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 말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그래요. 물론 좋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일 우리의 입장이라면 외부인들에게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그들로 하

여금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왕국’을 상징합니다.”

필자는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난 침울해졌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 필자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 원로의 말이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왕 형제님, 우리의 문제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들이 일어서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형제님은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Asian Report Vol. 29 No. 4

원제: The Five Crisis

번역 / 구자웅·자원봉사자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

삼자교회 지도자 단절 문제를 논함

싱푸펑(邢福增)



1950년대에는 종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주요 문제였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중국 사회는 『범정치화(凡政治化)』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는 중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파멸적인 재난으로부터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중국 내의 교회 자원을 발전시키느냐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 중국기독교협회의 덩광선(丁光訓) 주교가 몇 번이나 강조한 것처럼,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것(辦好教會)』이 곧 중국 교회의 최우선 임무가 된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

공개적인 종교 활동이 재개된 8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기독교 신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독교 붐’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을 보면 그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장쑤(江蘇)성을 예로 들면, '85년에 125,000명이던 신도수가 '95년도에는 90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7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장쑤성 종교사무국 관리가 밝히고 있다. 신도 수는 800만 명에서 1,200만 명 사이라고 하지만, 이 통계는 수많은 농촌의 처소교회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전 중국의 기독교 신도수가 6,5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여러 모로 볼 때 공산화 당시 70만이었던 수에 비

해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다.

기독교인의 증가는 기뻐할 일이지만 그들의 자질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인재배양조(人才培養組)」의 쑤시페이(孫錫培) 목사는 1991년에 열린 제5회 전국기독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교회의 실상을 보면 신도들의 숫자에 비해 목회자는 어렵도 없이 적다. 그나마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최근 6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가 천 명이나 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 교회가 당면한 또다른 문제는 신도들의 신앙 자질 문제이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초신자들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배척하고 있는 봉건적인 미신 등을 접목해 큰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중국 기독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렇듯이 중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신도들의 낮은 신앙 자질과 목회 사역자의 결핍이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 결핍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목회자의 부족 현상은 신학교 발전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50년대에 각지의 신학교가 폐교되거나 합병되는 운명을 맞아 그 수가 줄어들었고, 이후에 「좌파」 노선의 충격으로 문혁 시기에는 아예 신학교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신학교의 폐교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단층(斷層) 현상을 낳았고, 80년대 들어 교회가 다시 공개적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영향은 필연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지도자간 연령의 극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81년부터 '91년 사이에 각 지역 신학교에서 1,1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이 중 5.1%를 제외한 학생들이 교회에 관여되어 사역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수준은 저마다 하늘과 땅 차이이다. 중국의 신학교는

중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신도들의 낮은 신앙 자질과 목회 사역자의 결핍이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 결핍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다음과 같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국급(全國級) 금릉협화신학교(金陵協和神學院: 신학본과 및 연구과정), 대구역급(大區級) 5개 신학교(신학본과 및 전문과정), 그리고 성급(省級) 신학교 7개(2, 3년제 신학 전문과정)가 있다. 이 중 금릉협화신학교를 빼고는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들 신학원을 졸업한 1,100명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원에서 교수 요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비율 역시 '94년 현재 전체 교수의 54%에서 '96년에는 61%로 증가했다. 부족한 교수 자리를 메꾸기는 했으나, 이들이 그만한 실력과 자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들도 사역에 임하고 있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1,000만 신도에 1,000명의 교역자라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양들의 수요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광둥(廣東)성에는 약 18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교역자는 126명의 목사를 포함해 겨우 433명으로 교역자 한 사람당 신도수가 415명인 셈이다(목사와 신도의 비율은 1 : 1,428). 신도수가 비교적 많은 저장(浙江)성은 126만의 성도에 110명의 목사가 있어, 목사 한 사람당 신도수는 1,450명인 셈이다. 농촌의 교회와 처소(집회점)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사역자의 고령화와 결핍이라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기층교회나 처소 목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의 평신도(義工) 대열이다.

저장성을 예로 들자면, 200여 개 교회에 2,000여 개의 처소가 있는데, 이곳의 교회 사역을 모두 7,000여 명의 평신도들이 맡고 있다. 리우저우(柳州)시에는 두 개의 교회와 60여 개의 처소가 있는데, 60세가 넘는 목사는 단 한 명뿐이다. 혼자서 1주일에 한 곳에만 들린다 해도 1년 안에 다 돌 수 없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0여 명의 평신도들에게 처소 사역을 맡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주로 신학교, 성, 시 양회에서 주최하는 ‘평신도훈련반(義工培訓班)’ 훈련을 통해 목회와 성경 교육 사역 등을 감당한다.

쑤시페이 목사의 말처럼, 신도들의 신앙자질을 향상시키려면 교역자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한 직접적으로 신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양육해야 할 것이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 마련이므로...

원로 사역자와 청년 사역자의 관계

목회자의 고령화와 결핍은 중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원로 사역자와 청년 사역자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나이 많은 원로 목회자들은 청년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세’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한다. 젊은 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교역자로 발령받지 못하거나, 설령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원로목사에 의해 배척받거나 냉대받는 형편이다.

랴오닝(遼寧)성 기독교협회 대표인 뤼쯔빈(呂志彬) 목사는, 원로목사들 특유의 ‘4불(四不)’ 태도가 교회 발전의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4불’이란 「환영하지 않고」, 「신임하지 않고」, 「중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랴오닝성의 한 80세 된 원로목사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지역 교회에서 훈련된 세 명의 신학교 졸업생을 내쫓기도 했다. 이 노 목사는 원래 자기와 연령이 비슷한 후임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려고 했는데, 후임자로 내정된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이 교회는 오랜 기간 ‘목자 없는 교회’가 되어, 이단사설에 미혹된 신도들로 대혼란을 겪기도 했다.

어떤 지역의 원로 목사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에 드는 젊은 사역자를 후임자로 삼아서 젊은 동역자간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세대의 화합을 이끌어내느냐가 중국 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신·구세대 교체의 어려움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과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 직분을 겸한 덩광원 주교의 후임자 문제만 봐도 신·구세대 교체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80세가 넘는 덩 주교는 원래 96년 제6회 전국기독교교회의 석상에서 정식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식적인 후임자로 내정되었던 전국기독교협회 부회장 겸 총무인 선이판(沈以藩) 주교가 94년 8월 66세의 나이로 타계함으로써 새로운 후임자 선정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후 여러 회의를 거쳐 전국기독교협회 부회장인 한원자오(韓文藻)가 기독교협회 총무 대리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어쨌든 80세의 덩 주교가 60세가 넘는 선이판 주교를 후임으로 내정했었다는 것은 중국 교회 지도층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제 또 평신도인 한원자오 같은 사람을 전국교무조직의 총무직에 임명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중국 교회의 발전속도는 중국 사회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교회는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1세기를 향해가는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수망중화(守望中華) 135기(96. 11/12)

원제: 誰來接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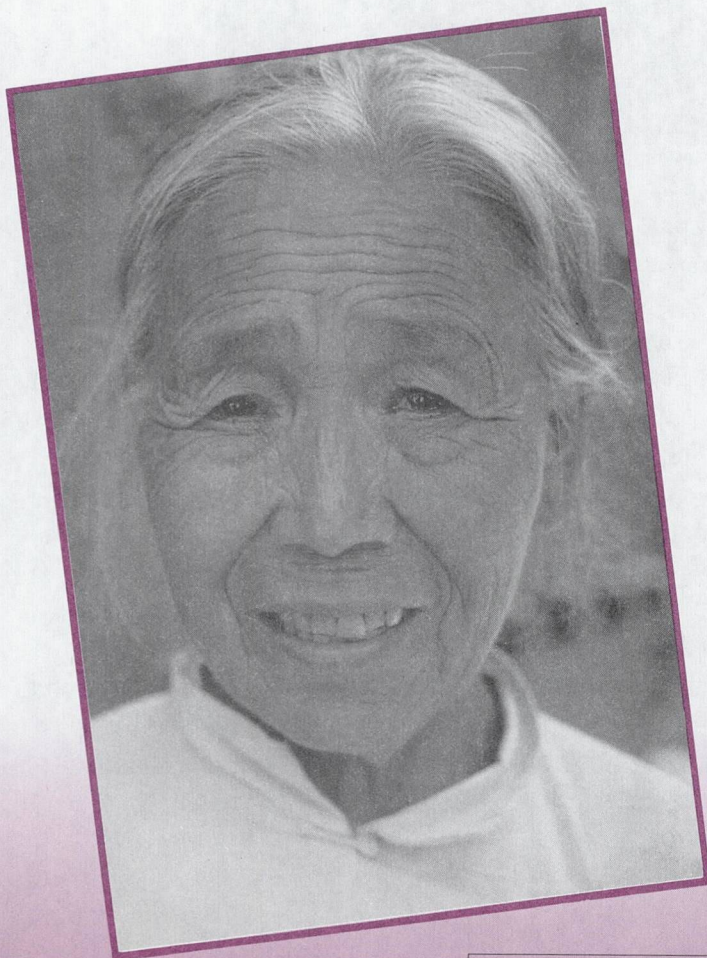
邢福增/ 홍콩 지엔다오(建道)신학원 조교수

번역/ 신호정 · 자원봉사자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 경험기(1)

첫 번째 만남

팡위에(方悅)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에 참여하였다. 이번이 처음이라 출발하기 3개월 전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심적으로 기대도 되고 부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훈련사역은 실제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연습시키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어서 나에게 너무나 귀중한 경험이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는 가정교회

우리는 모두 네 곳의 사역지를 찾아갔다. 각 지역마다 사정은 모두 달랐지만, 진리를 갈구하는 중국 동역자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그들은 찌는 듯한 날씨에도 매일 즐거워하며 열 시간 이상 수업에 성실히 임했고, 좁고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드렸다. 그들의 간절함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했다.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들은 중국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 많은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절대 삼자에 가입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 당국은 절대 신



지도자 훈련을 위한 장소는 늘 보안 문제를 철저히 신경써야 한다. 사진은 중국 한 농가의 주택.

임할 수 없고, 삼자교회는 이미 정부와 타협하여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형제 자매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정부 당국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어쨌든 상황의 긴장과 관계없이 일관하는 적당한 대응책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이 순탄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주께 감사드렸다.

도시의 발전은 많은 농촌 청년들을 도시로 끌어들었다. 외지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발길은 이미 시대의 대세이므로, 이 젊은이들이 외지로 취업을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양성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폐쇄된 정보통신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농촌 청년들에게 성경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만약 그들이 외지에 가서 취업하기 전에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다져있다면 어떤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사자로서 다

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드셨다

3주 동안 중국에서의 시간들은 힘들긴 했지만 나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처음으로 경험한 매일 2시간의 강의 훈련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두려웠으나 주님께 의지하여 담대해졌고, 강의를 하면 할수록 더 신이 나고 힘이 나 전혀 피곤을 느끼지 못했다. 계속 서 있었지만 다리도 아프지 않았다.

훈련은 찢는 듯이 더운 날씨에 이뤄져, 나처럼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정말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사병 예방약을 먹었지만, 둘째 주부터는 전신무력감, 어지럼증, 어깨와 허리통증, 설사 등 더위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는 아주 외진 곳이어서, 차에서 내려 약 2시간 가량 걸어가야

만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다. 이미 더위를 먹은 나는 또다시 더위 속을 걷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적어도 도착 후에 이를 이상은 쉬고나야 체력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황혼 무렵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원기왕성하게 4일 간의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양육 훈련 셋째 주에 나는 또 더위에 시달렸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비교적 가벼웠다. 이 기간 동안 현지 동역자들은 나를 주일 예배 설교자로 안내하였다. 비록 몸은 좀 불편했지만 마음은 별 부담이 없고 편안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주일이 되자 건강은 이미 회복되었고 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경배드렸다. 이날은 내가 처음으로 중국 가정교회에서 설교한 날이다.

훈련지에서 우리의 신본은 '선생님'이었다. 우리들에 대한 형제 자매들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어느 때고 강대상에 올라가지만 하면 우리 입에서 설교가 술술 나올 것이라 여기는 듯 했다. 한번은 그들이 청년 집회를 열었는데, 우리는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인줄만 알고, 어떤 성경구절을 찾아 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고심하며 준비하였다.

그런데 집회 장소에 도착해 보니, 기독교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노인 등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두 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원래의 구상을 바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이야기 해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였다.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서인지 그들은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설교 내용을 대폭 조정해야 하는 집회는 처음이었지만, 이것 역시 내게 상당히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번 훈련 사역에서 나는 아모스서를 강의하였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다. 가능한 성경구절 원문에 충실하게 분석하여, 말씀

의 뜻을 현 시대에 맞도록 생생하게 적용하고자 했지만, 강의 준비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은 아무리 해도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걱정이 좀 되면서도 나 스스로는 이미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위안하며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했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나는 비로소 이러한 걱정들이 모두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중국에 도착해서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과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공백'은 보충을 얻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귀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었다.

완성되지 않은 마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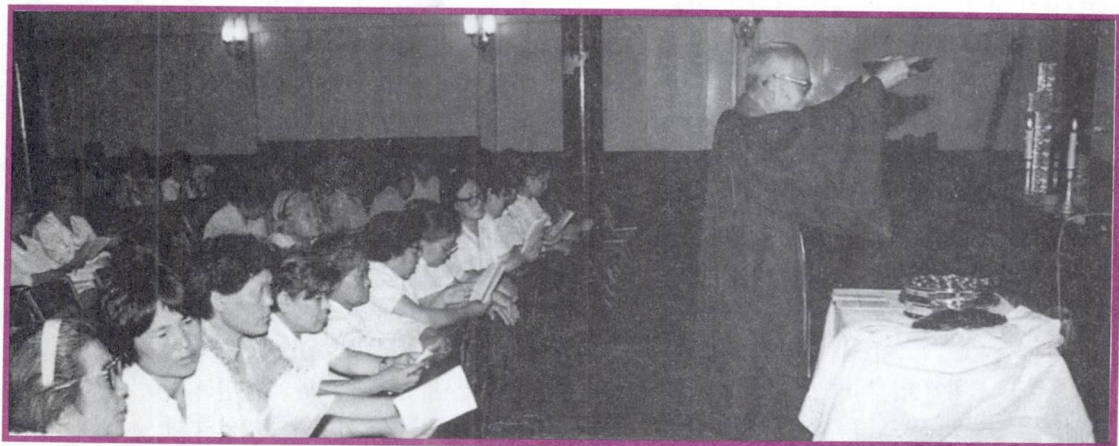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광저우(廣州)행 기차 안에서 우리는 중학교 교사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매우 성실한 지식인이었는데, 얘기를 나누던 중 우리가 대만에서 왔다고 하자 기꺼이 우리를 자기 숙소에 머물도록 해주었다. 숙소에서 다른 교사 몇 사람도 들어와 우리의 대화에 동참했는데, 그들 중에는 대만 사람을 처음 만난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만의 현재 상황,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 천안문 사건 등의 화제를 꺼내며 우리와의 대화에 흥미를 보였다. 우리들은 당연히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개인 신앙 간증을 나누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우리 앞에 중국 지식인 복음사역의 광활한 미개척지가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광대한 복음의 밭을 수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지도자 훈련에 참여하여 복음이 중국 대륙에 널리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린다.

중국과복음(中國與福音) 14期
원제: 第一次接觸
번역/ 정희정 · 자원봉사자

진리를 이어갈 새로운 세대

양푸잉(陽福英)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기독교양회(兩會-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 편집자 주) 제6회 전국양회가 96년 11월에 열렸다. 전국양회에 속해있는 8천여 개의 교회와 1천만 신도 중 3백여 명의 지도자,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이는 세기적인 사역이다.

중국의 신학원들은 과거 오랜 기간 폐교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졸업생이 없었다. 때문에 현재 중국 교회는 교역자의 '보릿고개' 현상을 맞고 있다. 신도 천만 명에 교역자 천여 명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들의 대부분이 70, 80세의 원로 사역자들이다. 작년에 열린 양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로는,

제6회 기독교양회 전국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는 70세를 넘지 않아야 하며, 80세가 넘는 교역자들은 대표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제6회 회의 때는 젊은 대표들이 많이 늘어나, 평균연령이 지난번 회의보다 대폭 낮아졌다.

사실상 양회나 교회들도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역자를 지도자로 양성하기 시작했다. 장쑤(江蘇)성은 이미 지도자의 90%가 청년들이다. 장쑤성 양회는 교역자의 정년 퇴임을 남자 70세, 여자 65세로 규정해 놓았다. 장쑤성의 교역자 중 이미 많은 수가 1988년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목사들이다. 베이징의 몇몇 교회는 이미 30, 40대의 청년



젊은 지도자들과 구세대 지도자들간에 놓인 보이지 않는 장벽은 중국 교회 성장의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목사들이 담임하고 있다.

현재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젊은 사역자들은 대부분 1980년 이후에 신학교를 졸업한 이들로서, 대부분 지역 교회에서 양육사역을 해왔다. 교회 부흥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원로 사역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원로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의 양육을 젊은 사역자들에게 넘겨주기 원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80,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역자들의 사역을 믿지 못하거나 선입견을 갖고서 자신들의 사역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개혁 개방 시기인 80~90년대에 성장한 젊은 사역자들은 많은 수난을 겪은 원로 사역자들처럼 의지가 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원로 사역자들은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와 비로소 사역을 재기했는데, 여기서 바톤을 넘겨주라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는 법. 현재 중국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막중한 양육사역을, 노령으로 체력이 쇠퇴해가는 원로사역자들에게 맡기기에는 무리이다.

삼자교회의 경우 평균적으로 목사 한 명당 1만 명의 신도를 양육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것은 젊은 사역자에게도 힘겨운 일이다.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원로 사역자들은 사실상 이미 업무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95년 11월에 열린 기독교양회회의에 25%의 상무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교회 지도자층의 노화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80년대 이래로 중국 10여 곳의 신학원에서 2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돼 보릿고개를 해결할 새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세대 사역자와 신세대 사역자 사이의 공백은 아마 영원히 채워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급성장하는 중국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수망중화(守望中華) 135기(96. 11/12)

원제: 讓新一代接棒

번역: 신호정 · 자원봉사자

새 시대, 새 양육 방식



황러링(黃樂靈)

중국 교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단층(斷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교회 내에 노년층의 사역자만 있고 중년층 이하의 사역자가 없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중국에서 사역자를 발굴하여 양성하고 있는 3명의 지도자와 목사를 방문해 그들로부터 직접 들은 새로운 양육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편집자

신축성 있는 양육 방식

갑(甲) 형제는 허난(河南)성 모 현(縣)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회 지도자(이하 사역자라 칭함)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87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온전히 주의 일만 하고 있다. 30대의 가장으로 1남 1녀를 두고 있고 부인은 봉제로 생계를 유지하며 갑 형제의 사역을 돕고 있다.

그가 사역하고 있는 곳의 신도수는 천 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자주 이웃 지역을 왕래하며 순회 전도를 하여 수천 명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다. 그가 양육한 사역자들만도 천 명이 넘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형식의 양육집

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갑 형제가 주최하고 있는 훈련 사역과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이다.

개인에 따른 양육 방식

양육반은 새로운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농한기에는 매일 집회를 인도하고 농번기에는 매주 3, 4차례 정도 집회를 인도한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신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사역자들의 사역을 분담할 동역자들을 훈련시키고자 양육반을 개설한다.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역자들은 훈련을 마친 후 규모가 작은 처소에서 독자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각 처소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신도들을 발굴하고 있다. 청년(18세~20세)들이 가장 적합하며 초신자도 가능하다. 일단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신도들에게 양육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양육반의 훈련 시간은 매월 1회, 1박 2일 정도이고 훈련생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집회를 인도하게 된다. 양육 내용은 찬송 인도, 성경 공부, 기도 등으로 실제 사역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가르친다.

일반적으로 농촌의 신도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는다. 이것은 이들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과 설교 내용에 맞는 찬양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가르칠 수 있다. 나이는 신도들은 찬양을 배우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젊은이들에게 음악 이론과 찬양을 가르쳐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영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반해, 나는 정확한 성경 해석 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그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신도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병이 난 돼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신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사역자들의 사역을 분담할 동역자들을 훈련시키고자
양육반을 개설한다.

그래서 나는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하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한 양육 훈련

교제 모임은 설교 능력이 있는 사역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찾아간 현의 한 구역에 이와 같은 사역자 모임을 만들었다. 이곳의 수십 명 사역자들은 각자 수백 명의 신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각 구역 사역자들이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를 위주로 모임을 갖는다. 성경공부는 주로 90년대 초에 중국 사역자들이 편찬한 일종의 조직신학인 『36론』을 갖고 하는데, 총 52과로 되어 있다. 나는 『36론』을 정리한 노트를 참가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성경공부를 하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靈感)과 각자 처소의 목회 상황을 나누며 서로 기도한다.

우리가 맡은 성(省)외에 다른 성에서도 양육반의 필요가 시급했다. 나는 500부 이상되는 『36론』을 우리 현 사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몽고 등지에서 온 사역자들에게도 500부를 나누어 주었다.

매번 전도 여행 후에는 그곳의 새로운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집회를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95년 말 17일 간의 전도여행 가운데 1,800여 명이 주님을 영접했다.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96년 초에는 타지에서 온 사역자들을 양육했다. 당초 40여 명으로 계획했었는데, 나중에 400여 명이나 몰려왔다. 예상치 못한 인원 증가로 음식과 숙소가 부족해 학생들은

불편들을 참아가면서 양육을 받아야 했다. 늘어난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매일 매일 수업을 해야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내 체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원래 일주일로 계획했던 과정은 5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양육 방식의 변화

예전의 중국 교회는 양육에 소홀했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의 말에 의하면 허난(河南)성에서부터 이런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허난성에 있는 주요 사역자들이 훈련반을 만들어 단체로 사역자를 양육했으며, 그 효과가 다른 지역의 사역자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이들 또한 사역자 양육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제식 훈련이 쇠퇴하고 집단식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제식 훈련은 중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훈련 방식으로, 지금도 중국 가정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

용된다. '50, 60년대의 정치운동과 공산주의가 주장한 계급투쟁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서로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또한 최근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와 한 자녀 낳기 정책으로 인해 유대관계가 더욱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절대 순종과 친밀한 관계 유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사제식 훈련은 현대 중국의 신도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이 되었다. 반면 일대일 방식은 속도가 너무 느려 빠르게 성장하는 신도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가 없다. 이상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전통적인 양육 훈련인 사제식 훈련은 쇠퇴하였다.

청년, 중년, 노년층의 양육 상황

심령부흥회식 훈련 내지 성경공부는 지도자 훈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훈련 방식이다. 원로(50세 이상) 사역자들은 주로 새로운 사역자들을 심령부흥회식으로 양육한다. 이 방식은 그저 훈련받는 사역자가 기본적인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고, 영적인 성품을 배양해 주는



집단식 훈련의 경우,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양육이라고는 할 수 없다.

중년(40~50대)의 사역자들은 주로 성경공부를 통해 새로운 사역자를 양육한다. 중국 각지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열어 새로운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큰 지역의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개최할 때마다 이틀 정도는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은 지역의 교회는 사역자들끼리 함께 모이기 쉽기 때문에 매주 성경공부 모임을 갖는다. 사역자들은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진리를 직접 설교에 인용할 수 있고, 다른 사역자들과 서로의 목회 상황에 대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성경공부는 영의 양식이진 진정한 의미에서 양육이라고 할 수 없다. 양육은 진리와 봉사에 대해 배우고 영성을 배양하는 등 다양한 부분이 포함된 제자훈련을 말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육받고 있는 신도 중에는 비교적 젊은이들(18세~20세)이 많다. 중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평신도는 필연적으로 사역자가 되어버린다. 어떤 신도의 경우는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개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역자가 되어 버렸다. 또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신도도 사역자로 추천된다. 중국 교회는 형제보다 자매의 수가 단연 많기 때문에 여자 사역자가 지도자의 자리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각지의 주요 사역자들 또한 남성이다.

양육 훈련 참가 자격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교회를 섬기고 있거나 설교를 맡고 있는 사역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양육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은 대개 중년층(40~50세)이다. 이들은 비교적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목회 중인 교회도 부흥하는 편이고 지도자로서의 존경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 교회 1세대 지도자(원로 목사)들로

중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평신도는 필연적으로 사역자가 되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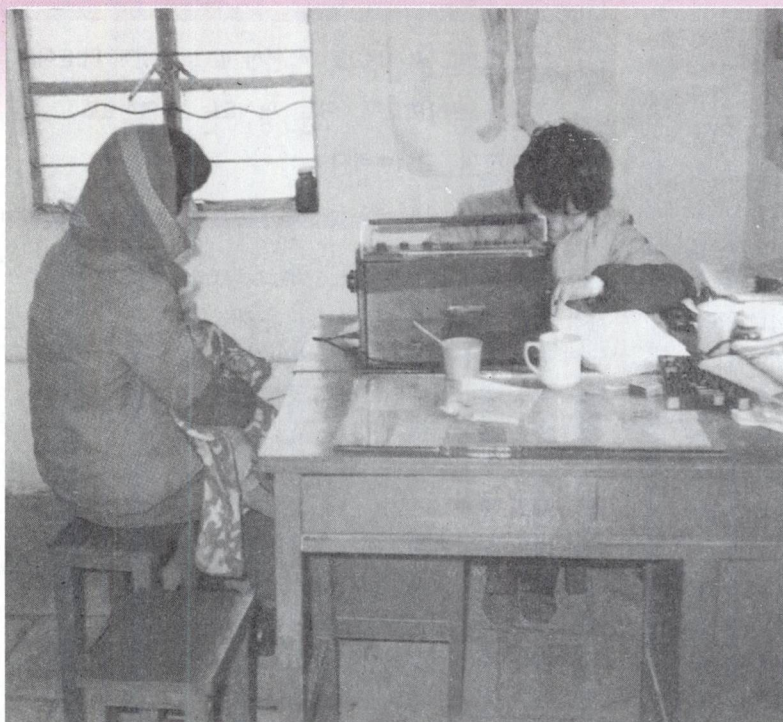
부터 지도를 받아 신학적인 기초가 탄탄하며 사역의 경험도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사역방식도 박력있고 융통성이 있다. 따라서 젊은 층과도 잘 통해 이들이 인도하는 양육반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양육 교재의 수준

일반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은 성경을 위주로 짜여지지만, 요즘 사역자들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한다. 많은 양육교사들이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양육반의 수준은 교사와 양육훈련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교사들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행된 출판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교재들은 대부분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므로 중국 교회의 특수 상황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교재의 부족은 양육반을 개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외국의 양육훈련 지원

해외 교회와의 협력으로 개설되는 양육반 형태는 매우 보편적이 되었다. 해외에서 계획된 것도 있고, 중국 현지 사역자와 함께 계획된 것도 많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양육 교사들의 신학 수준이 높다는 점 때문에 중국 사역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현지 사역자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해외의 양육교사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가르치는 양육반의 과정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해외 양육교사들과 현지 교사들간의 불협화음, 혹은 수업내용이 현지 신도들의 필요에 적합하지 못한 점, 심지어 일부 해외단체에서 조



중국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방송 프로그램을 녹음하거나 기록하여 양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건부로 양육반을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중국 교회들이 점차 해외로부터 양육받기를 거절하고 있다.

새 시대의 양육

21세기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중국의 신도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 경제 개혁이 중국 신도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이전에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투옥) 신도가 진실한 신도로 인정되었으나, 현재의 기준은 많이 낮아졌다.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정도면 신실한 신도로 받아들여지니, 전임 사역자로 헌신한 신도는 말할 것도 없다. 연해 지역에서는 신도들의 경우, 생활이 비교적 부유해지자 주님께 헌신하는 태도가 조금 약해졌다. 내륙 지역의 신도들은 날이 갈수록 먹고살기 바빠 주님을 섬기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양육반을 만든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어렵고,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양육반을 개최하기는 더욱 어렵다.

과거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외진 곳에서의 장기간 훈련은 당국에 발견될 가능성이 적고, 사역자들이 좀더 넓은 지역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 사역자들은 이런 방식을 거부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장거리 이동을 위한 여비도 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유행했던 위와 같은 양육방식이 지금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양육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우선적인 조건은 양육의 내용이지 형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 교회에는 때와 장소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의 양육 교사들과 현지의 교사들이 힘을 합쳐, 수준 높고 신도의 필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양육의 형식을 다원화 시켜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독학 과정이 비교적 환영을 받고 있으므로 독학용 비디오 테이프나 녹음 테이프를 더 많이 제작해서 사역자들이 교사의 자질이나 시간, 장소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질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뛰어난 지도자는 반드시 말씀에 갈급하고 어느 정도의 영성과 좋은 성품, 그리고 신학적 기초가 있어 성령과 친밀히 교통하는 삶을 가진 자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양육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본인에게 달려 있다.

신·구세대 간의 갈등

구세대 사역자들과 청년 사역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갈등이 존재한다.

구세대 사역자들의 기대가 너무 높아 적지 않은 새로운 사역자들이 떨어져나가기도 했다. 광저우(廣州) 교회의 한 자매 사역자는 나이가 50세 정도로, 지금 현재 9개의 처소를 인도하며 수백 명의 신도를 양육하고 있다. 이 교회는 치유의 기적이 많고,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른 교회이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매 사역자는 두 자매를 딸로 삼아 양육했다. 2년 동안의 힘든 사제식 훈련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과 두 자매에 대한 실망을 느껴 좌절했다.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사역 능력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무슨 일을 맡겨도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사역 방식은 자신과 도무지 맞지 않았다.

신세대 사역자들은 여러 방면의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사역을 포기한다. 신세대 사역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들이 직면한 장애요인은 매우 많다. 구세대 사역자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이 많은 신도들 역시 나이 어린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자교회 교역자차

현재 중국 교회에는 때와 장소에 맞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럼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청년 사역자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확고히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구세대 사역자들은 신세대 사역자들에게 구세대의 스타일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각 지도자마다 은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중국 교회의 젊은 사역자들이 갈등하는 요소이다. 더군다나 어떤 사역자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망중화(守望中華) 135期

원제: 培訓新接觸

번역/ 신호정 · 자원봉사자

바로잡습니다.

▷ 본지의 가격은 지난 97년 1/2월호부터 권당 4,500원, 1년 정기구독 2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난호 정기구독 신청 우편 엽서에 정기구독료가 인상되지 않은 가격으로 기재되어,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정기구독료 1년 24,000원 / 2년 48,000원 / 3년 72,000원

▶ 지난호 13쪽, 17쪽, 29쪽, 41쪽, 53쪽, 65쪽, 77쪽, 101쪽 하단 중국어회화

“我是狗/ 나는 개띠입니다”를 “我是屬狗/ 나는 개띠입니다”로 바로잡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사역에 대한 생각

정현진



필자

는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 사역의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수년간 그 사역에 집중하는 사역자 옆에서 그 사역을 직간접으로 도와 온 경험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서 준비하는 중이다. 따라서 필자는 책임있는 비판이나 제안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보고 느낀 것과 회미하게나마 내다보는 것을 정리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모든 사회 문제는 현상적으로 볼 때 총체적인 성격을 가진다. 가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하

여 직장과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은 얼핏 보기에 너무나 꼬여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원인을 따져보고 원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들은 예외없이 그 모든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한 가정의 가장, 직장과 국가의 최고 경영자가 모든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디에서나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요즈음,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의 문제

다. 신학교의 지도자에 의해 길러진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 길러진 사람들이 신학교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연결고리에서, 부끄럽지만 우리는 교회나 신학교 모두 지도자 부재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진 실임을 보여 준다. 성경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거듭 가르치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가 맛보는 갱신의 희열과 패배의 쓴맛은 모두 지도자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선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중국선교에서도 대단히 강조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선교현지에서의 지도자 양성이나 훈련은 선교방법의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일 것이다.

요즈음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부분이 어떤 형태이든지 연결된 현지인을 중국 교회의 훌륭한 미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선한 욕심을 품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아래의 순서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순차적인 흐름이 아니라 생각의 단편들을 모은 것임을 밝힌다.

1. 지도자 훈련사역을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먼저 바른 지도자인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
2. 중국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3. 선배 선교사들의 교회 지도자 훈련 경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4.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
5. 파송교단, 교회, 단체와 현지교회, 피훈련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미래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선교현지에서의 지도자 양성이나 훈련은 선교 방법의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일 것이다.

6. 훈련대상자 모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사례 소개
8.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지도자 훈련사역을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먼저 바른 지도자인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든 감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신 스스로가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필자가 듣기로는 현지 선교사들 중 지도자답지 못한 분들이 꽤 많다고 한다. 이러한 분들은 소위 ‘독립군 선교사’ (혼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 중에 많을 가능성이 있다. 소속 교단이나 교회, 선교단체를 통해 그 자질이나 인격, 지도력이 평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훌륭한 인격을 갖고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책임의 소재가 명백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사역의 책임적 지속성에서, 현지 선교사들과의 협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책임있는 선교단체나 교회, 교단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고, 또 현지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자 교육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필수라 하겠다. 언어훈련 뿐 아니라, 성실한 신학수업 및 제자훈련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인격의 훈련 등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중간 지도력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중국 교회는 현재 20, 30대의 젊은 일꾼들을 시급히 키워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있는 중국의 청년들

중국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을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중심 동기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보고하기 위한 지도자 훈련이 아니라, 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지도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다. 이 부분은 선교에 대한 개인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에 달린 문제이겠으나, 공개적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성숙이 전제되어야 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 자신의 각오와 결단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중국 교회가 지도자의 세대적 단층 현상이라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40, 50대 목회자들의 원숙하면서도 활동적인 지도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과거 역사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중간 지도력의 공백 상태

에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20, 30대의 젊은 일꾼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소양, 정열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한 순전한 열망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선배 선교사들의 교회 지도자 훈련 경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중국 교회를 위한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 역사는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선교적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대표적인 몇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직, 간접적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선교현실에 충분한 경험 없이 뛰어들게 된 선교사들은 단 1, 2년이라도 먼저 현지적응을 해온 선배 선교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맺어야 한다.

특히 지도자 훈련에 있어서 한족과 조선족,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를 적절하게 안배하고 엮는 일들에 각별한 주의와 지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책이나 문건을 통해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선배 선교사들의 경험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다만, 중국현지의 사정으로 인해 '신학적 게토화'(신학적 고립화) 현상이 생겨서 일정 그룹 혹은 교단의 배타적 입지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자훈련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훈련을 시켜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 부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거창한 신학교 사역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수년간 소그룹 사역을 지속할 것을 각오하면서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성경의 각 부분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위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과내용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중국어로 강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어 수업에 꾸준히 열을 다하되, 조선족 동포 중 능력있는 통역요원을 적절히 발굴하여 학과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신학교재 중에는 중국 현지에서 너무 어렵고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보다 쉬운 형태로 가르치면서,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 꾸준히 교재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지어로 된 건전한 신학교재를 꾸준히 구입하고 그곳 실정에 맞게 만들어가는 일에 상당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훈련을 포함한 현장실습이다. 신학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배운 것을 현장에 쏟아놓아야 할 때 그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

현지 선교사들은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 훈련의 안목을 처음부터 훈련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적 준비라기보다는 영적 인내력과 화합의 의지, 그리고 초지일관의 제자도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파송교단, 교회, 단체와 현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미래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역사의 문제다. 중국선교를 위해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의해 양육되는 현지 지도자들이 장차 중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신중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 훈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현지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현지인이 이 교육을 책임지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도자 훈련의 초창기부터 이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중국은 무교단 혹은 초교단적 교회를 견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자랑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정서에 교단신학 중심의 풍토에서 자란 한국의 선교사들이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겠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중국 선교사들 사이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의 교단들 사이에 책임있는 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한국 교회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책임있게 합의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 선교사들은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 훈련의 안목을 처음부터 훈련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훈련 대상자 모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끔씩 현지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현지에 들어간 이후 하루라도 빨리 사역을 시작하기를 고대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성급하게 학생들을 모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훈련 대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사람들을 분별없이 끌어들이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후 처리에 심한 고민이 따르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안이 특별히 강조되는 중국에서 훈련 대상자를 성급하게 구하게 되면 반드시 위험이 뒤따른다. 그 결과 쫓기다시피 현지에서 나와야만 했던 분들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지 못한 동기로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자들도 적지 않음을 잘 고려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선배 선교사들의 적절한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 소개

필자가 섬기고 있는 기관은 선교지 중심의 사역을 위해 약 15년 전, 미국의 신학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태동되었고, 한국에서는 7년 전에 공식 출범하였다. 이 모임에 헌신된 한 선교사가 7, 8년 전 현지에 전문인으로 들어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곧 누군가의 소개로 두 명의 조선족 동포를 만나게 되었다. 선교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해 온 경험이 있으며, 이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명의 동포를 중심으로 4년여 간 꾸준히 훈련을 시키는 중, 한 사람, 두 사람 훈련생(주로 한족)들이 참여하여 3, 4년 전까지 20, 30명의 피훈련생들이 생기게 되었다.

교육은 주로 그 선교사가 담당하였으나, 가끔씩 외부 강사들을 초빙하여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다. 대다수가 한족이었던 관계로 먼저 훈련받은 조선족 동포가 통역을 맡았다. 통역의 수준이 상당히 훌륭했기 때문에 강의 전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학생들의 강의

노트 중 빼어나게 잘 된 것들은 따로 뽑아서 다음 기수의 훈련을 위한 교재로 만드는 일을 병행했다. 결국 이 제자훈련 모임은 자연스럽게 신학교 형태를 띠어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3년 과정의 신학교 커리큘럼을 짰고, 이 커리큘럼에 따라 한국과 미국, 홍콩 등에서 이 일에 헌신된 신학교 교수들을 초빙, 강의를 부탁드렸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한 교수들은 거의 2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인정받는 분들로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한 달에 두 분씩, 일주일 간 현지를 방문하여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었다. 3년 과정의 결과, 제1기생들을 졸업시켰고, 피훈련생 중 학업을 잘 소화하였던 현지인 젊은이 9명을 제2기생들을 위한 교수요원으로 세우게 되었다. 이 9명의 현지인 교수들의 교육열정은 매우 탁월하고, 현지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실력 또한 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제2기생들은 약 30명으로, 일부는 일주일 내내 숙식하면서, 일부는 일주일에 하루 모여서 신학, 성경, 경건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보안이므로,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사역은 좀 더 세분화되었다. 교재를 만들어내고 인쇄하는 출판부, 훈련에 집중하는 신학교, 그리고 학생 중 개척한 사람들의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부 등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 기관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형태의 훈련이 이제 다른 한 두 지역에서 새로이 시작되려고 한다. 앞으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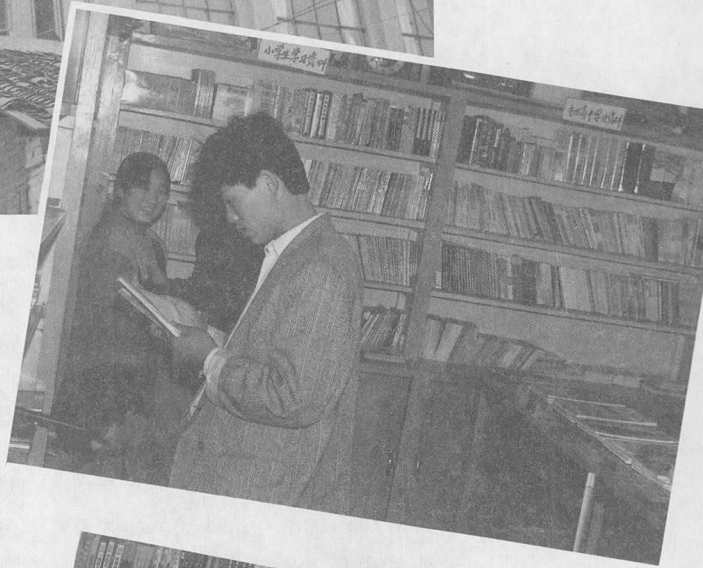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꽤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의 영적 필요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숫자는 아직도 대단히 미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일군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듣기로 현재 중국 전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신학교재들이 몇 곳에서 저술되거나 번역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필자가 소속한 기관에서도 이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준비된 선교사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재들이 개발되면, 동북삼성(東北三省)과 연해에 몰려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지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국선교를 해오면서 한국 교회가 겪어온 모든 실수와 미비한 준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지만, 특히 신학교육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인 보다 긴급한 과제는 '무엇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곧 신학의 문제요, 교과적인 문제요, 궁극적으로는 중국 교회 역사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심각한 책임을 느끼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 삼자신학교의 도서관.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에 필요한 신학서적 등을 보급하고 출판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동참할 수 있다.

“거기 말씀의 갈증이 있었다”

무친(牧群)

어려을 때 나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처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스릴있는 모험인가?

그러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야 이한 번 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또 중년에 들어선 후부터는 외출할 때마다 더욱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 교회 지도자 양육을 위해 중국에 가려고 방한복, 각종 약품, 컵라면, 젓가락, 휴지, 미국 달러, 대만 달러, 인민폐 등등을 빠짐없이 챙겼다. 그런데 아뵘새! 목적지에 절반도 가지 못해서 우리가 가려는 곳의 현지 지도자 두 사람이 체포되고, 다른 이들은 도망가 숨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여행 계획을 책임지는 분이 내게 윈난(雲南)성으로 경로를 바꿔야겠다고 알려주었다. 이튿날 그는 또 전화를 걸어 내륙 오지의 농촌으로 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나 혼자 그곳까지 찾아가야했고 거긴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이것 참 잘됐다. 내가 원하는대로 됐

으니 자, 출발이나 하자!’

큰 도시에서

우선 연해 큰 도시에 도착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내가 입은 옷이 그들의 옷보다 더 촌스러워 보였는지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당신이 마가복음을 가르친다고요? 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들은 모두 능력을 갖춘 지식인이었다. 대학교수, 대학원생, 엔지니어, 사업가 등등. 그들은 조금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되고 오래지 않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강의를 필기하기 시작했다. 떠나는 날이 되자,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목사님, 다음에 이 곳을 지나게 되면 꼭 우리집에 머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 다음에도 다시 와서 마가복음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거지요?”

그들 중에는 이미 두 명의 전임 사역자가 있어, 시내 및 대학에서 복음을 전할뿐 아니라 부근 농촌 교회도 지원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교

위 간부의 자제들이 외국에 유학가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돌아와,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중국 정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히 지켜 주시고, 중국에 더 많은 바울, 누가, 니고데모, 가말리엘이 일어나 집권자 앞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벽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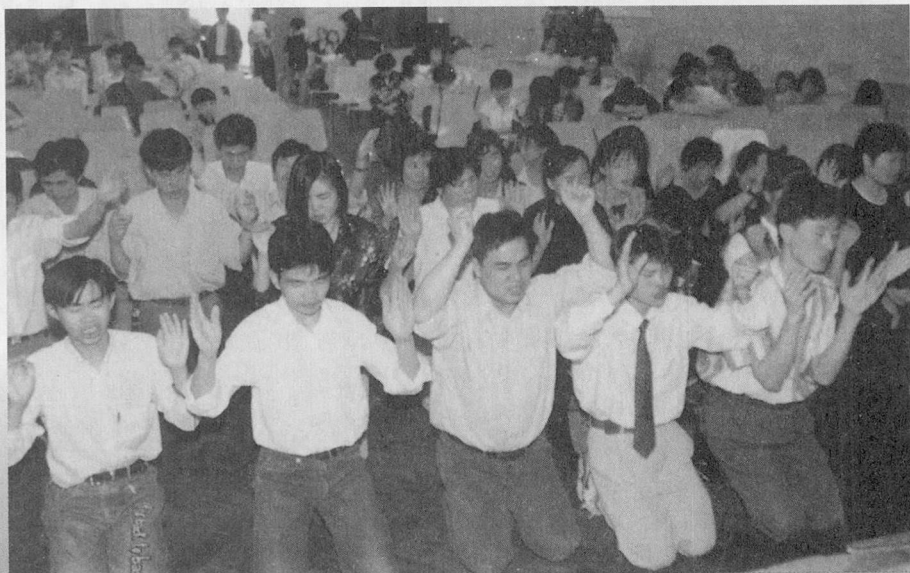
밤차를 타고 내륙 지역 큰 도시에 도착했다. 마중나온 두 사람은 방금 감옥에서 나온 듯한 스포츠형 머리를 한 젊은 전도사들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매우 사납고 용맹스러워, 과거 이 지역에서 명장도 나오고 유명한 도적도 나왔다고 전한다. 얼마 전에는 강도떼가 버스를 세워 차에 탄 사람들의 물건을 몽땅 털어간 적도 있다. 도둑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공안원 조차 순순히 지갑과 시계를 내놓았다고 하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절부절 불안해서 건딜 수가 없었다. 우리가 탄 차는 너무나 고물이라 달리는 동안 계속 덜컹덜컹 소리가 났다. 경적소리는 요란하고, 길은 울퉁불퉁하여 온 몸은 흔들거렸다. 게다가 밖에 큰 비가 주룩 주룩 내리는데 차 안에는 비가 새서 물이 떨어지고,

담배 냄새며 땀내가 코를 찔렀다. 여섯 시간 후 마침내 차가 멈췄다. 다시 경운기를 개조해 만든 손님 전용차로 갈아타고 산길을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지도에서도 지명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산 중턱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우리들은 바로 이곳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부근 다섯 현(縣)의 동역자들이 두세 명 짝을 지어 어두운 밤길을 더듬어 들어왔다.

비몽사몽 중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새벽 5시밖에 안됐는데, 기도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깨어났다. 스무살 남짓한 청년들을 대하니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나는 삼십여 년 동안 읽어온 말씀과 사역의 경험 등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었다. 설교를 시작하니 마치 강물 흐르듯 술술 나왔다. 대부분의 내 설교는 메모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의 기름부으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다. 나는 단지 순종하는 그릇에 불과했다.

하루 여덟 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저녁이 되면 나는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질문공세를 받았다.

“목사님, 나는 항상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



는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가요, 아니면 악한 영의 속삭임인가요?”, “저는 주님을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항상 나를 때리고 목욕도 전혀 안합니다. 이제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려고 해요”, “귀신을 내쫓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요?”, “어떤 사람만이 세례를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요?”, “선생님, 떠나지 말고 여기 남으시면 안 되나요?”

훈련 셋째째 되는 날 오후 4시 30분, 수업이 모두 끝나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았다.

작별인사를 할 무렵,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조사하기 위해 갑자기 집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허리를 굽혀 작은 나무 숲속으로 재빨리 도망가 숨었다. 현지 동역자에게서 배낭을 건네 받은 후, 논길 사이에 난 작은 길로 황급히 떠났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우리는 한 농촌 마을에 이르러 지도자 양육 훈련생을 모집했다. 지하 작은 방에 20명에서 30명의 사역자들이 몰려왔다. 벽은 구약시대 모세가 애굽에서 만들었던 흙벽돌과 비슷했고, 방바닥은 원시시대 움막집처럼 황토흙이었다. 작은 창문 역시 안전을 위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낮에도 촛불을 켜고 수업을 했다. 밤엔 벼짚을 깔고 잤으나 달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공장에서

한 작은 읍을 거쳐 돌아오는 길에, 어느 형제한테 강제로(?) 붙잡혀 하루종일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장 숙소 한 동(人雜院: 나의 딸을 중심으로 하여 각양 각색의 가구가 모여 사는 주거 형태-역자 주)에 4곳의 집회 처소를 개척했다.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회가 외부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예쁘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한 젊은 자매를 이곳에서 만났다. 그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손에 물 한방울 묻혀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매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장을 보고, 빨래하고, 정성스레 남편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녀가 이번엔 손님으로 온 나의 더러운 옷까지 세탁해 주었다.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 간증으로 인해 상부에서도 그들을 조사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것이었다.

아플 새가 없다

너무 지쳤는지, 편도선에 심한 염증이 난 나는 한 형제 집에 숨어 쉬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내가 가르쳤던 세 명의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빌립보서를 펼쳐 1장부터 원고없이 설교와 강의를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빌립보서를 가르쳐 주신 이후, 전 다른 집회에서 일곱 번이나 그 강의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나는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하루종일 강의했다.

비행기가 상하이(上海) 공항을 이륙할 때,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중국 땅을 뒤돌아보며 난 계속 중얼거렸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체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시편 137: 5-6)

눈물을 머금고 한 번, 또 한 번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빨리 돌아올 것이다!

중국과복음(中國與福音) 13期

원제: 我當回來, 很快回來

번역/ 홍정연 · 자원봉사자

중국·중국인·중국·중국인·중국·중국인·중국·중국인·중국·중국인·중국·중국인

극장 선전 포스터와 명예 훼손

유민호

중국인들은 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민감하다.
이같이 높은 권리의식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높은 자존심으로 발전하여
가끔씩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지난 '95년 허난(河南)성 링바오(靈寶)시의 인민 입체성 영화관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미국 영화 “트루 라이즈” 상영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은,
중국인의 드높은 프라이드에 대해 시사해주는 사건이었다.

극장측은 손님을 끌기 위해 언제나처럼 영화 선전 포스터를 시내 구석구석에 돌렸다.
이 때 문제가 된 것이 영화 포스터에 쓰여진 선전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영화를 볼 것이지만, 바보들은 결코 이 영화를 보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중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영화를 보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선전문구의 근거를 묻는 항의전화가 곧바로 극장으로 쇄도했다.

이와 함께 시(市) 문화국과 소비자협회는 분노한 인민들의 뜻을 모아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을 바보로 규정하는 것은 인민들의 명예를 짓밟는 오만불손한 행위”라며
공동항의문을 극장측에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소송도 강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극장측은 물론 이같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단순한 선전 포스터일 뿐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링바오시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고,
결국 인민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결국 극장 주인이 현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공식 사과를 하고,
이후 인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전문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항의 시민들에게 일일이 전달하는 것으로 타협은 낙찰되었다.

얼마 전 한국의 모 자동차 회사가 베이징(北京) 한복판에
『중국은 세계의 중심, 자동차는 한국이 중심』이라는 광고문을 붙였다가 베이징시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중국은 세계의 중심도 아닐 뿐더러, 한국 자동차가 세계 제일이란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이 주의 처분의 이유였다. 개혁 개방과 함께 빠르게 변화가는
중국이지만 아직까지 광고문을 실제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국인이다.

유민호/ 松下政經 중국 현지 연수생

중국 성도의 간증

젊은 지식인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타이더(秦德)

학문

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연구할 만하고 논쟁할 만한 것이다. 나는 학문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께 헌신한 전도인이 되었다.

공부를 시작하여 석사학위를 받기까지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위 취득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앙을 얻게 된 것이다.

방송으로 처음 복음을 듣다

열일곱 살에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 그 때 내 생애 처음 번 돈으로 나 자신을 위해 정성어린 선물을 샀다. 그것은 바로 작은 단파 라디오였다. 40 위엔(元)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단 한 번에 쓰는 것이 마음은 좀 아팠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승원 그림

길이 되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 방송을 들었다. 방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때의 신앙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내가 공부하던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성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계속 호감을 갖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이 지난 1979년에야 비로소 대학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은 없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사범대학에 합격했다.

진리에 대한 욕망

4년 동안 생물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이것이 철학에 대한 나의 관심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허무」를 비롯, 실존주의에 대한 책들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중국어로 번역된 철학서들은 한 권도 빠짐없이 사서 보게 되었다. 이미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다방면의 과학을 섭렵했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몰려 들었고 그들은 나에게 ‘연설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비록 학문의 전당에서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기만 했다. 내 인생을 인도할 만한, 그리고 인간

존재의 가치를 이해할만한 지식을 얻기 위해 계속적으로 철학은 물론 과학, 인물 전기 등을 열심히 섭렵했지만, 그 해답은 여전히 찾을 길이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지식은 날로 늘어갔지만 이러한 공허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생물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 대학원에 진학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전공은 생물학에서 철학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했는데, 이미 그 때는 시험 날짜가 가까웠고 학교에 신청할 휴가도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대학원 시험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나는 엄청난 거짓말을 꾸미기로 작정했다. 소변검사 시 손가락에 상처를 내, 소변에 피를 몰래 섞어 신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오도록 했다. 결국 내 뜻대로 3개월 간의 병가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병가를 허락했던 그 날로부터 나는 책을 몽땅 다 훑어지고 모교인 사범대학으로 가서 밤낮으로 공부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나는 결국 명문 대학원에 합격했다. 자기의 노력에 따라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 가득찬 나는, 어려서부터 늘 온 힘을 다해 목표를 향해 매진해왔고, 또 그 때문에 나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는 늑기도 전에 큰 병에 걸려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나 자

신의 노력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생명의 전환점이 된 시편

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열심히 인도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민주화가 중국에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89년 6월 4일 천안문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대학원생이었다. 처음부터 매우 흥분했던 나는 천안문사태를 겪고 나서 심한 좌절을 느꼈다.

당시 대학원에 한 외국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의 눈길을 끌었다. 나중엔 알고 보니 그들은 기독교인이었다. 당시 내가 과대표여서 이들과 접촉이 비교적 잦았다. 하루는 그가 나에게 영생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나는 “세익스피어가 바로 영생이다.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쓴 문장은 영원히 후세에 남겨졌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그당시 나의 영생관이었다. 내 대답을 듣고난 그는 내게 ‘사영리’라는 소책자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나는 그의 말을 배척하진 않았지만 믿지는 않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살아온 33년의 세월의 대부분이 고난과 좌절로 점철되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갑자기 기분이 침울해졌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6·4 천안문 사건을 겪은 후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던 차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



장승원 그림

게 느껴졌다. 이 세상엔 위선과 사기, 암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람은 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번민 중에 나는 침대 머리맡의 성경을 펴들었다.

시편 44, 45, 46편을 연달아 읽던 중 몇 구절의 말씀이 마음 깊이 파고 들었다. 시편의 몇 구절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나니 마음이 곧 편안해졌다. 후에 나는 그 외국인이 주었던 ‘사영리’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러면서 마음 속으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후부터 자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외국인이 다시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때 나는 “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

어요”하고 말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기뻐 어쩔줄 몰랐다.

결혼 그리고 헌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나는 가장 큰 근심거리를 주님께 아뢰었다. 이미 서른셋이나 되었는데도 결혼 못한 노총각이었던 나는, 주님께서 좋은 배필을 정해 주시길 간구했다. 아내가 될 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길 바랐다. 나이는 나보다 적고 예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여자였으면 했다. 나는 곧 외국에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는 아내를 얻어야만 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기도한지 2개월 정도 지나 정말로 배필감을 만났다(이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다). 하나님은 꽃과 같이 예쁘고 영어를 전공한, 그리고 나보다 여덟 살이나 어린 자매 바오라(寶拉)를 만나도록 해주셨다.

나는 너무나 기뻐했다.

결혼과 학업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나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성경은 강한 흡인력을 갖고 나를 매혹시켜, 열 몇 시간씩 앉아 읽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나는,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였다. 대학 내에 있는 기독교 청년 모임의 리더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해나갔다. 모임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넓디넓

은 집을 허락해주신 것이다(한 친구가 일본에 가게 되어 자기가 살던 집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 넓고 탁 트인 영적 수련의 공간을 갖게 된 나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다. 대학생 모임을 이끌면서도 나는 자주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또한 주님을 믿은 이후 진리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외국에 나가 유학할 계획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빨리 아이를 갖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남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순조롭지 못한 환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안을 구하는 믿음을 배웠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면서 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주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종들을 통해 나를 도와주셨을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내게 도움이 되어주셨다. 그중 한 예를 들자 한다. 아내가 아기를 낳아 몸조리하는 동안 기저귀를 빨고, 우유를 먹이고, 밥하는 모든 집안 일이 내 몫이 되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집에 보내어 일을 돕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집안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성경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 조국, 중국의 복음화를 소망함

앞으로 나의 삶이 더욱 성령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음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중국 복음화와 중국 문화의 기독교화를 위해 일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특히 중국의 지식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 삼는 일은 매우 급한 일이다. 앞으로 나는 지식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헌신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둔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들이 장차 중국 교회의 튼튼한 기둥들이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는 중국에서 줄곧 외래 종교의 인상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토착화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중국 복음화와 중국 문화의 기독교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서양의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 주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사역을 자기들의 조직과 방향으로 이끌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외의 선교단체들은 중국 복음화를 위한 협조자일 뿐 주도자는 아니다. 중국선교는 마땅히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께서 하시려는 일을 계속 이루시길 희망한다.

『중국과 복음(中國與福音)』 13기
원제: 在尋找真理的路上我遇見神

번역/ 정희정 · 자원봉사자

북경탐구

화장실 줄서기

베이징에서 거리거경을 하다가
급히 화장실을 찾으려면
한참을 헤매야 한다. 겨우 화장실을
찾았다 하더라도 화장실문밖에 뽐비는
사람들이라니...

보도에 의하면 베이징시의 공중
화장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평균적으로 인구 1만 4천명 당
화장실이 오직 한군데 배치되거나
상가 등 주요 상점 매장에는 공중
화장실이 더욱 부족하여 십만 명당
하나의 공중 화장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장실 부족 현상을
만회하고자 중국 정부는 1995년 12월
25일 현재 베이징에 38개소의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약 1,300만 위엔(元)에 달하는
저자금을 내세워도 화장실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蘋果日報 95. 12. 26 / 南華早報 95. 12. 23
守望中華 131期

번역 /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루난교회(魯南教會)

중국 교회 순례(3)

루난

(魯南) 지역은 산둥(山東)성에서 기독교 신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이 지역에는 최소한 15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이것은 산둥 전 지역 기독교 인구의 40%나 차지하는 숫자이다. 이 지역의 신도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매우 복잡하다. 많은 곳의 교회가 분열되어 보편적으로 '목자 없는 양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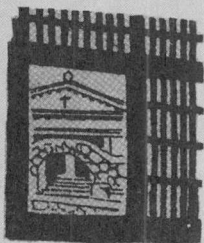
이곳에서 비교적 영향력이 큰 이단은 '중생파(重生派)'와 '진리파(眞理派)'이다. 중생파는 거듭나기 위해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잔디 밭에서 5일 간 앉아 있다가 세례를 받는다. 진리파를 이끄는 지도자는 린이(臨沂) 시때(西大) 진에 사는 42살의 쿵칭위에(孔慶月)로, 자칭 선지자라고 한다. 12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은 그는, 처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물 뿌리는 세례를 주다가, 얼마 후에는 침례를 주었다고 한다. 진리파는 '예수가정(耶穌家庭)'과 비슷한 가부장제 형식의 공동체로 모인다. 입는 옷도 전통적인 것만을 고집해 여자들은 적삼을 입고, 남자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는다. 외부인과 왕래 하지 않으며 오로지 가족과 친척 등 혈연에게만 전도해 신도를 증가시킨다.

대체적으로 린이 지역 교회만 비교적 조직이 체계적인 편이고, 나머지 지역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르자오(日照)현에서는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귀청(郭城)에서는 전도인이려면 무조건 다 감옥에 가두어버린다.

이렇게 이곳에서 정치가 종교를 장악하는 예는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정부 당국에 의해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니, 당연히 성도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마침내 교회에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된다.

오히려 문화대혁명 당시 루난 지역의 기독교 신도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었다. 그 때 예수 믿었던 자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지금처럼 단혀있지 않았고,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네것 내것을 따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마치 애급 시절 먹던 고기를 연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내에서 권력다툼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린이교회는 중심구와 북구(北區), 서구(西區), 남구(南區), 북동구(北東區) 등 모두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구역마다 위원회가 있어 그 구역 내의 모든



성도를 양육하는 사역을 맡고 있다. 각 구역의 주임은 모두 양회에서 배치된 인물이며 매달 각 구역의 상무위원끼리 한 차례 모임을 갖는다.

1949년 이전, 즉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린 이 지역에는 20여 개의 교단이 있었다. 장로교, 오순절교단, 성결교와 예수가정 등이었다. 그러다가 1949년 이후에 모두 중화 기독교회에 귀속하여 강북대회를 설립했으며, 1954년에 산동대회(山東大會)로 명칭을 바꿨다. 1958년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삼자(三自)라는 이름으로 연합했다. 문혁 당시 교회는 전부 폐쇄되었다가, 1981년 3월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집회를 시작하자 성도들은 재등록했다. 80년대 초 당시 3만 명이나 등록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지역의 전체 신도수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며, 심지어 25만 명 이상이라는 말도 있다. 1987년 린이시의 취엔차오산(雀山)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알고보니 그 지역에 맨 처음 건축된 교회는 뤼좡(羅莊)에 있는 교회였다.

1991년 전 루난 지역에 삼정(三定:삼자에서 규정한 종교활동 범위 제한, 활동범위와 집회 장소, 책임자를 제한하는 것이다-역자 주) 정책이 실시되어 70개의 등록된 처소를 지정했다. 이 외에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처소도 매우 많았지만 집회를 여는 데 별 어려움은 없었다.

루난 지역 전체에 목사는 한 명, 그리고 11명의 장로와 11명의 신학생(이중 재학중인 신학생은 6명)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이 지역의 전도 사역을 책임진 핵심인원은 이들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인 것이다.

린이 지역 성도들은 주로 농촌에 살고 있다. 현재 린이 전역에 걸쳐, 400명 이상의 교인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은 60여 개 정도이다. 일반 신도들이 세례교인이 되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 린이 지역 교회의 특징은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남구(南區) 교회를 예로 들면, 주일아침 대예배 이외에 주일 저녁에 교제예배가 있으며, 월요일은 성경강독, 화요일에는 찬양집회, 수요일은 설교집회,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다시 성경강독, 금요일은 설교집회, 토요일은 찬양예배로 모인다. 또 월, 수, 금요일 새벽 5시마다 새벽기도회가 있다.

성도들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성경구절을 가사로 만든 복음성가, 시편을 가사로 만든 성가를 즐겨 부른다.



출처: 『橋』 66기
원제: 魯南教會現況

번역: 차이나 / 본지 편집자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방지일

“공산당 피해 온 난민에 죽 급식. 미군 철수하자
원주민도 대만으로 탈출.
남은 교인 버릴 수 없어 귀국 못해”

중

국민당 정부는 대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특사 마샬이 와서 국공합작을 알선한다고 난징(南京)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만나 협상하는 사이, 공산당들은 착착 자기 기반을 넓히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 정부에만 의존하다가 일본이 투항하여 버린 무기, 미국에서 원조하는 물자를 고스란히 공산당에게 넘겨주는 실책을 낳고 만 것이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결국 작은 섬 대만으로 쫓겨갔다. 주요 공장들을 옮기고, 또 중국 박물관의 훌륭한 국보들을 대부분 대만으로 옮겼다니 놀랄 만했다.

이렇게 되니 대륙에서 최후로 철수한 항구 몇 곳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었다. 내가 있던 칭다오

(青島) 군항도 근 1주일 간 공백상태가 되었다. 국민당은 철수하고, 공산정권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 사회 치안이 말이 아니었다. 혼란이란 말만으로는 그 상태를 다 표현 못한다. 인심이 완전 수심(獸心)이 된 셈이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파들이 철문으로 굳게 닫힌 창고와 가게들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메어 날랐다. 완전한 이기주의 세상이었다. 그 난폭함과 잔인함은 어떤 맹수와도 비길 수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 집은 중국 교인들이 여럿 와서 지켜주고 있었다.

물론 교회도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이런 점은 공산당 치하와는 좀 달랐고, 약탈꾼들이라도 교회는 달리 취급하는 것을 보았다. 뒤에 들으니 이런 혼란을 예상하고, 작은 배에 초만원으로 타고 빠져나갔다가 전복되어 수장된 사람들만도 엄청났다고 한다. 작은 배로는 대만까지 못 가고, 가까운 한국으로 간 배들도 많았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오래 계속된다면

결국 자멸할 수 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꼈다. 나는 이런 판국을 여러 차례 겪었으나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중국 교인들이 와서 지켜 감싸주었던 것을 잊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았다. 남은 교인들은 놀라고 공포 속에 떨기는 했으나, 신앙으로 더욱 깊이 들어감을 감사하였다.

일본이 투항하고 공산당이 각 지방에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할 때, 지방 난민들이 무작정 도시로 모이고 있었다. 주택도 문제이려니와 식량난이 크게 문제되어, UN 국제구제회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우선 난민들에게 죽이라도 쑤어 먹이자는 의논이 실제화되어, 우리 교회가 그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숫자도 대단했지만,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았고, 거기드는 인력 기구도 상당하였다. 조직을 완벽하여 루수파 목사로 창장(廠長)을 맡게 하고, 직원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집사들을 채용하여 대소사를 맡게 하였다. 죽이라 하지만 거의 밤에 가깝게 되게 쑤었다. 수천 명분의 쌀을 밤새 큰 독과 큰 솥 수십 개에 그득그득 채워두었다가 아침 일찍부터 분배했다.

이 기구를 맡아서 일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았다. 매일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죽을 분배하려면 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 죽창(粥廠)에 가서 죽 나누어주는 것을 보기도 해야 했지만, 그때 그때마다 장소를 마련하여 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매일 기회를 찾아 강의를 했으니 나는 나대로 매우 분주했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했다. 정식 예배시간이 있어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회는 매우 좋았다. 20여 명의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석(朝夕)마다 예배드렸고, 성경공부에도 이미 정통한 분들이라 알찬 시간이었다.



지방에서의 공산당과의 접전은 계속 확대되고 국민당군은 완전 철수하여 구제기구도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니 죽창도 문을 닫게 되었다. 국민당 군인 가족들은 날마다 배에 가득 타고 대만으로 떠났다.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모르면서 무작정 부두에 나가 배를 타고, 전 재산 다 털어 배를 전세내어 떠난

사람도 많았다. 그 어수선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려는 아우성 속에 무리하게 승선하여, 결국 초만원으로 배가 침몰되어 몰살하기도 하였다.

중국 동역자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떠날 수는 없어 같이 남았다. 이대영 목사는 이미 상하이를 거쳐 귀국하신 바이고, 나 혼자라 더욱 떠날 수 없었다. 떠나지 못하고

남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당하면 당하리라 결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인심이 매우 흥흥했으므로 몇몇 교회 청년들은 거의 매일 밤마다 우리 집에 와서 잤다. 이런 때 일수록 서로 신앙으로 뭉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여기서 맛보게 된 것이다.

이후 내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그 당시 배를 타고 떠났던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

와 화교로 살고 있었다. 죽창 사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때 복음역사가 크게 되었다 할 것이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 /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둥성 선교사

왕밍다오(王明道)

(1900~1991)

편집부

현대

중국 역사 가운데 중국 교회에 영향을 준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위치만니, 송상제(宋尚節), 자위밍(賈玉銘), 왕밍다오(王明道)를 들 수 있다. 이 네 사람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 위치만니는 영적 깊이를 중시하고, 송상제는 전도를 중시하며, 자위밍은 성경을 깊이 탐구하였다. 그리고 왕밍다오는 신도의 생활과 주님과과의 교제를 중시하였다.

왕밍다오 목사는 이들 중 가장 최근까지 생존했던 인물로서 1991년 7월 28일 상하이(上海)에서 타계하였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동역자였던 부인 리우징원(劉景文:영문 이름 드보라 왕) 여사도 1993년 4월 18일 상하이에서 향년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생애

왕밍다오는 1900년 7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한달 전, '의화단의 난'의 공포와 전율을 참다 못해 자살하였다. 어린 왕밍즈(王銘子:어릴 적 본명)는 혹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교에 등교하기 전 베이징 시내의



부유한 집 근처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살살이 뒤져, 딸감이 될 만한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연료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년 왕밍즈는 매우 총명했고 늘 책을 파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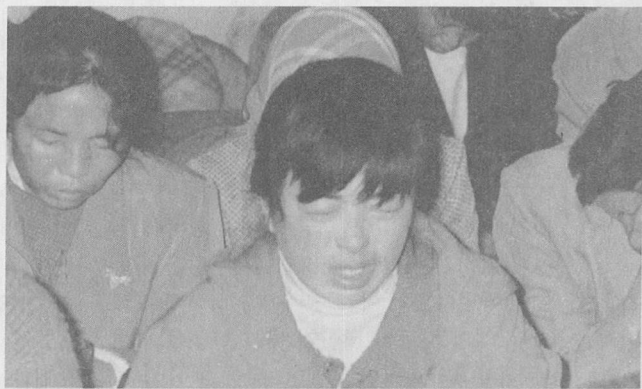
그가 처했던 역사적 환경은, 지난 수세기 동안 발달된 문명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중국이 제국주의의 거센 압력에 부딪혀, 오랫동안 고수해온 중화사상과 국수주의가 무너져가는 때였다. 베이징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왕밍즈는 삶의 의미, 부와 가난에 대해 고심하였다.

‘나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생명을 영원히 영위할 방법은 없다. 공부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때는 항상 용기가 솟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면 곧 고��스러워졌다.’

그는 가운데 학급의 한 친구가 그에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한 획기적인 일이 2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고심하던 왕은 의문에 대한 해답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으로 가득찼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스무살 때, 그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힌다는 의미의 ‘밍다오(明道)’란 이름으로 고치고 살아가게 된다.

그는 기존의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선교사 위주로 운영되는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은 그의 눈으로 볼 때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를 어린이가 취급하여 지도자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종속적 선교를 실시하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나타난 것이었다.

장로교 계통의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제자들에게 침례를 줬다는 이유로 교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 왕밍다오의 메시지는 강력한 힘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성도들을 끌어들이었다.

직을 박탈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기존의 종교체제에 반대하는 완강한 자세 때문에 왕밍다오는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젊은 왕밍다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말씀을 연구했고, 성경의 더욱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었고, 오래지 않아 그를 중심으로 성경공부가 이루어졌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실히 순종하는 삶을 바탕으로 한,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회개,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 때문에, 때때로 그는 비판적이고 거만하며 용서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목회자로서의 성숙은 더욱 두터워졌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성실과 신실함이 영적으로 굶주

린 크리스천들을 집회로 끌어들이었다.

추앙받는 목회자

1930년대 초까지 그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중국 전역을 돌며 전도여행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중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33년 봄, 많은 사람들이 왕밍다오가 이끄는 베이징 집회에 참석했다. 점차 사람이 많아져 넓은 장소를 빌려야 했고, 곧 교회당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1937년 8월 1일 베이징에 ‘기독교회당(基督會堂)’이라는 예배당이 완성되어 봉헌하였다. 그의 설교는 활자로 인쇄되어 중국 전역에 배포되었다. 종종 따라 다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목회자로 명성을 날렸다.

왕밍다오는 자신의 교회가 독립적이기를 원했다. 그는 중국 교회는 자급자족하며, 외부로부터 어떤 재정적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하였다. 또한 중국 성도들과의 동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의 개입도 없어야 하며, 교회는 자치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중국인이어야 하며, 그들은 양들의 환경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왕밍다오의 교회는 수년 동안 부흥했다. 그의 평판은 나날이 높아갔다. 또한 그는 계간지 『영의 양식(靈食)』을 발간하여 전국의 성도들에게 성경공부의 열기를 불어넣었고, 이 외에도 많은 신앙서적을 발간하여 중국 교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기 바로 전, 왕밍다오는 공산당에 충성할 것을 골자로 하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 문서는 중국 교회를 제국주의의 도구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새 공산정부는 중국의 교회가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해야 한다는 삼자(三自) 원칙을 공포했다. 왕 목사 자신도 자기 교회 내에서 이미 그런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해왔으나, 목적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공산당은 마음대로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삼자원칙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한 눈에 꿰뚫어 보았다. 자신의 사상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수년 동안 그대로 견지해왔던 그대로를 실천할 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설교와 많은 책자들을 통해 공공연히 공산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했다.

1955년 8월 8일 한밤중, 왕밍다오 목사와 그의 아내는 바로 그들의 결혼 기념일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는 반동이라는 죄목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몇 주 내에 그의 교회는 폐쇄되었다.

“나는 닭 울기 전의 베드로다”

감옥에서 그는 수개월 동안 밤낮 구분없이 계속되는 무서운 정신적인 고문을 받았다. 그는 더디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기도했다.

‘오 주님!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이상 당신께 헌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비통하게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는 결국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혼란 중에 반역죄 고백문을 쓰게 된다. 그는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신의 존재를 의심해온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 결국 그는 석방되었고, 그가 쓴 고백문(진술서)의 전문이 당시 삼자교회의 대변지인 「텐펑(天風)」에 ‘삼자에국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출감 후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삼자에국운동위원회를 찾아가, 그의 교회를 삼자 노선으로 바꾸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가 삼자회에 등록을 한 후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가 맡고 있던 기독교회당에 더이상 오지 않았다. 그는 계속 집에 들어앉아 한 건의 집회도 인도하지 않았다.

마음도 몸도 아픈 가운데 그는, 거짓말을 해서 석방된 것을 후회하였다. 왕밍다오가 자기 집 근처에서 “나는 베드로다, 나는 닭 울기 전의 베드로다...”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 자기 자신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와 똑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리우 사모가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며 위로하였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정신은 회복되었고, 기도중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을 체험한 이후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어떠한 고초를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다시는 ‘탈영병’이 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그는 부인과 함께 당국에 가서 이전의 참회를 부인하고, 자신은 삼자와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1958년 4월 왕밍다오와 그의 아내는 다시 구속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진술서에 담대히 썼다. ‘나는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삼자운동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산시(山西)성 따통(大同)에서 노동개조를 받았다.

1977년에 아내 리우징원 여사가 먼저 석방되었고, 1980년 연약하고 눈멀고 귀머 80세의 왕밍다오 목사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들은 상하이에 정착하였다. 많은 해외 교회 지도자들이 그가 망명하여 해외에서 살기를 청했으나 그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계속 중국에 머무르길 원했다.

그는 곧 상하이에서 가정집회를 열었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였다. 그는 노년에 시력을 상실하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다. 부인마저 거의 시력을 잃어 시중드는 사람이 없으면 기동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왕밍다오가 체포되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반대 때문이었다. 그는 정부에 동조하지 않았고, 삼자애국운동에도 연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지나치게 독자적이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운동은 위협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평가되었으며, 넓게는 중국 교계 전체에 걸친 문제로 확산되었다.

삼자애국교회가 형성된 목적은 교회를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역량을 정부 경찰에 협조하고 복종하는 방향으로 모으려는 것이었다.

‘교회는 제국주의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는 제국주의의 재정적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교회는 제국주의의 이념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 새로운 운동은 본 의미와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흘렀다. 왕밍다오의 개성이나 원리 원칙 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그는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좀처럼 타협할 줄 몰랐다. 비록 1차 체포시에는 두려움에 못이겨 실패했지만, 2차 체포시 진리와 정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는 진리를 선택했다. 또한 그는 크리스천은 믿지 않는 자와 멍애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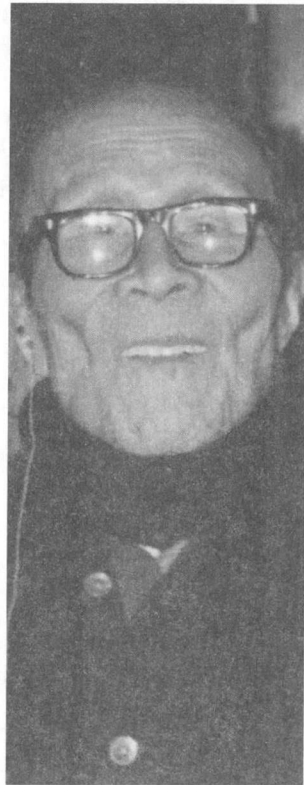
격동기 중국 교회의 충성된 증인

왕밍다오는 중국의 격동기인 근현대사를 거쳤다. 청조, 국민당, 항일전쟁, 항전에서 승리한 광복시기, 그리고 공산화 시기... 그는 중국의 비틀거리는 현실을 보며 살아남았다.

오엠에프(OMF)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4세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 목사는 왕밍다오의 영적 품격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셋째, 그는 전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였다. 넷째,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왕밍다오는 직접 제임스 테일러에게 23년 간의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배웠다고 하였다.

왕밍다오는 문서 저작 방면에서도 뛰어난 재질을 보였다. 1922년부터 55년까지 30년 간의 저작은 중국 교회의 귀중한 재산이 되고 있다. 그의 대표적 저서인 『오십년 이래(五十年來)』, 『이 사람을 보라(看這些人)』, 청년에게 주는 12편의 편지(寫給青年的十二封信) 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는 충성스러운 중이며, 실천하는 신앙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타계하기 얼마 전, 왕밍다오는 서구에서 그를 찾아온 크리스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자유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자유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World)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Word)을 사랑하도록 하옵소서.”

참고자료

- 『고난의 길을 걸으며』, 도서출판 은석논장
- ‘대륙의 큰 별 왕명도 목사’, 김성태, 『중국을 주께로』 95. 1/2, pp.76-79
- ‘故 왕명도 목사를 추모하며’, 『중국과 교회』 92. 1/2, pp.5-12

정리/ 편집부

자신의 위치를 지키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6)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3)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의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서 있게 한 자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도록 힘써 배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무엇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특히 자신의 열정으로 기분이 고조되었을 때는 그저 열정만 있을 뿐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아, 결국 종일토록 분주하여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열만 내다가 오히려 주를 섬길 수 없게 된다.

우리들은 우주, 만물, 그리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각 피조물들은 저마다 모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섭리한 것이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되었으며, 반드시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조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조화로운 발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고전 12:4~21, 엡 4:15~16).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비밀스럽고 영적인 생명체이다. 생명체는 반드시 각 지체가 모두 일정한 자리에 있어야 하며, 각 지체마다 기능을 발휘할 마땅한 역할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 멋대로 이탈하지 않으며 월권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지체 간의 교류를 막지 않아 몸 전체가 다양한 지체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서로 연합되어, 몸이 점점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며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그런 뒤에 자신의 본래의 위치에서 힘써 자기의 담당한 직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전체가 일치되어 협력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10~11).

이 글은 홍콩 CMI(中國福音會)에서 출판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목상집「晨光」중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번역/이민선·본지 편집기자

종교법규

종교활동 통제를 위한 새 규정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의 삼자교회 예배당.

중국 종교사무국은 종교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계간지 「중국종교(中國宗教)」 겨울호를 통해 발표했다. 이 규정들에는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연례 조사 방법'(이하 '방법'으로 칭함-편집자 주)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이것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평의회에 의해 공포된 사항이다.

정부는 현 및 시의 종교사무기관들과 동급 기관들을 통해서 종교활동장소(교회나 사원, 절 등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들에 대한 법적 명칭)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규정들을 사용하게 된다.

적절성 판단의 기준은 '방법' 제4조에 나와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헌법, 규정, 정책의 준수
- 2) 운용규정의 제정과 시행
- 3) 주요 종교와 외국과 관련된 활동 관리 방법
- 4) 수입 지출 재정관리 문제
- 5) 등록조건의 변화여부
- 6)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 기업, 재산의 관리
- 7) 그 외 이와 관련된 문제

그 외 이 규정과 관련된 문제에는 아마도 감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났느냐, 종교활동단체가 사실대로 보고했느냐 등이 모두 포함된다(제9조와 10조). 그리고 '방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 종교사무국에서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

「중국종교」지는 '방법'의 시행에 대한 익명의 종교관리국 관리와 인터뷰한 내용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규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이번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1994년 1월 31일에 리펑(李鵬) 총리를 통해 발표된 종교관리법 <종교활동 및 활동장소 규정에 관한 법령>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교활동 단체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이것은 곧 정부정책에 합법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종교활동 단체는 헌법과 법률, 규제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회안정과 경제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도 포함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특히 사회안정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방법'을 시행하는

또다른 이유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종교사무국을 통한 종교활동 단체의 자율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공산당의 헌법, 법률, 정책 등을 명시하기 위해서이다.

‘방법’은 기존법안의 시행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또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위 규정의 한 부분이다. 사실상 이것은 ‘방법’ 제1조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1994년에 통과된 2개의 법안이 이 규정의 근거가 되었다.

매년 감사 기간에 종교활동 단체를 판단할 때, ‘종교활동의 통제’가 ‘방법’의 주된 취지라는 것을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는 제4조, 9조, 10조에 언급된 사항이 말해준다. 제4조에서는 감사의 대상에 분명히 ‘다른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9조에서는 이 감사에 통과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7가지의 기준이 나와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이들 감사 기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미달되면 통과될 수 없는 9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덧붙여 헌법 및 규정과 정책의 준수 여부도 기준이 된다. 이는 법률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는 전국인민대회나 국가위원회의 정책에 앞으로 합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할 것임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법률과 규정에 뒤따르는 것이지만 이는 정책이 법률과 규정에 종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규정의 대상은 누구인가?

최근 중국 내에서는 독립을 시도하는 시짱(티벳) 자치구의 라마불교 승려들과 신장 위구르자치구 회교도들의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티벳에서 지난 여름 이후로 분리주의자들이 수도원에서 ‘재교육’ 운동을 벌이고 있다(South China Morning Post 17. Aug. 1996, 9. Sep 1996). 반면에 신장에서는 같은 시기에 회교 분리주의와 불법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강경조치가 내려졌다(SCMP Sing Tao Daily News, 3. Sep. 1996). 그러나 이 규정이 순수하게 종교에 기초한 분리주의 억압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면, 티벳과 신장 자치구 지역은 중국 내에서 그들의 자치적 신분으로 그들 스스로 필요한 법을 시행할 힘을 갖고 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법 아래에서 등록하지 않은 단체로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성장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방법’ 제2조에서는 모든 교회가 합법적으로 등록할 것을 조건으

로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등록된 교회는 통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등록 교회는 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데, 국가가 승인한 이 양회가 기독교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통제외지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예는 1994년 말 베이징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강제로 제거한 강와시교회의 양유동 목사의 경우이다. 이때 삼자회는 교회 성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양 목사 대신, 자기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을 담임목사로 세웠다. 게다가 선양(瀋陽)에서는 교회의 젊은 목사가 양회의 관리와 정치적으로 결탁된 담임목사의 교회 재정 남용사실을 폭로한 이유로, 몇 달 동안 공안국에 구류되었던 경우도 있다.

이 ‘방법’은 중국 당국이 등록된 교회를 통제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방과 시골에서 ‘방법’이 인민과 지방관리 모두를 통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법’의 발효는 중국에서의 종교 성장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지도자들의 바람의 결과로서 올해의 종교통제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1994년 이래로 종교를 국가 법률의 지배하에 들여놓으려는 경향의 연속이며, 특별히 기독교의 성장이 중국 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출처: CNCR 1996. 11. 29

번역/ 문선일 · 동아시아선교회(EAM) 협동간사

옥중에 있는 성도들

메이펑즈(梅增知)

죽

에 들어갔다 나온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다. 지난번 떠나올 때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삼자에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에 많은 꾀박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미국에 돌아오고 나니 그들과 직접 연락을 취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방문 계획은 몹시 신경이 쓰였다.

가는 곳마다 만나야 할 지체들이 이전보다 많은데,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었다면 나의 순조로운 중국 방문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이번 방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중국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가룟 유다가 되기를 거절한

A 형제

올해 초에 진행된 훈련에 참여했던 A 형제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공안국에 구속되었다. 그는 원래 중한 심장병을 앓고 있어 매일 약

을 복용해야만 했는데, 공안국 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약이 다 떨어져 병이 악화되었고 온몸이 튕 튕 부었다.

그러나 공안국에서는, 그와 함께 사역했던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이름과 집회소의 상황을 실토하지 않으면 그를 석방하지 않을 것이고, 식구들이 그의 약을 가져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계속 협박했다. 이런 심문을 받으면서 A 형제는 자신이 심적으로 매우 연약해진 것을 발견했다. 만약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주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될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심문하는 공안에게 말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 봐야겠어요. 내가 유다가 되어도 괜찮은 건지...” 공안은 그에게 “좋다. 빨리 기도해라”라고 말했다. A 형제는 심문실에서 무릎을 꿇고 10분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는 일어나 그 공안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유다 노릇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군요. 만약 당신들이 나를 집에 보내 주지 않으면 난 그냥 여기서 순교하겠어요.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나 없이도 생계는 그럭저럭 유지될테고, 아이들도 다 커서 자립할 수 있으니 난 여기서 주님 뵈을 날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A 형제의 끈질김에 공안원도 두 손 들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는 석방되었다. 그러나 공안은 그 후에도 자주 A 형제를 찾아와서 가정교회 사역자들의 명단을 사실대로 실토하라고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유다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공안도 이런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지금 A 형제의 심장병은 예전보다 많이 나았지만, 그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여전히 심하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란다.

어린이의 기도와 격려로 고난을 이기다

B 형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 아주 열심을 내어 이웃 지방에 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의 전도사역 결과, 3개월 내에 100여 명이 예수를 알게 되었으며 3개의 집회처소가 세워졌다. 그런데 최근 정부 호적과에서는 그가 주거 지역을 벗어나 불법 집회를 열고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유로 1년 형을 언도하였다.

한 자매가 내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B 형제의 어린 아들이 성도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 아이는 “주님!

우리 아빠에게 힘을 더하셔서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치 않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어린 형제는 자기 아버지가 개척한 3개의 집회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의 편지를 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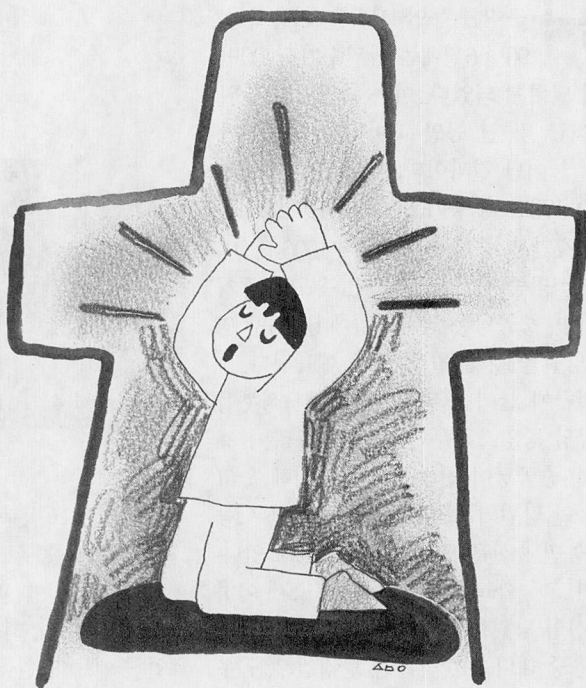
“성도 여러분, 우리 아빠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져서 흩어져 버린다면 우리 아빠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타격을 받은 목자로 인하여 그 양

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들이니까.’

B 형제는 아직까지 복역중이다. 하지만 듣자니 어린 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그 집회처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모이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뭇듯이 기뻐다. 이와 비슷한 간증은 비밀비재하다. 목자 없는 중국의 양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

梅增知/ 복음증주협회(CCL) 사역자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장승원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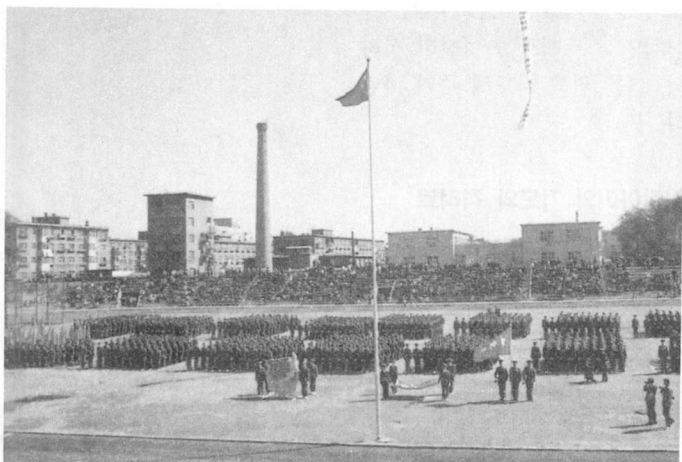
변화하는 중국

다시 일고 있는 대학생들의 「입당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당) 조직이 최근 3년 동안 팽창을 거듭하여, 96년 6월에는 당원수가 5,70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중공당의 당원이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거의 200만 명씩 늘어난 결과이다(1993. 7. 1.~1994. 6. 30, 176만 명 증가, 1994. 7. 1~1995. 6. 30, 187만 명 증가, 1995. 7. 1~1996. 6. 30, 193만 명 증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중공당은 금세기말에 6,500만 명의 당원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 늘어난 당원들의 출신 성분을 중공당 중앙조직부 통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중공당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왔고 그동안 당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노동자, 농민 출신은 4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35세 이하의 신입 당원들은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는 전문인, 당정간부, 공무원, 학생 및 개체호(個體戶)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모대학의 공산당 입당식 광경.

당중앙 조직부가 하달한 『중앙조직부의 ‘기업과 농촌 생산일선에서의 당원 발전공작 강화에 관한 의견’ 인쇄·배부 통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기업 중에는 당원이 없는 생산반·생산조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농촌의 기층조직 지도부에 후임자들이 없는 상황

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통지’는 또한 전국의 공업·건축·교통·우편 통신 방면 기업에서 당원이 거의 없는 생산반·생산조가 이미 37.3%를 차지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10년 이상 당원 증가가 없는 당 지부들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현대기업보(現代企業報)』도 얼마전, ‘현재 일부 제조·광업 기업 생산 일선의 젊은 근로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당원이 없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일선의 노동자 가운데 당원대오가 점차 축소되고 노령화되고 있으며, 나이 많은 당원들은 체질이나 문화적 소양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미 노동자 가운데 솔선수범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가의 『입당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입당열』이 또다시 거대한 규모로 일고 있다. 이러한 대학가 입당열은 과거 첫 번째 열기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대학가의 첫 번째 입당열은 후야오방(胡

耀邦) 시대인 1985년과 1986년에 일어났다. 당시 당내 자유화 주창자였던 팡리즈(方勵之)와 리우빈안(劉賓雁) 등이 청년 학생들에게 공산당에 가입하여 공산당을 개조하도록 부단히 격려했었다. 따라서 당시의 『입당열』은 분명히 적극적인이었다. 그렇지만 이 열기는 『6·4 천안문 사태』를 거치면서 사그라들고 말았다.

최근 일고 있는 두 번째 입당열은 『조직인사보(組織人事報)』가 발표한 ‘대학생의 입당 동기의功利화(功利化) 경향은 가볍게 볼 수 없다’(1996. 8. 22)는 제하의 글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글은 ‘대학생들의 입당열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들의 40%가 입당을 바라고 있다. 벌써 당조직에 입당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학생의 비율도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학년 신입생들의 경우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들의 ‘입당열’ 현상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부 대학생들의 입당 동기에功利화, 즉 개인의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전심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대학생들

공명과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입당하는 것을 졸업 후의 직장 배치와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다. 재학 중의 입당을 통해서 졸업 후 직장 배치와 직업선택 경쟁에서의 우세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입당에 적극적인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중 ‘당신의 입당 의사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묻는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30%가 “졸업 후 직장 배치시 비교적 만족스러운 업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입당이 졸업시 직업 선택 경쟁의 대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 데 대해 응답자의 71%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개인의 이익과 당의 이익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당신은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3.7%가 “가능한한 당의 이익을 따르지만 개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근래 중공당의 새로운 당원충원 정책과 관료사회의 심한 부패, 그리고 중국의 후계자 양성 방식 등이 대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 복합적 요인이며, 이로써 대학생들 사이에 ‘입당열’ 및 공리화 경향이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입당은 매우 쉬운 편이다. 재학 중에 학급간부(반장, 조장, 공청단 지부서기, 반위원회 서기)나 학생회 간부를 맡으면 입당신청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당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생당교(學生黨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수한 정치적 표시가 없이도 졸업 전에 입당이 가능하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신년을 맞이하여 새 업적을 재창조하자”는 슬로건이 붙어있는 쓰촨(四川)연합대학

에는 석사반에서 일정한 학생 공작(工作)을 맡으면 당 조직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입당도 가능하다.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만 하면 곧바로 입당할 수 있다. 예비 당원 기간에 학교 당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당의 어떤 중대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학업성적이 많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해진 기간 이후 바로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다. 당 조직도 보통 이들에게는 어떤 특수한 임무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당원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출처: 『前哨』 (홍콩) 96, 12월호
번역: 북방동향 97년 1월호에서 발췌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법률

‘반혁명’ 범죄

✎ 1980년 중국 형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사회주의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모든 행위들을 ‘반혁명 범죄’로 규정하였다.

✎ 형벌은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 양심수들은 대개 반대집단 가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을 금하고 있는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구금된다.

✎ 중국 법무성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5년 1월 약 2,678명의 수인들이 ‘반혁명 범죄’로 구금되었다고 한다.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 1993년에 제정되어 199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은 언론,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안보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모호한 법 조항들은 기존 정치질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행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밀에 관한 범죄

✎ 1992년 이후 양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언론인들이 주로 이 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이 법은 표현 및 출판에 관한 자유를 점차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구금

✎ 경찰은 인신에 대한 ‘보호와 조사’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범죄에 연관이 있다는 혐의만으로 자체권한을 행사하여 영장없이 3개월까지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다.

✎ 알려진 사례 중 대부분이 3개월 구금이 다.

✎ 실제적으로 이 조항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권이 없는 사람들과 이주한 노동자들이 주로 희생된다.

✎ 1980년대 초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보호와 조사’라는 명목으로 구금되어 왔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89년에 93만 명, 1990년에 90만 2천 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러한 명목으로 구금되었다.

✎ 영장이나 재판없이 최고 3년 간의 ‘노동 재교육형’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형량은 매년 갱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 조항은 ‘반사회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부랑아들, 그리고 죄목이 매우 경미하여 법정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발간, 『중국의 인권상황』 중에서

중국 물가 동향과 선교사 생활비

편집부

물가동향

기본물가

선교사가 중국에서 살려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중국 물가가 한국보다 무척 싸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선교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A 선교사의 매달 평균 수입(후원금)은 1,300 달러(US\$), 한화로 약 104만 원 정도이다. 가족은 부인과 유아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다. 다음은 최근 중국의 물가 동향과 A 선교사의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단체에게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품 목	단 위	가격(한화) (94년 대련)	가격(한화) (95년 북경)	가격(한화) (96년 북경)
쌀	500g	200~250원	200~300원	380~420원
계란	"	250원	280~350원	
쇠고기	"	1,200원	1,000원	
돼지고기	"	800원	1,200원	
마늘	"	250원	270원	300원
생강	"	700원	1,000원	1,500원
배추	1통	300~400원	400~500원	
참기름	500g	600~800원	1,200원	
밀가루	"	250~300원	600~700원	
사과, 배	500g	200~250원	250~300원	
수박	1통	500~800원	700~1,000원	
우유	1리터			1,200원
생수	1리터			2,700원
한국신문 배달	월			21,000원
버스비		20~50원	10~50원	100원
지하철비			50원	200원
택시비	기본	600원		1,000~1,500원
열차비	95년말에 평균 100%의 대폭 인상이 있었다.			

공산품 가격 수준

● 과자류

중국산 과자는 한국과 가격이 비슷하나, 그 맛과 질이 떨어지고, 외제(한국제 포함)는 한

국 가격의 2배 이상이다.

● 기저귀, 분유

한국보다 2~2.5배 비싸다.

● 주방용품

종류나 모양이 다양하지 못하고 질이 떨어지며, 가격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비싸다. 특히 한국에서 흔한 플라스틱 제품이 중국에서는 매우 비싼 편이다.

●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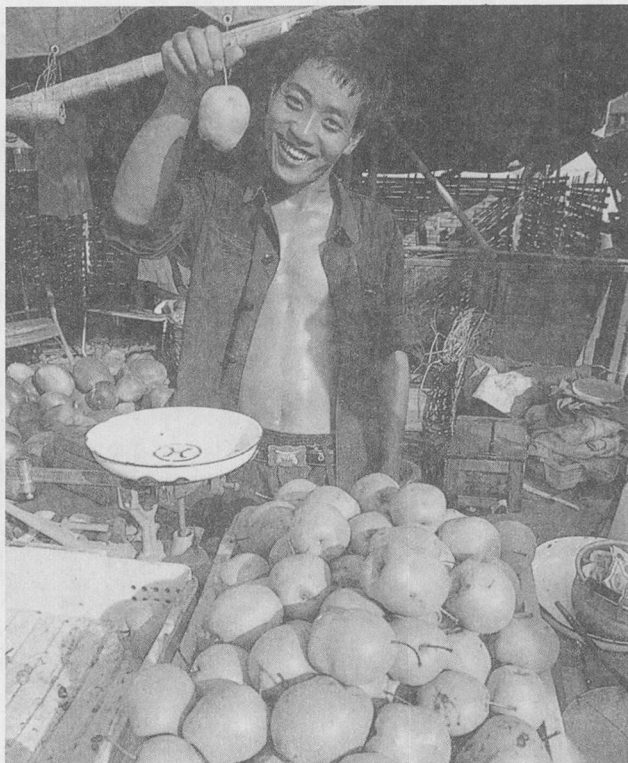
백화점의 옷들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어린이 옷도 스타일과 재봉질이 매우 떨어지거나 가격은 비싸다.

● 약, 병원비

시중에서 사는 약은 한국과 가격이 비슷하다. 병원비는 중국인 요금은 한국보다 싸지만, 외국인인 중국인의 3~5배를 받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

● 외식비

피자, 햄버거 등은 한국 가격의 80% 정도. 학교 주변 한국, 중국 음식점의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내는 한국 가격과 비슷하다.



위와 같이 반찬거리, 과일 등의 가격은 저렴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한국의 중등 정도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국 주재원들처럼 한달 150만 원을 지출해도 부족하지만, 종합적으로 선교사들의 생활수준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중간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며 살고 있다.

생활비 비교

중국인과의 생활비 비교

현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중국인의 생활 수준을 우리 나라의 약 10년 전쯤 혹은 아주 가난한 농촌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도시, 특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평균 수입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얼마 전 중국 신문에 보도된 중국 도시인의

평균 수입은 인민폐 약 2천 위엔(한화 20만원)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예전과 달리 지식인의 수입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이다. 교수, 외자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등의 수입은 2천 위엔에서 3천 위엔에 달하고, 택시 운전사의 수입은 5천 위엔에서 7천 위엔에 달한다.

중국인의 소비 수준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도 비싸서 사기 꺼려하는 호화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달에 한국 돈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면 먹고 산다는 생각은, 중국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중국인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을 보면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번 구매에 2, 3만 원 정도는 보통이고, 몇십만 원씩 하는 옷들도 쉽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중국인들이 한 달에 우리 돈 10만원이나 2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선교사들이 후원받는 월 1,300 달러라는 거금은 도대체 어떻게 지출되는 것일까 의문이 생길 것이다. 선교사 자신도 무슨 과소비라도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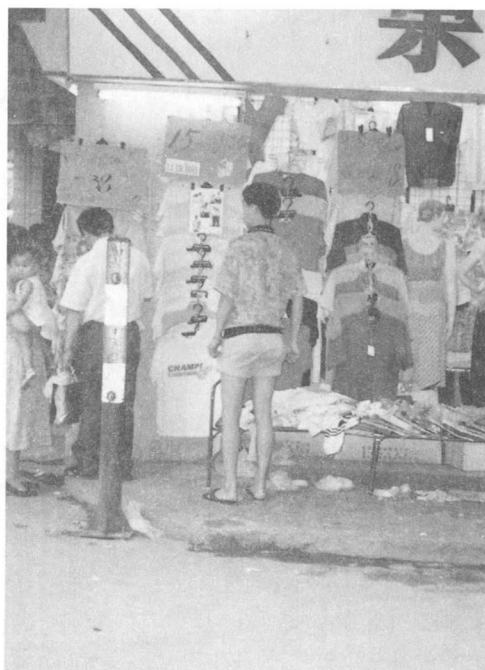


게 아닐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때가 있다. 그 거금 갖고도 매달 적자가 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원리는 간단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려면 주·부식비 외에 많은 항목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직장(단위)에서 주거, 교육비는 물론 기본적인 식비와 생활용품까지 다 무상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10만원~20만원의 월급만으로 능히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주재원과의 생활비 비교

중국에 파견된 한국 주재원들은 평균 4,5천 달러의 월급을 받는다. 물론 최소 월 3천 달러 정도하는 집세는 회사가 부담한다. 그들의 평균지출은 생활비로만 최소 1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A 선교사가 가정의 매달 생활비 지출 내역(한화)

(1996년 8월 2일~10월 9일, 베이징)

주거비: 30만 원

학 비: 18만 원(1년 2,600 US\$)

학원비: 6만 원

두 자녀 유아원비: 월 9만 원

생활비: 약 60만 원

교육용품(문구류, 장난감, 옷 등): 월 5만 원

수도, 전기료: 약 2만 원

난방비: 12만 원

총계: 매달 평균 13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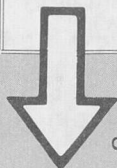
필요한 예산

① 위와 같은 생활비 외에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 제자훈련 양육비, 중국 사역자 지원비, 문서비, 교통비 등 사역비가 필요하다.

② A 선교사의 경우, 집세(월세)가 이미 매달 40만 원(한화)을 넘어서고 있다. 매년 평균 20~30% 이상 상승하는 집세를 따라잡기에는 현재의 생활비로는 너무 벅차다. 본질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베이징 외곽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있는데 4~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외곽의 집들도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③ 자녀 교육비가 매우 많이 든다. 베이징시가 제정한 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학교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300만 원(한화)을 기부금으로 내야 등록이 된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 정도의 공과금을 내게 된다.

TV에서 컴퓨터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국에 갈 때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인자 상징이다. 그런데 이미 컴퓨터 시대로 진입한 중국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아마 이것은 중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예전에는 불펜이나 나일론 스타킹이 매우 훌륭한 선물이었지만 현재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컬러 TV를 선물해도 그치지 환영받지 못하는 눈치다.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등 이전에는 꿈만 같았던 제품들이 이제는 기본 생활용품이 되어버렸다. 「요망(腰望)」이라는 중국의 한 주간지인 조사에 따르면, 94년도에 중국 100가 구당 컬러TV 보유대수는 95.5대, 냉장고는 75.1대, 세탁기는 95.5대라고 한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변함에 따라 소비품의 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60, 70년대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자전거나 손목시계, 라디오 또는 재봉틀을 갖고자 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TV, 냉장고와 세탁기가 가정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3대 품목이었다. 90년대 외산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소비품의 변화가 더욱 빨라졌다.

몇 년 전에는 오디오 등 음향기를 사들이더니 작년에는 에어컨불이 일었고, 요즘 또 변하고 있는 듯하다. 인민폐 5천 원(한화 약 50만 원)이나 드는 전파 설치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전파신청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운전학원에 5천 원(한화 약 50만 원)을 내고 면허를 따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다. 좀 더 부유한 이들은 만 원(한화 약 1백만 원) 정도 하는 펜티엄 컴퓨터를 구입한다. 사실상 중국의 3천만 대 가량의 자가용 중 150만 대는 개인 소유이며 베이징시의 PC 소유자는 100명 당 23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인들이 추구하는 물건이 무엇이 될지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다. 통산설비(전화, 비빔, 핸드폰)나 자동차 혹은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중국의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환심을 사고 싶다면 이제는 TV보다는 컴퓨터나 한 대 돌려메고 가는 게 좋겠다.

守望中華 135期

번역/ 신호정 · 자원봉사자

중국 단기선교 여행 코스(1)

이제 여름이면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 단기선교 여행을 떠날 것이다. 현지로 떠나기에 앞서 충분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이는 현지에서 맛보려 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능한 한 줄이고,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열쇠이다. 본지는 중국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여행코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여행을 꾀하고자 몇 차례에 걸쳐 '단기선교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선양(瀋陽) · 창춘(長春) · 연변(延邊)



장백 폭포

우리

나라 여행객들이 중국 여행할 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심양),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장춘)과 연변(延邊:연변)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우리 역사의 한부분을 장식했던 발해나 고구려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고, 우리와 한 핏줄인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북한을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하는 백두산과도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조선족 선교와 북한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이 지역을 자주 방문한다.

적절한 여행 시기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는 이 지방을 겨울 -30~-40℃의 혹한에 여행하기는 무척 힘들다. 그러나 이 지역은 강수량이 여름보다 겨울이 많아서, 겨울엔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적게 내리므로 후덥지근하지 않아 중국 남방에 비해 여름에 여행하기가 좋다. 겨울의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싶으면 겨울 여행도 나름대로 맛이 있으나, 추위를 견디기는 조금 어렵다. 어쨌거나 이 지역을 여행하기에는 초여름과 초가을(6월~9월)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

선양(瀋陽:심양)

동북지방 최대의 중공업도시로, 전국시대로부터 동북지방의 중심지였다. 한때는 청조의 도읍지로서 성경(盛京:지금의 선양 고궁)을 지어 이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일제의 침략을

받던 시기에는 봉천(奉天)이라 불리웠던 선양은 중국의 손꼽히는 공업도시, 대도시 중의 하나이다.

가는 길

비행기

선양의 동탑(東塔)공항으로 대한항공에서 주 4회, 북방항공 주 4회의 항공편이 개설되어 있다. 베이징에서는 매일 다수의 항공편이 있다. 상하이에서 주 12편, 광저우에서 매일 1~2편의 항공편이 있다.

열 차

베이징이나 따론편(大連)에서 뻗어오는 철로망이 선양을 중간 지역으로 거쳐 동북 각 지방으로 향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특쾌(特快-가장 빠른 직행 열차)로 약 10시간, 따론편에서 여유특쾌로 5시간 만에 도착한다. 장춘에서는 특쾌로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단, 선양에는 2개의 역이 있으므로 선양북역(北驛)인지 선양남역(南驛)인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선양 서탑교회

버 스

1990년 선따(瀋大)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따론편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로서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관광에서도 큰 소득이 모아지고 있다. 따론편, 선양 간에는 07:00~15:30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시내 교통

선양 시내를 오가는 버스, 트롤리 버스는 전부 약 20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선양 열차역 바로 앞에 장거리 버스터미널이 있어 시내교통의 요지이다. 선양역이나 북역 앞에 택시가 상주하고 있는데 호텔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잡으려면 역이나 호텔 주변으로 가면 된다.

여행계획

선양의 시내관광은 교통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선양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버스터미널이 바로 역 앞에 있고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이곳을 지나고 있으므로 이곳이 선양 여행의 출발 지점이다. 역 앞의 넓은 길인 중산로(中山路)를 동쪽으로 걸어가면 바로 선양의 제일 번화가인 타이위안 거리로, 좁은 길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중산로를 약 1km 지나면 중산광장이 있다. 중산광장을 둘러본 다음 택시를 이용해 선양고궁, 북릉공원 등 시내 각 지에 위치한 명소를 돌아볼 수 있다.

교회는 서탑 시내에 위치한 서탑교회 등이 있다. 한국 교회의 지원으로 지어졌으며 바로 옆에 동북신학원이 있다. 한족교회로는 동관교회가 있다.

서탑교회 위치: 瀋陽市 北府大路 33호, ☎(024)383-5129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동관교회 위치: 瀋陽市 和平區 皇寺路 33호, ☎(024)383-5129 예배시간: 주일 오전 7시, 9시

관광명소

선양고궁(瀋陽故宮)

청(淸)조의 초대 황제인 누르하치와 2대 황제인 태종이 왕조의 기초를 다지면서 건축한 황성(皇城)으로, 1625년~1636년에 걸쳐서 완공되었다. 시내 중부의 선양로에 접한 곳에 입구가 있는데 면적은 약 6만㎡로 베이징의 고궁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너무나 작다. 제3대 황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한 후 동북지방을 순회할 때 황제가 머무는 곳이 되었다.

북릉공원(北陵公園)

선양시의 북쪽 숲에 위치한, 청조 2대 황제인 태종과 그의 황후가 잠들어 있는 능묘이다. 언덕과 그 산기슭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어 한여름에는 녹음이 아름답다. 봄, 가을에 걸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로 끊이지 않는 공원이다. 이른 아침에는 태극권이나 기공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묘릉인 소릉을 중심으로 약 450만㎡의 북릉공원은, 1643년부터 약 8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성벽 위를 걸어서 돌아볼 수도 있는 이 공원에는 북쪽에는 대삼림이, 남쪽으로는 넓은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유조호(柳條湖)

193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관동군이 남만주 철도를 폭파한 현장이 선양시 북쪽 왕화가에 있다. 바로 이곳이 만주사변의 시발지로, 폭파된 현장에는 만주국 시대 관동군이 세운 기념비가 그후 중국 인민들에 의해 쓰러뜨려진 상태로 놓여 있다. 1991년에 만주사변 6주년을 기념하여 3층 건물의 9·18사변 진열관이 오픈되어 있고, 관내에는 만주사변에 관계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숙박

동북지방 최대의 도시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고급호텔들은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봉황반점(鳳凰飯店 PHOENIX HOTEL)

북릉공원 근처에 있는 13층짜리 호텔로 분위기는 현대적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 객실에서 북릉공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위치: 황하남대로(黃河南大路) 109호,
☎(024) 684-6501, 260실



선양북역

선양중산대주점(瀋陽中山大酒店 ZHONGSHAN HOTEL)

가장 최근에 오픈한 호텔로 선양역에서 가깝다. 27층짜리 현대식 호텔로 선양 제일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객실에는 국제 직통전화 및 오디오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한국 음식점도 있다.
위치: 화평구 중산로(和平區 中山路) 65호, ☎(024) 383-3888, 257실

창춘(長春:장춘)

지린(吉林)성의 성도로 동북지방의 중심에 위치한다. 구 만주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창춘은 지금은 대학이 모인 교육도시이며 영화제작소 등이 있는 영화, 연극의 메카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 제조로도 이름이 높은 중공업 도시이다.

가는 길

비행기

창춘의 다팡선(大房身)공항은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이징에서 하루 1~3편 운항된다. 서울에서는 아시아나(월, 금 주 2회)와 중국북방항공(주 1회) 운항되고 있다.

열 차

주요 열차노선의 하나인 경합선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직통열차가 있다. 베이징에서 특쾌로 약 13시간, 심양에서 직쾌로 4시간, 하얼빈에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여행계획

창춘의 중요한 관광명소인 위황궁(僞皇宮)으로는 역에서 도보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남호공원은 62번 트롤리버스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 그리고 남호공원에서 창춘영화제작소까지는 다시 도보로 갈 수 있다. 창춘을 남북으로 길게 가르는 큰 길이 스탈린 거리로, 창춘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돌아보면 편리하다. 주요 볼거리는 창춘시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으므로 빨리 돌아보려고 한다면 하루면 충분하다.

교회를 방문하려면 삼자교회인 장춘시기독교회를 찾아가면 된다.

장춘시기독교회 위치 : 長春市 西五馬路 37호 ☎(0431) 295-7722

예배시간: 주일 오전 8시, 토요일 9시

관광명소

구 만주국 황제의 궁전인 위황궁(僞皇宮)이었던 건물이다.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 1906~1967)가 일본의 군부에 의해 만주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일상생활을 보냄과 동시에 정무를 보았던 곳이다. 정무를 보던 집무실이 있는 외정과 주거생활을 했던 내정으로 나뉜다. 외정에는 관동군 사령관과 부의의 회견장면이나 아편에 찌들어 있는 황후 완용의 납인형이 전시되어 있는 집회루, 녹색의 돛이 솟아 있는 근민루 등이 있다.

내정의 동덕전은 길림성 박물관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고구려, 발해 때의 문물이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소장문물은 74,000점 정도 된다. 동덕정의 홀은 영화 '마지막 황제'의 촬영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남호공원(南湖公園)

창춘시 남쪽에 매우 넓은 호수가 펼쳐진 공원이다. 하얀 자작나무가 인상적인 곳으로, 초여름에는 공원 전체에 라일락이 흐드러지게 피어 훌륭한 경관을 이룬다. 여름에는 보트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가 되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이 되어 시민의 좋은 휴식처이다. 창춘시 최대의 볼거리가 되고 있다.

창춘 전영(電影·영화)제작소

근대 중국 최초의 영화촬영소이다. '만영(滿映)'이라 불렀던 영화제작소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당대의 걸출한 영화배우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현재 제작소의 일부는 영화촌으로 꾸며져있어, 고궁이나 베이징 골목길 등의 분위기를 연출한 오픈세트를 견학할 수 있다. 단 미리 여행사에 신청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제작소 내에는 영화 배경세트나 소도구, 의상 등이 있으며 열차 충돌이나 철교 폭파 등 특수 촬영장면을 볼 수 있는 트릭관도 재미있다. 이곳에서 지금도 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숙박

장백산호텔(長白山賓館)

남호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12층 현대식 건물로 1982년에 오픈했다.

위치: 신민대가(新民大街) 12호 ☎ (0431) 83551, 269실

시상호텔(吉祥大酒店)

해방공원 근처에 92년에 오픈된 모던한 고층호텔이다. 쓰촨, 광둥, 산둥, 양식 등 11개의 레스토랑이 있고 중국식 객실이 인기있다.

위치: 해방가(解放街) 810호 ☎ (0431) 820607

화교호텔(華僑飯店)

남호(南湖)가에 91년 5월에 오픈한 흰색의 호텔이다. 중국과 홍콩의 합작으로 세워진 이 호텔 객실에서는 남호에 지는 멋진 석양을 볼 수 있다.

위치: 호빈가(湖賓街) 1호 ☎ (0431) 686932

연변(延邊·연변)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땅에서 우리말을 거리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 다녀온 조선족들이 많아지면서 시내 등은 미용실, 상점, 음식점, 가라오케 등 서울의 도심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중국 전체 조선족의 50% 이상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가는 길

엔지(延吉·연길)로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정부 소재지인 엔지에는 공항이 있는데, 이곳으로 오는 여러 편의 항공편이 있고 베이징, 장춘, 선양에서 매일 항공편이 있다. 열차는 베이징 남역에서 밤 12:52에 출발, 다음날 엔지에 18:10에 도착하는 직쾌(直快)의 255편이다. 선양이나 창춘에서 가는 열차편도 있다.

투먼(圖門·도문)으로

선양과 창춘에서 투먼으로 가는 열차와 버스편이 있다. 열차는 장춘에서 특쾌(特快)로 10시간 소요된다. 엔지(延吉)에서 가려면 미니버스, 관광버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엔지에서 투먼까지는 버스로 약 2시간 정도, 열차로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백두산(長白山:창바이산)으로

백두산은 관광 편의시설이 발달되지 않아 우리 나라 관광객 외에는 별로 찾는 이가 없으므로 중국의 대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보허(白河:백하)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양에서 간다면 열차로 우선 안투(安圖:안도)까지 가고, 다시 안투에서 백두산까지 버스로 갈 수 있다. 엔지에서는 아침 일찍 출발하는 버스가 보허까지 가는데 8~9시간 소요된다. 보허에서 하루 묵은 뒤에 이튿날 백두산행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백두산행 버스는 보허 버스터미널에 있다.

여행계획

엔벤은 조선족 자치주로, 이곳의 특별한 관광지는 두만강, 일제시대 광복 운동의 중요한 본거지였던 룡징(龍井:용정), 자치주의 주도인 엔지, 그리고 웅장함을 자랑하는 백두산 등이다. 일반 관광객들이 엔벤 자치주를 방문할 때는 대개 엔지로 먼저 간다.

엔지에서 하루 묵으면서 시내와 투먼, 두만강 등을 돌아보고, 이튿날 백두산으로 가서 하루를 묵고 천지 장백폭포로 가서 온천 등을 돌아본다.

엔지에서 조선족 교회를 방문하려면, 최근 교회를 새로 건축한 연길기독교교회(유두봉 목사 사무)를 찾아가면 된다. 투먼에도 도문기독교교회가 있다.

연길시기독교교회 위치 : 延吉市 參花街 109호 ☎(0433) 261-9374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관광명소

엔벤 조선족 자치주 박물관

엔지 시내에 위치한다. 약 2,600여 점의 출토문물을 수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7~10세기경 한때 만주일대를 점하여 전성기를 누렸던 발해 시대의 벽화와 묘지 등이 전시되고 있다.



두만강

두만강(豆滿江)

길이 521km, 유역면적이 1만 513km²로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한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이의 국경을 흐르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진족과 관련이 깊은 곳으로 “두만(豆滿)”이라는 명칭은 여진어에서 연유된다. 두만강을 통해 건너다 볼 수 있는 함경북도 남양시의 가라앉은 분위기는 묘한 감회에 젖게 만든다.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두만강 부분에 다리와 철교가 하나씩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곳의 철교로는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기를 뿜으며 오가는 기관차가 다니고 있으며 다리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양 다리 끝에 세관이 있는데 각각 다리를 지키는 군인들이 서있다. 중국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다리끝에 있는 작은 탑에 올라갈 수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올라가면 두만강을 조금 넓게 조망할 수 있다.

룡징(龍井:용정)

엔지에서 버스를 타고 약 40~50분 정도 가면, 엔지 못지 않게 우리 역사와 관련이 깊은

릉징이 있다. 민족시인 윤동주가 이곳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土地)'의 배경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일제시대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투쟁의 장소 중의 하나이다.

백두산(長白山:창바이산)

백두산을 돌아보기 위한 가장 짧은 기간은 대개 5일이다. 우선 한국에서 비행기로 베이징에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관광한 뒤 다시 옌지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 탄다. 옌지에서 투먼(도문)을 둘러 오랜 역사의 한이 서린 두만강을 돌아보고 난 뒤, 백두산으로 향하는 코스가 가장 일반적이다. 베이징에서 옌지까지 비행기 외에도 교통편이 있지만, 이동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백두산 천지의 관망대인 천순봉으로 오르는 코스는 4가지이다. 가장 대중적인 것은 지프를 타고 천순봉 기상대에 하차, 천순봉으로 100m를 걸어 오르는 것, 나머지는 트래킹 코스인데 천순봉을 오르는 것, 지프가 달리는 포장도로를 걸어 올라가는 것(2시간 소요)이 있다. 그 외에 산문에서 윈시림을 거쳐 사스레 폭포, 천문봉, 철벽봉, 천활봉 등 나란히 붙어 있는 백두산의 고봉 3개를 돌아보는 코스(8시간 소요) 등이 있다.

백두산 천지(天池)는 남북의 길이가 4.9km, 호수의 둘레가 13.45km로 상당히 큰 호수이다. 평균 수심은 204m이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312.7m나 된다. 천지 부근의 날씨는 매우 변화가 심하여 예측하기가 어렵다. 산밑에는 날씨가 좋다고 해서 천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박

옌벤의 관광은 옌지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숙박은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쉬운 곳에 잡는다. 대도시에 비해 옌벤의 수도 사정은 그리 좋지않아 녹물이 나올 때가 많고, 나오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다. 부대시설이 그리 쾌적하지 못하다.

옌지시와 그 주변

동북아 대주점(東北亞大酒店) ☎ (0433) 520976, 5082

1992년 8월에 우리 나라 신라호텔과 합작으로 문을 연 호텔. 15층 건물로 옌지 시내에서 드문 현대식 호텔이다. 미장원, 이발소, 우의상점 등이 갖추어져 있다.

백산호텔(白山大廈)

2번 버스가 닿는 곳에 있다. 옌지교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옌지 시내에서 몇 개 되지 않은 높은 건물 중의 하나이다. 환전이 가능하나 시설은 그리 쾌적하지 못하다. 가격은 저렴한 편.

청년호텔(靑年大廈)

4번 버스를 타고 청년호(靑年湖)에서 하차한다. 종업원들이 친절한 편이고, 일반적인 싱글룸에 욕실이 딸려있다.

백두산 국변

백두산 부근에는 시설 좋고 깨끗한 호텔이 별로 없다.



백하호텔(白河賓館)

백하역 앞에 새로 지은 호텔. 외국인용 객실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

천지빈관(天池賓館)

백두산 입구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인 1실, 3인 1실로 그런대로 묵을 만하다.

참 고

항공운항표(97년 1월 현재)

구 간	운항일자	항 공	출발 / 도착	요 금
서울→장춘	월, 금	KE	11:10 / 12:30	
서울→장춘	목	CJ	14:45 / 15:50	
장춘→서울	월, 금	CJ	13:40 / 16:40(월) 15:00 / 18:05(금)	
장춘→서울	목	CJ	10:15 / 13:25	왕복 ₩412,400 편도 ₩206,200
서울→심양	월,수,금,일	KE	09:50 / 10:45	
서울→심양	월,화,목,토	CJ	12:55 / 13:30	
심양→서울	화,수,금,일	KE	12:05 / 14:50	
심양→서울	월,화,목,토	CJ	09:00 / 14:50	왕복 ₩375,800 편도 ₩187,900

선박편(훼리) 운항표위동 FERRY(인천→위해/청도)

1st 130, RYL 160, 2ND 110

구 간	운항일자	출발 / 도착	요 금
인천→위해	화,목,토	18:00 / 08:00	위해 110\$부터
위해→인천	일,수,금	17:00 / 08:00	
인천→청도	수,토	14:00 / 08:00	청도 130\$부터
청도→인천	월,목	17:00 / 13:00	

대인 FERRY(인천→대련)

구 간	운항일자	출발 / 도착	요 금
인천→대련	수, 토	18:30 / 12:00	US\$120부터
대련→인천	일,수,금	12:00 / 08:00	

인천 FERRY(인천→천진) 3B 120, 3A 130, 2B 150,
RYL 320, SPL 180, 2A 125, 2B 120 2A 160, 1ST 180,
VIP 230(요금: US\$)

객 실	VIP	1등석	2A	2B	3A	3B
요 금	230	180	160	150	140	120

인천출발 13:00 천진도착 익일 13:00

1월	10,15,20,24,29
2월	3,10,14,19,24,28

천진출발 11:00 인천도착 익일 13:00

1월	13,17,22,27,31
2월	5,12,17,21,26,

예약료제공: (주)천지항공여행사 TEL. 02) 727-6100 FAX. 727-6099

中國政府
對香港恢復行使主權
倒計時
距1997年7月1日



연재기획

1997. 7. 1 홍콩 반환을 논하다(2)

홍콩 주권 반환일까지 남은 일정

- | | |
|-----------|--|
| 1월 | 중국측 임시 입법회 1차회의
주홍콩 영국 총영사관 발족 |
| 2월 | 홍콩 특구 최고법원 설치 |
| 3월 | 홍콩 정청 과도예산 발표 |
| 4월 |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선발대 도착
영국 총영사관 영국 비자발급 업무 개시 |
| 5월 | 영국군 주력부대 철수 |
| 6월 | 베트남 마지막 난민 송환
현 입법국 최종 회의(25일)
영국여왕 생일 축일 공휴(28일)
반환식 행사(30일) |

홍콩 초대 행정장관 동젠화(董建華)

동젠화

는 지난해 12월 11일 홍콩 특구 초대 행정장관 당선 직후 “중국과 한지붕 밑에서 함께 미래를 창조하자(求同存異, 共創明天)”고 호소했다.

그의 호소 뒤에는 각종 찬사가 따라붙었다. 중국 외교부는 “둥이 홍콩을 변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과 영국도 개인적인 축하메시지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다수 홍콩인들도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그의 당선을 환영했다.

동젠화의 경력

‘비즈니스의 바다(商海)에서 정치의 바다(政海)로 항로 수정’

홍콩 언론들은 초대 행정장관에 선출된 선박왕 동젠화의 변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부자(父子) 2대에 걸쳐 오대양을 누비면서 세계적인 해운재벌로 성공한 둥의 정치적인 ‘거듭나기’를 이룬 말이다. 둥은 사업상의 성공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홍콩 초대 행정장관에 선출됨으로써 부(富)와 권력을 함께 쥔 인물이 되었다.

동젠화의 성공 배경에는 부친 둥하오원(董浩雲)이 자리잡고 있다. 상하이(上海)의 군소 해운업자에서 출발해 30년대 중국의 해운왕으로 올라선 둥하오원은 화려한 상재(商才)와 근면성,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한 기업인으로 유명하다. 그의 전성기였던 60~70년대에는 세계적인 호화여객선 10여 척

과 컨테이너 30여 척 등 모두 80여 척의 선단을 거느려 세계적인 선박왕 오나시스를 앞섰기도 했다.

동젠화는 그의 2남 3녀 중 장남이다. 1949년 중국 공산화 당시 부친을 따라 상하이에서 홍콩에 이주했다. 그 후 영국 리버풀대에 유학, 자연과학계 석사를 취득한 후 미국의 큰 전자회사에서 근무했다. 이후 부친이 경영하는 진산(金山)운선공사 뉴욕 지사에서 근무하다 1960년대 말 홍콩에 돌아와서 부친의 사업을 돕는다. 줄곧 사업가로 있던 둥은 1992년 중국 측의 위임을 받아 홍콩 사무 고문이 되었고, 그해 10월 홍콩 총독의 위임을 받아 행정국 의원이 되었다. '93년 3월 그는 또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政協)위원회 위원이 되어 국가 주석 장쩌민의 접견을 받았고, 영 썬방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베이징어와 광둥어, 상하이어, 그리고 영어에 모두 능통하고 계산기가 필요없을 정도로 뛰어난 속셈 능력을 지녔다.

과도기 관리자

동젠화는 주권 반환의 와중에 홍콩의 안정을 지키고 세계 8위의 무역량과 8위 규모의 증시를 보전해야 하는 과도기 관리자로서, 중국과 구미(歐美)의 지지를 동시에 받을 만한 경륜을 갖고 있다. 각종 직함도 그가 단순한 홍콩 해운재벌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홍콩 인수절차를 담당하는 중국 측 주비(籌備)위원회 부주임, 미-홍콩 경협위원장, 일-홍콩 경협위

원, 미 국제전략연구소 자문위원 등의 타이틀은 임기 5년의 행정장관에 뽑힌 배경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금년 초, 홍콩특구 정부의 각 사(司: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행정의회 의원들도 위촉해 정권 인수팀을 조기에 가동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크리스 패튼 영국 총통은 유명무실한 통치자로 전락하고, 금년 상반기에 이미 동젠화가 사실상의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中) 연출 인형극’ 여론

그러나 동젠화가 지난 84년의 영-중(英中) 합의대로 홍콩의 미래를 짜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장 큰 문제는 동젠화가 중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당선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의 입김을 감안하면, 그는 오히려 중국의 총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역대 총독들이 런던의 지시를 받아온 것처럼 동젠화도 베이징 정부에 충성할 뿐, 홍콩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것은 “4백인 추선(推選) 위원회라는 중국의 어용단체를 통해 탄생한 초대 행정장관의 원초적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양손이 묶인 동젠화는 중국이 연출하는 인형극의 주인공일 뿐이란 얘기이다.

동의 집안 내력과 친중(親中) 성향에 비춰 보면 이것도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다. 동의 가업인 운수회사 ‘동방해외(東方海外)’가 파산 위기를 맞았던 지난 86년, 홍콩 내 친중 재벌인 휘잉둥(霍英東)의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구제 금융으로 살아났다. 이후 그는 89년 천안문사건 직후 상하이시를 방문, 당시 시 당서기였던 장쩌민 현 총서기와 만나 식품 및 조선 부문의 투자계약으로 중국에 빚을 갚았다.

지금도 홍콩 재벌 리자청(李嘉誠)이 베이징 시내에 건설 중인 ‘동방광장(東方廣場)’에 15억 달러를 투자 중이다. 동의 주변 인사들



압도적인 득표로 홍콩특구 초대 행정장관에 당선된 동젠화가 기자회견에 답하고 있다.

은, “그의 무의식에는 중국에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공산당 허용 큰 위협

실제로 그의 말에서도 중국에 대한 보은(報恩)의 뜻을 읽을 수 있다. ‘중국과의 대결 배제’, ‘홍콩 내 공산당 합법화’, ‘천안문 사건 추도 행사 규제’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발언은 2047년까지로 보장된 홍콩의 자치를 희석시키는 게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위협은 홍콩 내 공산당 허용이다. “동젠화는 중국과의 밀월을 선물할 순 있어도 대륙풍을 막는 병풍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중국이란 태상황(太上皇) 밑에 있는 제후(諸侯)의 하나일 뿐입니다.” 한 민주계 인사는 현상황에서 홍콩의 적화(赤化)는 시간문제라고 탄식했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97. 1. 3.
亞洲週刊 96. 12. 16

아시아 맹주(盟主) 깃발 올리는 중국

현재

홍콩은 외형적으로 볼 때 변함 없이 활기차다. 경제 통계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 부동산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96년 한 해 동안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25%, 대형 아파트나 호화주택은 30%나 뛰었다. 96년 12월의 주가도 전년 말에 비해 23%나 올랐다. 이는 홍콩인들이 홍콩의 미래를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낙관한다는 증거이다.

홍콩의 주권 반환은 21세기에 아시아 전체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영국 등 유럽 세력의 퇴장과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의미한다. 중국은 홍콩의 접수를 계기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거대중화(巨大中華)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등에 대해 맹주 역할을 노릴 것이다.

중국은 또 홍콩을 아시아 지역 전체의 대표 무역항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홍콩은 현재까지 중국과 서방 세계의 경제적 연결고리로 성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적 제약을 탈피, 인근 광둥 및 마카오 지역까지 포함한 광역 무역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경쟁 도시인 싱가포르 등을 따돌리고 아시아 최대의 금융 무역 도시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함께 가장 질서가 확립되어 있고 공직 기강이 매서운 도시임을 자랑하던 홍콩이 이미 분위기가

많이 흐려졌다는 지적들이 많다. 홍콩 정청의 공무원 반부패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동안 적발된 민원부서 공무원의 부패건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약 10%나 늘어났다.

급격히 늘어나는 본토(대륙)인 밀입국자도 또다른 사회문제이다. 매년 3만 명 안팎의 밀입국자들이 검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0배에 이르는 사람들이 밀입국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추산이다.

어쨌든 홍콩의 새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새 홍콩의 모습이 단지 홍콩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세계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97. 1. 1.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마카오도 99년 중국에 반환

포르투갈의 식민지인 마카오도 지난 87년 중국과 포르투갈이 맺은 반환협정에 따라 오는 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된다.

홍콩에서 약 60Km 떨어진 작은 섬 2개와 육지로 구성된 마카오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 식민지이다. 홍콩이 무력으로 강점되었던 것과 달리 마카오는 1557년 명나라가 포르투갈에 이 섬을 무역거점으로 이용해 달라고 요청, 포르투갈이 인수했다. 이때부터 마카오는 유럽의 아시아 무역거지와 카톨릭 아시아 선교본부 역할을 해왔다. 포르투갈은 그뒤 1887년 청국과의 조약을 통해 마카오를 정식으로 할양받았다.

마카오의 현재 인구는 약 45만 명. 95%가 중국계이고 나머지는 포르투갈 등 주로 유럽 출신 외국인들이다. 양국간 반환 협정에 따라 마카오 역시 주권을 반환한 후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마카오는 지난해 9월 22일 마지막 의회선거를 치렀다. 중국 정부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를 반환 후인 2001년까지 보장해하기로 약속해, 마카오는 반환에 따른 정치적 갈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공포의 '혈액시장'

편집부

한국인들이 헌혈에 대한 의식이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의 헌혈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업적으로 피를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위 '혈액시장'도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은 중국의 한 대중잡지에 실린, 혈액시장의 비리와 이에 현혹된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한 것이다.

편집자 주

장기휴가를 지급하는 단위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민의 무상헌혈이 사실상 유상헌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공장에서는 모두들 3%의 의무 헌혈자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추첨식으로 이 달의 의무 헌혈자를 뽑는다. 만약 채수 없이 직원이 당첨되면, 아들이 결혼한 지 한 달도 안된 신혼이라며 헌혈 후 며느리가 손자를 못 낳으면 책임질 거냐고 항의하러 오는 어머니로부터, 헌혈을 하고 나면 갑자기 늙어버릴까봐 공장을 뛰쳐나가는 직공까지 있다.

매혈단의 등장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이들이 소위 '시에터우얼(血頭兒)'이라 불리는 가짜 헌혈단이다. 거액의 헌혈 장려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단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가짜 헌혈단이고, 이들은 장려금을 목적으로 조직된 이른바 '매혈단(賣血團)'인 셈이다. 남방 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야에 농촌에서 온 매혈단을 전문적으로 고용하여 자기 단위에 할당된 양의 피를 수시로 공급받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96년 현재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피를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250만~3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피를 파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난한 농촌 사람들로서, 위생조건이나 영양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연거푸 피를 뽑는

죽

의 헌혈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국민의 의무헌혈, 개인헌혈, 무상헌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무상헌혈 제도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北京)시 국민 의무헌혈 조례에는 일정 기준의 기업이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재직 인원의 3%가 헌혈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베이징 시에서 매년 필요한 혈액은 72만 리터인데, 이 의무헌혈로는 수요량의 60%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혈에 대한 전통적인 거부감이 강해 사업장 단위마다 의무 헌혈자를 고르기 위해 고심을 하는데, 작게는 100위엔(元)에서 많게는 1,000위엔이라는 헌혈 보조비 및

다. 이들 중 적잖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신체가 허약해지고 질병에 걸려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피를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대판 흡혈귀들

개혁 개방에 따라 중국의 위생수혈 사업도 비교적 발전하여 각지에 혈액은행이나 혈액센터가 건립되었다. 그러자 혈액 매매에서 폭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수십만 개나 되는 채혈소를 세우고 혈액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런 채혈소는 대부분 영업허가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위생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

모 시 인민병원 길 건너편에 있는 채혈소 문 앞에는 언제나 피를 팔러 온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그들은 모두 외지에서 온 농민들이다. 그

런데 이들은 자원해서 피를 팔러 온 이들이 아니다.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바오딩(保定)의 기차역과 장거리 버스터미널 앞에는 특별한 '인간시장'이 선다. 일꾼을 구하는 측에서 내건 모집 조건은 매우 후하다. 즉 숙식제공에 매달 300위엔의 노임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일거리를 찾는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순진한 농민들은 부푼 꿈을 안고 이들을 따라간다. '피 매매꾼'들이 쳐놓은 울가미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1994년 12월 25일, 톈진시 공안국에서는 리강이라는 사기꾼을 체포했다. 그에 따르면 자기들은 그저 한 두 사람 속여서 데려가는데, 1명 당 30위엔씩 수고비를 받는다고 한다. 조직적인 범



현혈의식이 약한 중국에서 무상헌혈이 유상헌혈로 바뀌는 예는 비일비재하다. 무상헌혈하고 있는 중국 시민들.

죄집단에 소속된 이들 역시 처음에 속아서 끌려가 억지로 피를 팔다가, 지금은 아예 자신처럼 일거리를 찾아 해매는 순진한 이들을 피어다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배후에는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강제 혈액 매매와 집단구타 등을 일삼는 범죄조직이 있다. 이들이 바로 직접 채혈소와 결탁하여 폭리를 얻는 ‘현대판 흡혈귀’ 들이다.

톈진시 교외에 사는 농민 장룡은 93년 11월 15일에 피임을 당한 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강제로 17번이나 피를 뽑아 팔았는데, 가장 많을 때는 한 번에 800ml나 뽑았다고 한다. 처음에 그는 죽어도 피를 뽑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할 수 없이 피를 뽑았다. 원래 매우 건강하던 장룡은 한달 새에 17번이나 피를 뽑은 후, 신체가 말로 할 수 없이 망가져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 지경이 되어도 그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은 채 계속 피를 뽑게 했다. 네이멍구(內蒙) 광산여관 주인 왕모는 1985년부터 이 지방의 몇몇 병원과 결탁한 후 여관을 경영하면서 몰래 혈액 매매를 하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속여 여관에 데려온 후 폭행하고 강제로 피를 뽑아 판 것이다.

강제로 피를 뽑히는 사람들

허젠(河間)이라는 한 시골 마을. 서쪽에 남북으로 뻗은 큰 길이 있는데, 길 양쪽에 위생국, 인민병원, 채혈소 등이 위치해 있다. 매일 오전이면 채혈소 문앞에 빼빼 마르고 얼굴색이 검푸른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채혈소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 들어가면 형식적인 검사를 거친 후 주사 자국이 가득한 팔에서 붉은 피를 한 주사기씩 뽑아낸다. 그러면 범죄조직 우두머리의 호주머니에 인민폐 몽치가 들어가고, 그들은 도로 ‘집중영’이라 불리는 감옥으로 끌려간다. ‘집중영’에는 보통 10여 명씩 한 칸에 가두어 두는데 창문에는 철간간, 문은 무거운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이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해 끌려온 농민들이다. 나이는 15세에서 40세까지 천

차만별이며, 병에 걸려 더 이상 피를 뽑을 수 없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풀려난다.

1994년 12월 31일公安원들이 이곳을 소탕하러 들어갔을 때, 그칠 새 없는 기침소리와 악취로 숨쉬기마저 어려웠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피를 뽑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렸고,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피를 뽑는 데서 제외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하루종일 방안에 갇혀 있다가 피를 뽑으러 나갈 때에만 밖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보통 한 사람이 3~5일에 한 번씩 피를 뽑히는데,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허난(河南)성의 농촌에서 온 15살짜리 한 소년은 이곳에 와서 한달 반 사이에 9번이나 피를 뽑았다. 빼단 앙상하게 남은 이 소년의 두 팔엔 바늘 자국이 가득했으며, 심한 빈혈로 인해 말도 겨우 할 정도였다.

오염된 혈액의 공포

비인간적인 잔인함, 그야말로 사람의 ‘피를 말리는’ 범죄 집단의 극악무도함도 놀랄 일이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혈액매매의 결과로 나타난 오염된 혈액의 확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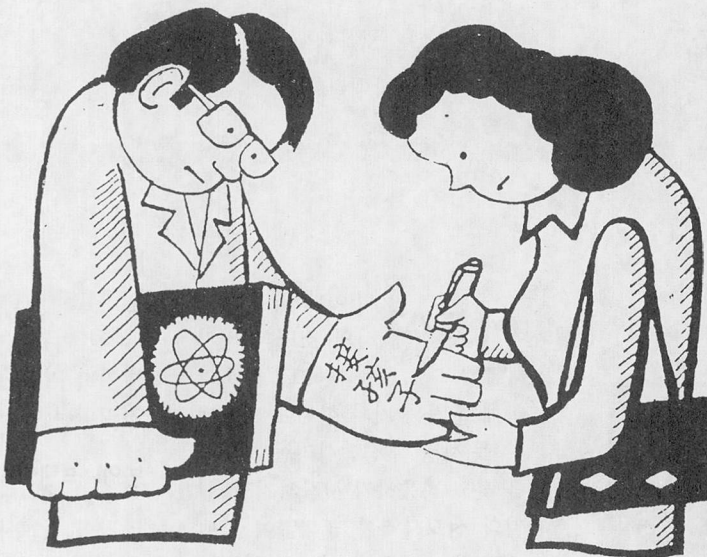
1990년 모 성의 13개 현, 시 채혈소에서 전문적으로 피를 파는 1,340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감염환자가 563명으로 42.01%나 되었다.公安원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했던 방 안에서 많은 감염 주사액 빈병을 발견했다.

이들 가운데는 정신병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게서 뽑혀진 피는 직접 환자에게 수혈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병균에 감염된 이들의 피로 혈액제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혈액제제는 많은 사람들의 혈액을 같이 섞어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의 피에 문제가 있어도 모든 제품이 병균에 감염된다. 중국산 혈액은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피를 수입하여 혈액제제를 만들고 있다.

정리 / 편집부

남편의 비망록

리명쩐(李夢珍)



부인이 남편에게 퇴근 후에 잊지 말고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손바닥에 적어주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한다. 특히 공산화가 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중요시하였고, 가정에서도 여성들의 직장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게다가 기혼 여성들의 고민이던 육아 문제도 정부의 통제 하에 탁아소나 유아원에서 해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남녀평등 사상이 발전하여 점차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이 높아져가고 있다. 최근들어, 집안에서 직장여성들의 발언권이 높아져, 남편이 가정의 대소사를 맡는 것도 이제는 예삿일이다. 부인이 시키는대로 해야만 하는 중국 가정의 남편들은, 아버지로서의 몫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현지에서 온 소식

부부 선교사, 진정한 동역자로 서기까지

박애린

다음은 중국 ○○시에서 중국어를 배우며 사역하고 있는 박애린 선교사가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 사모들의 고충에 관해 쓴 내용이다. 남편 선교사를 따라 중국에 파송된 이들은 비록 이름은 선교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여러 가지 일에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남편 선교사에게 영향을 미쳐, 선교사 가정의 어려움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 글을 통해 중국 선교사 사모들을 위한 독자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선교사의 아내 역시 선교사의 소명과 비전을 품고, 남편과 함께 훈련을 거쳐 현지에 파송된다. 두 사람 다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적응하기 시작하지만, 현지의 선교사역이 설새없이 바쁘게 진행되는 동안 선교사 아내는 실질적인 사역과는 점점 멀어지고, 매일 들이닥치는 손님 접대와 살림에만 매달려야 하니, 이런 분주함 속에서 곧 현지 생활에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자기도 소명을 받고 이 위험한 나라까지 온 것인데, 손님 접대와 집안 살림에만 묶여 있는 것이 더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자신도 사역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 사역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우울증 내지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난 여관 주인도 아닌데, 손님 밥이나 먹여주고, 잠자리 뒤치닥거리하러 이 먼 곳까지 왔는가?’

벽에 부딪치는 선교사 아내들

남편이 선교사역에 앞서 언어연수 과정을 밟을 때 부인도 함께 언어를 배운다. 오전에 몇 시간 수업하고 집에 오면, 선교사 주변의 손님들과 사역자들의 손님 접대를 하느라 중국어 연습은 물론 숙제할 짬도 못낸다. 그러다보니 언어는 도무지 늘지 않는다.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왔다. 현지 상황이 늘 불안하여 마음도 편치 않은데다, 언어마저 자유롭지 않으니 사모 혼자서 시내를 마음놓고 돌아다니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러다보니 사모는 몇 달이든 집 안에만 갇혀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동북이든 남방이든 사역을 위해 떠난 남편은 일주일, 심지어는 한달도 넘게 집을 비우는 때가 많다. 사모는 그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지치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고나면 문밖 출입도 못한 채 혼자서 집만 지키고 앉아 있으니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

선교사의 부인이라는 위치에 서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까운 친구를 사귀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렇다고 국제 전화로 국내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없으니, 자연히 집안에서 고립되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한도에 달하게 된다. 그저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보통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나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되면 사모에겐 또다시 빨래, 식사 등 일거리가 밀어닥친다.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할 행복한 시간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사역에 몰두하다 지친 남편과는 대화도 잘 풀리지 않는다.

같은 목적으로 온 다른 선교사 부인들과 교체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으려만, 신분을 노출할 수 없는 중국 상황에서 선교사들끼리 모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나눌 수 없고 교체할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울, 고독 그리고 충돌

“어떡하면 좋아요?”

생활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선교사 사모들을 많이 만나보게 된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사모가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내거나, 심지어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부딪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스트레스 받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외국인 거주지가 따로 구별되어 있으나, 한국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형편상 중국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곤 한다. 이런 ‘불법체류’ 생활은 늘 불안정하다. 그러다가 공안에 걸리면 수시로 내쫓기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된다. 남편은 어쨌든 사역을 위해 분주하고, 또다시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다른 곳에 홀로 남겨진 사모는 극심한 우울과 고독에 시달려야 한다.

이렇듯 선교사의 아내가 현지 생활에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언어라도 익히기 위해 언어 연수 과정에 등록을 해도 제대로 공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길 즈음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도와주려고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교사 부부 간에 심각한 충돌마저 생기는 것이다.

선교사 아내의 위기는 사역의 위기

내가 옆에서 지켜본 한 선교사 가정은 미국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온 경우인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국 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가의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중국에 오니, 특히 사모에겐 모든 것이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그것은 오자마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빈혈로 쓰러져 큰 부상을 당했다. 먹는 음식도 틀리고 기후도 맞지 않아 신체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이었다. 중국에 처음 도착하면 자욱한 안개에 공기도 탁할 뿐 아니라 건조하여, 평상시 건강하던 사람들도 한달 동안은 비염과 편도선염으로 고생을 한다. 또한 내몽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굉장이 심하여, 한번 외출했다 돌아오면 입 안에 모래가 한 움큼씩 들어 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피부는 거칠거칠해지는데다가, 잠잘 때면 목까지 숨이 탁탁 막히곤 한다. 기후도 안 맞고, 음식마저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니 자꾸만 피로를 느껴 신체적인 질병이 나타난 것이다.

결국 적응을 못한 부인과 아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남편은 사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남았다. 하지만 젊은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되니 ‘꼭 이렇게 해야만 선교인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었다.

아이들과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해서 남편을 도와 선교하려고 중국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병을 얻어 돌아갔고, 이후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또다른 스트레스를 받아 부인이 더 큰 병이 들어 마침내 남편마저 귀국해야 했다.

이 분명하다. 선교사 남편을 따라 돕는 배필로 파송된 선교사 아내는 노이로제가 걸리든 우울증에 걸리든,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그중에는 적응을 잘 하고, 나름대로 잘 지내는 사모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적

사역 4년째로 접어드는 지금,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

사모의 언어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혼자서 쇼핑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오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모의 마음 가운데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소명감이 일



장승원 그림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의 소명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현지로 떠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란 것을 알고 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소명을 확실히 받지 않은 아내나 남편, 아이들은 아무리 가족들이라 해도 제3자임

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을 얻고, 계속 이런 상태가 쌓이다 못해 부부간의 관계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외국을 극복한 선교사 가정

중국에 온 지 4년이 넘는 한 가정의 경우를 보자. 처음 와서 3년 동안 부부 갈등이 심하여 부부싸움도 술하게 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데까지 마음이 움직여 이젠 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 선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적응할 때까지 늘 아내를 격려하며 따뜻하게 마음을 써주어야 한다. 아내가 갈등과 회의를 일으킬 때 선교사

남편들은 흔히 이를 가볍게 여기며 아내를 탓하곤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당신 민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당신은 사단이 아니냐?”

이렇게 심한 말로 아내를 공격하던 선교사들이 선배나 동료 선교사들과 교체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선교사 가정과 사모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가정의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얻기도 한다.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사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그 때 했던 행동은 참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사역을 하느라고 당신 혼자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고백하면서부터 부부간의 문제가 조금씩 풀렸다는 한 선교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흔들리던 그 가정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이기고,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동역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모의 긴장이 풀리고, 서로 이해하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알아갈 때, 선교사 부부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다. 사모가 진정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할 때 선교사의 사역 또한 성공의 길로 진입하는 것이다.

박애린/ 중국어문선교회 파송선교사

중국 특색 살린 아이디어 업종

화장실 안내

수도 베이징(北京)을 비롯, 상하이(上海) 등 중국 대도시의 경우 공공 화장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물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국인이라도 화장실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런 특성을 십분 활용, 몇 년 전부터 상하이에서는 불일이 급해 안절부절 못하는 외지인(외국인을 포함)을 화장실로 안내하면서 안내비를 받는 업종이 성행하고 있다. 안내비는 4자오(角)~5자오(角)이지만 몹시 급할 경우에는 5~10위엔(元)이라는 엄청난 ‘급행료’가 붙는다.

열차역 손님 마중 서비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베이징역에서는 얼굴 모르는 손님을 마중나온 사람들을 위해, 찾는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써주고 돈을 받는 아이디어 업종이 새로 등장했다. 가격은 3위엔.

택시기사 보호업

중국의 대표적 명승고적으로 꼽히는 시안(西安) 등지에서 택시기사 보호업이 각광받는 새로운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 관광객을 실어날라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택시기사를 강도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야간에 기사 옆 좌석에 동승해주는 업종인데 의외로 젊은 여성이 많다고 한다.

거리의 복장수선점

안후이(安徽)성에서는 길거리에서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거나 갑자기 터진 옷을 꿰매주는 ‘거리의 복장수선점’이 최근 각광받는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했다. 중국산 의복은 마무리 기술이 뒤떨어져 새로 산 옷도 단추가 쉽게 떨어지거나 겨드랑이 부분이 잘 터져 거리의 복장수선점을 찾는 이용객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신문 읽어주기

여대생들이 하루 1~2시간씩, 글을 읽지 못하는 돈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신문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는 이미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성행하고 있다.

곡하기

농촌에서 상가(喪家)를 찾아 상주(喪主) 대신 구슬프게 곡(哭)을 해주는 곡꾼도 성행하고 있다.

QQAQQAQQAQQAQQAQQAQQAQQA

90 今天很暖和 / Jīntiān hěn nuǎnhuo. (진티엔 현 누안후어.) 오늘은 따뜻합니다.



면 교단 선교부의 평신도 선교의 활성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형제님 개인의 희생이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제님 교회의 후배 평신도 선교 헌신자들과 소속교단의 평신도 선교가 활성화되는 데 한알의 밀알이 되리라 믿습니다.

형제님의 앞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줄입니다.

이동화 · 본지 발행인
중국어문선교회 총무

는 곳이 있어, 형제님께서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제님이 소속되어 있는 예정합동 총회선교부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를 정식 선교사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는 목사 선교사와는 달리 M. DIV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총신신대원 선교대학원의 선교신학 과정이나 6개월 과정의 총회선교훈련원(MIL) 훈련과정만으로 선교사 파송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형제님이 다니는 교회의 선교위원회 목사님이나 위원들이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먼저 총회선교부에 평신도 선교사의 자격 요건에 관해 서면으로 문의하고, 그 회신을 갖고 선교위원회 목사님과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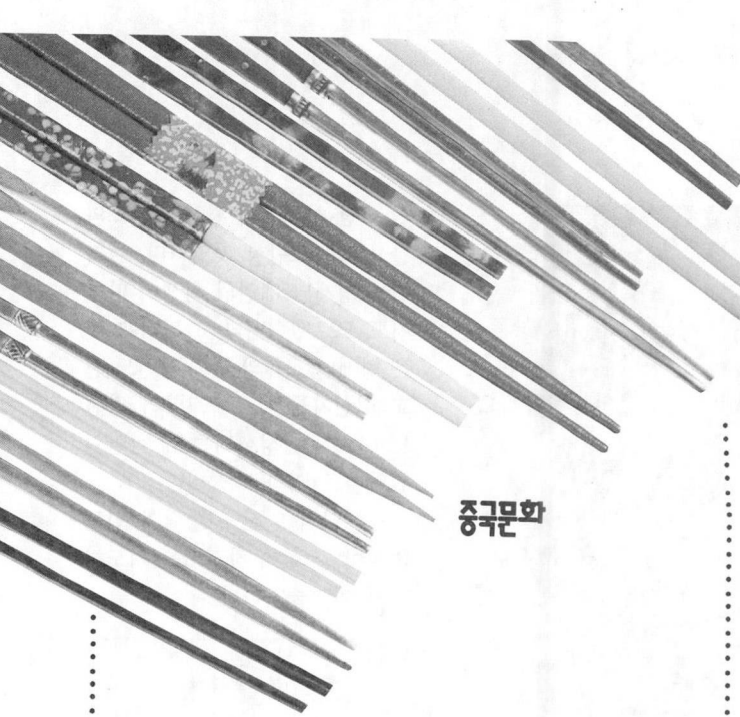
끝으로 형제님께서 할 수 있는대로 모교회와 소속 교단의 정식 파송을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선교사보다 평신도 선교사들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편인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교단선교부가 효과적으로 평신도 선교사역을 전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교단 선교부를 외면한다

“감합니다. 중국선교...” 에 참여하십시오!

“감합니다. 중국선교...”는 독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난입니다. 중국 선교 혹은 중국에 관련된 여러분의 상담 문의를 환영합니다. 이미 중국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나, 현재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편지나 팩스, PC 통신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6-1 신오빌딩 31호
(☎ 137-060)

팩스: 02)599-2786
PC 통신: 천리안 SINIM



중국문화

젓가락 (筷子)

당롱(唐鎗)

중국

요리의 위세는 전세계에 펼쳐졌고, 그에 따라 중국인의 대표적인 식기로 사용되는 젓가락도 오대양 육대주로 널리 퍼져 나갔다.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면 음식을 빨리 집어 먹을 뿐만 아니라 고르고, 떼어내고, 찌고, 쉽게 집어올릴 수 있어 음식을 먹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사용 방법도 다양하여 식탁 위에서 젓가락만으로 여러 모로 힘을 발휘한다. 이는 서양식탁의 포크와 나이프와는 달리, 수시로 요리가 동시에 올라오는 중국 식탁에서 음식을 집을 때 몸을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지 않게 한다.

‘먹을 때는 황제처럼’이란 말은 대만에서 전해지는 격언인데, 밥을 먹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먹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 생각이 다르다.

인도인들처럼 손으로 음식을 먹는 민족은, 손으로 만져지는 음식물의 온도와 촉감으로 음식의 진정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여긴다. 16세기 이전의 유럽 사람들도 손으로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포크를 발명하였고, 17세기가 되면서 상류사회에서부터 칼과 포크, 수저 등 세 종류의 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젓가락이 최초로 출연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상(商)나라때 이미 젓가락을 사용한 습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젓가락 한 벌만 손에 있으면 음식물을 삶든, 볶든, 튀기든, 조리든 간에, 또 네모나게 찢든 것이든 크고 작은 어떤 모양이든, 젓가락만으로 이 모든 음식을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 심지어는 생선, 닭, 오리 등을 통째로 요리한 것도 젓가락으로 집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다.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만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덜 뿐 아니라, 음식을 먹는 우아한 자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 중국 음식문화는 단지 요리하는 기교나 희한한 맛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식기로서의 독특함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젓가락은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하루라도 땔래야 땔 수 없는 물건이다. 젓가락과 관련된 이야기나 에피소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빠르다고 해서 ‘콰이즈(筷子)라 붙인 이름

젓가락은 처음부터 중국 식기의 최고 위치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젓가락의 여러 가지 기능이 충분히 발견되지 못했을 당시, 옛사람들은 식사 도구로 여전히 수저를 많이 사용하였다. 주(周)나라 때 예기(禮記)의 기록에는, 국 속에 있는 야채를 집을 때만 젓가락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다. 명청(明·淸) 시대, 즉 14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젓가락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젓가락의 옛 이름은 ‘저(箸)’이다. 명대의 전설에 따르면, 남방의 수많은 수상인(水上人: 배 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역자 주)들은 배를 순조롭게 몰고가는 것을 방해하는 의미를 가진 글자들에 대해 매우 민감하였다고 한다. ‘저(箸)’와 ‘주(住)’는 발음이 같은데(중국어 발음의箸와住는 모두 ‘주(zhu)’라고 발음한다-역자 주), 주(住)는 ‘멈추다’의 뜻이다. 하루 세끼 식사하다가 누구라도 입에서 ‘箸(주)’ 소리가 나오게 되면 배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겠나 하는 유추가 가능하다. 수상인들의 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빨리(快:콰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배가 멈추지 않고 빨리 가도록 젓가락을 ‘콰이즈(筷子)’라고 바꾸어 부른 데서 그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젓가락을 드는 방식으로 본 운수

중국인들은 점술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옛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점을 치기도 했다. 옛날의 점술책에는 세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든 사람은 천성이 자유롭고, 네 손가락으로 드는 사람은 좋은 운명을 타고 났으며, 다섯 손가락으로 드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나와있다. 민간에 구전되는 말에 의하면, 젓가락을 높이 잡는 여자





는 먼 곳으로 시집가고, 낮게 잡은 여자는 그 반대라고 한다. 이러한 것에서 이론을 끌어 낸다면, 젓가락을 잡는 데 힘을 덜 들이는 사람은 비교적 성향이 보수적이고 기력을 많이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젓가락을 높게 잡으면 힘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음식도 쉽게 집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의 성격은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풍부하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종(高宗)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두 벌의 수저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음식을 덜어먹는 공용으로, 다른 하나는 개인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임금을 위해 나오는 궁중 요리는 늘 너무 많아서 혼자서 다 먹지 못하므로, 상을 물린 후에 공녀와 내시들이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고종은 늘 두 벌의 수저로 음식을 청결히 유지하기 때문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했다.

젓가락은 중국이라는 무대에서만 가지각색으로 연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으로까지 전래되었다.

일본의 젓가락과 한국의 젓가락

한(漢)나라가 한반도에 낙랑군(樂浪郡, 지금의 평양 일대)을 건설할 당시 금속으로 만든 젓가락이 출토되었다. 현재 한국인들도 스텐레스(stainless)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일설에 따르면 추운 날에 밥그릇과 젓가락을 든 손으로 따뜻한 음식물의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속을 젓가락의 재료로 삼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고분시대(古墳時代, 서기 3~7세기)에 젓가락을 처음 사용했다. 일찍이 일본 귀족들은 중국의 유행을 따라 수저로 밥 먹는 것을 좋아하다가, 귀족 사회가 붕괴된 후 젓가락이 유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젓가락은 중국의 젓가락에 비해 한두 마디 짧아, 두 민족의 신체적 크기만큼 차이를 느끼게 한다.

민속학자인 장보허(莊伯和)의 해석에 따르

면, 일본에서는 요리가 1인분씩 나오는 반면, 중국인들은 식탁에 둥그렇게 모여앉아 풍성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음식물을 집기에 편하도록, 혹은 손님을 대신해서 음식을 담아주려면 당연히 젓가락이 길어야 마음대로 손을 움직일 수 있다. 중국 여러 성(省) 중에 후난(湖南)성에서 쓰는 젓가락이 가장 길어 손님을 접대하기 좋아하는 후난인들의 풍습을 반영하고 있다.

재료가 다르면 맛도 다르다

일본의 젓가락은 대나무를 제외한 삼나무, 진나무, 자단 및 알루미늄 등을 재료로 만든다. 그 중 뿔나무로 만든 젓가락은 장수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상나라 이전에는 대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를 젓가락 재료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상아 젓가락과 옥 젓가락이 등장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동과 철제품이 있었고, 한위육조(漢魏六朝) 시대에는 칠기 젓가락, 금, 은 젓가락 등이 있었다. 재질에 따라 기능도 다르다. 옛사람들에 따르면, 옥 젓가락은 차갑고 윤기가 나며 열을 전하지 않으나 쉽게 깨지는 결점이 있다. 상아 젓가락은 재질이 따뜻하여 이것으로 음식을 집으면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다.

상아 젓가락은 광둥(廣東)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광둥성에는 상아가 많이 생산되는 동남아시아까지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60세의 광둥인 린웨링(林岳靈)에 따르면, 상아는 구조가 세밀하여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고 열에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젓가락 한 벌이면 평생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전에 큰 부잣집에서는 모두 자기 이름을 새긴 상아 젓가락을 가졌으며, 결혼하는 여자는 상아 젓가락을 지니고 출가했다. 또한 상아 젓가락은 선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은 젓가락은 사람들이 잘 아는 대로 독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전설에 의하면, 만일

국이나 반찬에 독이 들어있으면 은 젓가락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역대 황제나 고관들은 오로지 은 젓가락만 애용했다고 한다. 청말 황실에서 상아 젓가락으로 바꾼 뒤, 이로 인해 음식에 독이 없다는 표시로 은패를 꽂아야만 황제가 안심하고 식사하였다. 또한 코뿔소로 젓가락을 만들기도 했다. 기록에 의하면 중국의 양대 미인 조비연과 양귀비 모두 코뿔소 젓가락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것은 진귀하기도 했지만 독을 피할 수 있다는 설에 근거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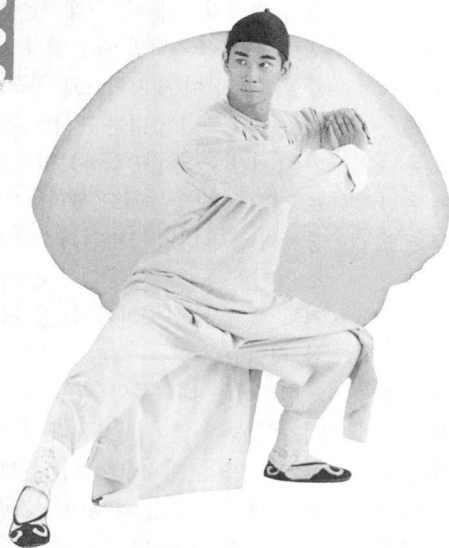
현대에는 대나무와 나무, 유리, 플라스틱 젓가락 등이 많이 사용된다. 푸젠(福建)성의 칠기 젓가락, 항저우(杭州)의 텐주(天竺) 젓가락, 베이징(北京)의 상아 젓가락 등 중국 각 성마다 여러 종류의 이름난 젓가락들이 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몽구(蒙古)족의 민속무용.

이 글은 대만 光華雜誌社에서 발간된 〈中國人的註冊商標〉에서 발췌한 것이다.

번역 /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황비홍(黃飛鴻)

이창우

우리

나라에는 연간 수십 편의 홍콩영화가 수입된다. 그런데 그 중 80~90% 정도를 차지하는 무술액션 영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외면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 내용이 폭력적이고, 지극히 자극적이라는 이유이다. 보고난 후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시사성도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협영화를 멀리한다. 그런데 홍콩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상업적인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일까?

홍콩이라는 공간은 무협영화 속의 강호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우며,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런 상황 속에 일당 백의 무술 솜씨를 가진 영웅이 나타나 악당을 쳐부수고, 마을과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무협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홍콩인은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보려는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기에, 수많은 영화 속의 영웅에 열광한다. 그 중 황비홍의 인기는 가히 절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황비홍의 아류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황비홍은 중국인, 특히 홍콩인에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이다. 황비홍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거의 300여 편이나 된다. 한 사람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처럼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왜 수많은 중국의 영웅호걸 중 황비홍의 인기가 이처럼 높은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우선 황비홍

은 실존인물이다. 청(靑)나라 말엽에서 민국(民國) 초기까지 살았던, 실전에 유명한 쿵후의 고수이며 유명한 의사이자 사회계몽 운동가이다. 이러한 프로필이 대중에게 깊이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그것은 그가 당, 명, 청나라 등 먼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홍콩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당시의 인물이기에 더욱 친숙하다.

그리고 예로부터 중국 남부는 차별대우가 심하였고, 유배지라는 이미지가 강한 지역인데, 민족적 영웅 황비홍은 남부 광저우(廣州) 근처 포산(佛山) 출신이다. 이렇게 홍콩인들에게 친숙한 인물이 부패한 관리나 그에 동조한 나쁜 무술인과 싸우고 민중을 위해 활약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

황비홍을 만든 쉬커(徐克) 감독은 그런 인물을 통해 서양의 침입과 사이비 종교, 부패한 관리와 사회제도 등과 싸우고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1편에서 마지막편까지의 일관된 주제이다. 1편의 내용은 중국이 세계의 열강에 맞서 싸울 수 있으려면 서양의 과학과 교육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2편은 부패한 청나라, 즉 전제국가로는 근대화과 민주화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한 황비홍이 손문(孫文)을 비롯한 우국지사를 도와 혁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전편에 걸쳐 황비홍은 마치 슈퍼맨처럼 활약한다.

쉬커 감독은 중국의 근대사를 보



여주면서 실은 중국의 정치, 사회적 모순을 보여준다. 청조의 황족처럼 군림하는 중국 공산당 집권 정부를 꼬집고 부패한 사회상과 부패한 관리, 공산당 간부를 꼬집는 도구로 이 영화를 사용한다. 홍콩이 영국의 통치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는 있지만 힘 없고 뺨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황비홍이 현란하게 구사하는 무술에 그런 불만 세력인 관리, 무술인이 넘어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황비홍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말하려는 쉬커 감독은 1, 2편의 수작 이후에 갈수록 천편일률적인 극 전

개, 결말, 부실한 내용, 촬영을 보여 관객을 조금씩 짜증나게 만든다. 중국 근대사의 큰 시선에는 언제나 황비홍이 관대한 듯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말도 안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한 예로 황비홍이 부패한 소림사를 바로잡고 발장자리에 추대되기도 하며, 현대식 교육을 도입하는 설정등이 그런 내용이다. 영웅은 민중과 같이 있을 때 영웅이 될 수 있지, 민중의 곁을 떠나면 더이상 영웅이 아니다. 그래서 몇 번의 착오 끝에 결국 황비홍은 손문을 도와, 중화민국 탄생의 기초가 된 신해혁명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또한 마지막 편인 '이상년대'에서는 교육, 화

폐개혁 등을 통해 중국의 이상국가
를 이루려는, 정말 이상적인 인
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로 중
국은, 중화민국이 건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공내전에 들어가
고 홍콩은 영국에 분할된 채 지금
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쉬커 감독은 현대 중국이 이상
시대로 들어가려면 지도자와 민
중의 뜻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한다. 그럴 때 과거의 악순
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념과 사상, 제도를
떠나 중국인은 한 민족, 한 동포임
을 강조한다. 홍콩 반환에 대한 자
위책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든다.

또한 이 영화에는 기독교인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
다. 이전의 홍콩 영화 속의 기독교인
은 비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모
습으로 묘사되었는데, 황비홍에
서는 진지하고 현실참여적인 긍
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1편에
서는 황비홍을 위해 재판에서 위
험을 무릅쓰고 변호하고, 또 황비
홍을 구하고 대신 죽는 선교사의
모습, 진지한 예배 모습, 황비홍 자
신이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 질
문하는 모습, 그리고 황비홍을 통
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
여주기도 한다. 2편에서는 혁명의
주축 세력인 기독교인이 남의 불
편을 외면치 않고 자신을 희생하
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쉬커 감
독은 종교적 문제보다는, 홍콩인
들로 하여금 황비홍 같은 슈퍼스
타를 통해 이념적, 사회적, 사상적
변화를 꾀하고 이상시대를 맞이
할 수 있다는 행복한 꿈을 꾸게 한
다.

하지만 황폐해진 그들의 영혼
이 과연 그러한 인본주의적 방법
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
을까? 현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현실
의 이 모습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중국인들에겐 더이상 피난처가
없다. 그 후에 황비홍보다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진다면, 중
국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
고,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
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비홍이 기독교인이 되는 모습
을 담은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하
는 상상을 한번 해본다.

이창우/ 중국복음선교회 회원



선비가 찾는 책 秀才索书

刘秀才要取静读书，到庙里借了间空房，便吩咐书童去取书……



1. 류 선비가 조용하게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갔다. 빈 방을 하나 빌려 동자승에게 책을 갖다달라고 부탁했는데, 동자승이 '논어(論語)'를 가져왔다. "너무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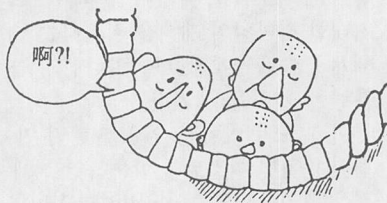


2. 동자승이 다시 '한서(漢書)'를 가져왔다. "너무 낮아!"



3. 다시 '사기(史記)'를 갖다 주자 또 "너무 낮아, 너무 낮아!"라고 말했다.

和尚们听了，佩服刘秀才的博学，悄悄走近书房……



4. 절에 있는 승려들이 그의 박학다식에 감탄하여 살금살금 그의 방으로 가서 들여다보니, 앗?!



세계선교 동향

이슬람 라마단 금식기간을 위한 역기도운동

30 Days

1997. 1. 10 ~ 2. 8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편집부

홍해 언약

국제 예수전도단(YWAM)의 국제 행정위원들이 1992년 4월 중동지역에서 모임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슬렘 선교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기도 시간을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흔들어 놓으셔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반응으로 이것을 홍해 언약이라고 불렀다. 영적인 준비의 깊고 강한 필요성이 예수전도단의 모임 속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하나님은 30일 동안 모슬렘을 위한 금식과 기도 에 전세계의 그리스도들이 참여하도록 부르셨다. 또한 과거 기독교인들이 아랍인들에게 행한 십자군 전쟁과 거대한 공격에 대해 공식적인 회개를 강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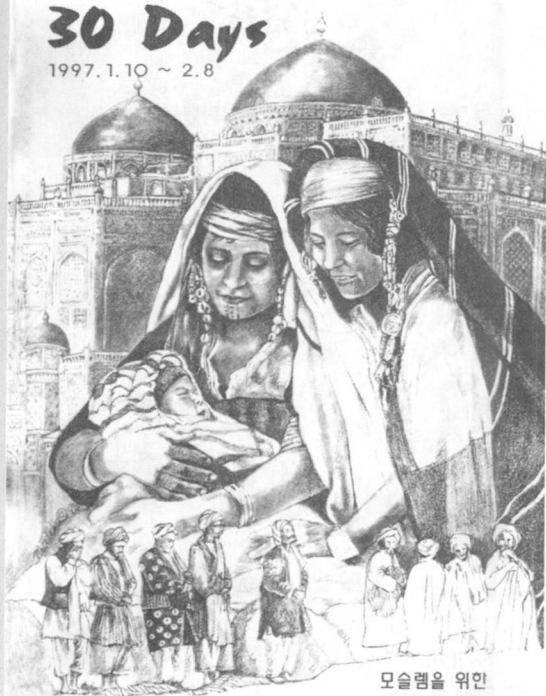
그래서 YWAM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을 하나님이 사랑

하시는 피조물로 여기며, 전세계 모슬렘을 가슴에 품고,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름부음과 지혜, 능력, 전략을 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계 모슬렘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부르심과 조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모슬렘권 안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국제 예수전도단 팀이 1991년 이집트를 방문하였을 때, 이집트의 몇몇 교회에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집트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리비아, 시리아, 모로코, 스페인 등지로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선교에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예수 대행진을 하며 주님의 왕도심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화해를 향한 걸음

십자군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모험과 낭만주의로 미화되어 왔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1995년 11월 27일은, 서방 기독교도들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지를 해방시키기 위해 행한 “십자군 전쟁”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Calling the Body of Christ to Pray for the Muslim World



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날, 예수전도단은 십자군 전쟁 때 동방기독교도, 유대인들로 인해 모슬렘들이 겪은 비극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특별 화해운동을 계획했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수백개의 그룹이 앞으로 수년간 중동에 가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들은 십자군이 지나간 길을 따라 가며 전쟁이 아닌 평화와 용서를 찾을 것이다. 화해의 운동본부 보고에 따르면, 12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쾰른의 터키 모스크에 찾아갔을 때, 200여 명의 터키 남자 및 소년 신도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이슬람에 대해

‘이슬람’이란 말은 알라신께 복종을 의미하며, 모슬렘은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슬람의 계시가 모하메드에게 주어졌고, 그는 모슬렘들에게 위대한 예언자로 숭배된다. ‘모하메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칭호이다.

모하메드의 생애

모하메드는 서기 570년 6월 8일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유복자로 태어나 여섯 살에 어머니를 잃고 가난한 무역인인 삼촌 아부 탈립에 의해 양육되었다. 그는 심한 빈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불만족 가운데 청년시절을 보냈다. 당시 아라비아는 약 360개의 남신과 여신, 12만 4천 명이 넘는 선지자로 인해 이교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다. 모하메드는 부유한 과부 카디자의 대상 무역관 리인으로 고용되었다. 그는 “Al-Amin”(신이 받을만한 자)으로 알려졌고, 메카 무역 조합의 저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25세에 40세의 카디자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딸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 카디자가 죽은 후 모하메드는 일부다처제를 승인하여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

40세부터 그는 동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종교에 관한 명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라마단 동안 모하메드는 자주 메카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히라(Hira) 산비탈에 있는 동굴에 은신하였다. 이때 모하메드가 가브리엘로부터 지시와 계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코란의 기초를 이루었다. 코란 외에 하디스(Hadith: 모하메드의 언행록)라는 책이 있다. 모하메드는 코란이야말로 최고 유일신으로부터 온 마지막이자 최고의 계시라고 선언했다. 하루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기 전 세정의식과 함께 모든 생활은 전적으로 알라에게 헌신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금요일을 사원에서 회중예배하는 날로 정했다. 그리고 그는 서기 632년에 사망했다.

모슬렘들은 알라를 믿는다

모슬렘들에게 있어서 알라는 유일하고 전능하며, 모든 모슬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신이다.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둥(Five Pillars)을



따라야만 한다. 다섯 가지 기둥은 첫째, 신앙고백(shahda)-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알라의 사자다. 둘째, 기도(salat)- 하루에 다섯 번씩 해야 한다. 셋째, 구제(zakat)-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푼다. 넷째, 금식(sawm)- 특별히 라마단 동안 행하는 금식이다. 다섯째, 성지순례(hajj)-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모슬렘들이 이 기둥들을 모두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의 보장은 없다. 이슬람의 구원은 자신이 행한 의로움에 기초한다. 모슬렘은 심판날에 그들이 믿는 알라가 각 사람의 행위를 저울로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해석에 따르면, 사람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을 알라가 심판날에 펼쳐보고 평가하는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슬람의 성전(聖戰)에서 순교하는 것뿐이다.

모하메드는 이슬람의 최고 예언자이지만, 예수는 코란에 따르면 12만 4천 명 중의 한 선지자일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도 신성도 믿지 않는다.

라마단 30일 금식기간 - “라마단이란 당신 마음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구와의 투쟁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의 금식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단순히 음식이나 음료, 담배, 성적, 욕구 등을 절제하는 미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코 남들에게 무엇인가 과시하기 위한 어떤 행사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라와 당신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이며 속사람과의 투쟁이다. 그것은 매년 당신에게 믿음의 시험이 될 것이다.”-하니파 딘(모슬렘 작가)

모슬렘들은 평소에도 자발적인 금식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라마단 금식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 라마단은 매년 전세계 10억 이상의 모슬렘들에게 아주 특별한 달이다. 내적 성찰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절제를 위한 시간이다. 모슬렘들은 30일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 담배, 부부관계 등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또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삼가해야 하고, 향수 냄새를 맡거나 심지어 화를 내거나 부정한 것을 보는 것조차 삼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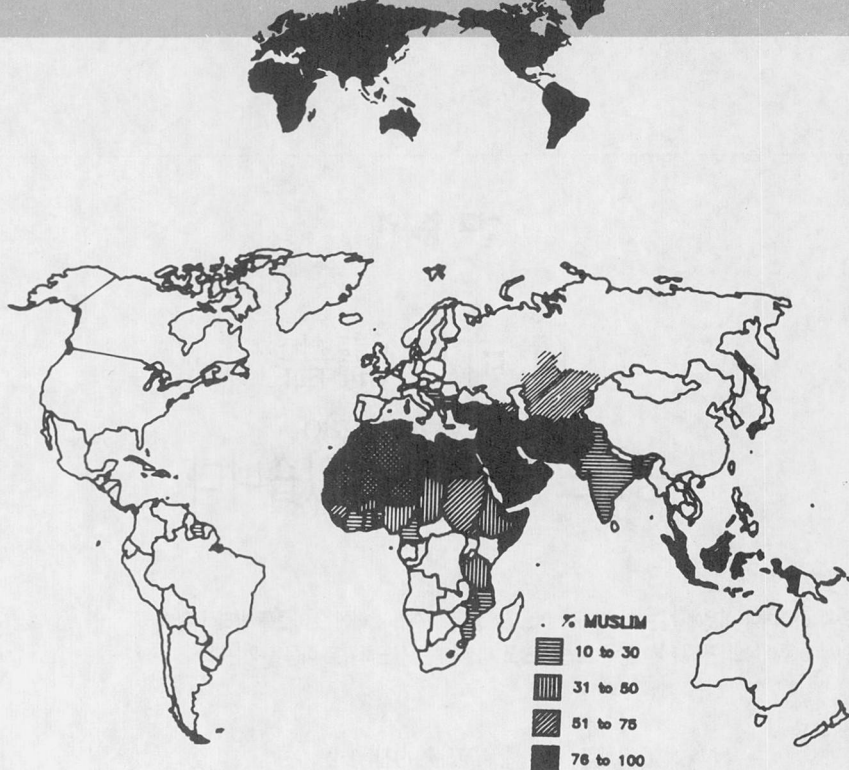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이다. 그 달의 모양과 천문학적 계산에 의해 알 수 있다. 어떤 지역은 달의 모양을, 어떤 지역은 천문학적 계산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라마단 기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슬람력은 태양력보다 매년 11일 내지 12일이 빨라지므로 매년 라마단 기간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 완전히 한 번 순환하는 데는 약 36년이 걸린다. 금년 1997년에는 대략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가 라마단 기간이었다.

해가 뜨기 전, 그러나 최대한 늦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해가 진 후에 금식이 끝난다. 기도는 해가 진 후에 몇 분 동안 행한다. 라마단은 공동체 활동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근처 모슬렘 사원에 모여 함께 하는데, 일반적으로 친구, 친척, 이웃 사람들을 이 만찬에 초대한다.

라마단 기간에 모슬렘들은 ‘티라위’라는 특별기도를 드려야만 한다. 이 기도는 20개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함께 모여 한달 동안 코란 전체를 낭독하게 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은 축복의 기간이라 부르는데, 특히 27일째 되는 밤은 코란의 첫 계시가 있었던 날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많은 모슬렘들은 이 마지막 열흘을 더욱 신성시 하여 기도하며 코란을 낭독한다. 그리고 금식을 푸는 사흘 동안 축제를 통해 금식 종료절을 지키면서 30일 동안의 라마단 금식을 끝마치게 된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슬렘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은 도덕의식, 교육 수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모슬렘들은 아주 헌신적이며 코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반면에, 매일 드리는 기도와 전통의식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모슬렘들도 있다. 나라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모슬렘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모든 모슬렘들은 한 가족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 따라서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대개 접근 방식이 유사할 것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나 코란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전도의



모슬렘 분포도

대상인 모슬렘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종교를 서로 비교하기 보다는, 모슬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구원의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이나 모하메드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우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 마음 깊은 곳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라.

모슬렘을 향하여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슬렘들 역시 당신과 나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기에 주저하고 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잉태한 후 광야로 도망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때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를 브엘라해로이-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라고 불렀다. 모슬렘들의 알라는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이다. 이제 우리는 모슬렘들이, 그들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며 결코 썩어질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인격적인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에 앞서,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먼저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151-600 서울시 관악우체국 사서함 131호 예수전도단 「모슬렘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본부」
TEL. (02) 871-7351, FAX: (02) 871-7354

선교 중국어

你可以禱告

Nǐ kěyǐ dǎogào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양씨 아주머니 이웃에 사는 마 자매가 어느 날 양씨 아주머니 댁에 조미료를 빌리러 왔다.
양씨 아주머니의 근심에 찬 얼굴 모습을 보고 마 자매는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馬 姊妹: 妳怎麼一副愁眉苦臉的樣子?

mǎ zǐmèi: Nǐ zěnmē yí fù chóu méi kǔ liǎn de yàng zi?

마 자매: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 걱정애 꼭 차 있는 거예요?

楊太太: 我先生每天都醉醺醺的, 我兒子在學校總是惹事生非, 我真不知道該怎麼辦才好?

Yáng tàitai: Wǒ xiānshēng měi tiān dōu zuìxūnxūnde, wǒ érzi zài xuéxiào cóngshì
rě shì shēng fēi, wǒ zhēn bù zhīdào gāi zěnmē bàn cái hǎo?

양씨 부인: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있고, 아들은 학교에서 말썽만 피우니, 나는 정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馬 姊 妹: 我教妳禱告, 妳儘管把心裏的話全告訴耶穌, 祂會聽妳的。

Wǒ jiào nǐ dǎogào. Nǐ jǐnguǎn ba xīnlǐ de huà quán gāosù
yēsū. tā huì tīng nǐ de.

제가 좋은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예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가 잘 들어주실 겁니다.

楊太太: 耶穌是誰啊?

Yēsū shì shéi ya?

예수가 누구입니까?

馬 姊 妹: 耶穌是上帝的兒子, 也是人類的救主。祂能擔當妳的罪與憂愁。

Yēsū shì shàngdì de érzi, yě shì rénlei de jiùzhǔ. tā néng dāndāng nǐ de zuì yú yōuchóu.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당신의 죄와 근심을 대신
감당할 분입니다.

愁眉苦臉(chóuméi kǔ liǎn)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擔當(dāndāng): 담당하다, 감당하다

醉醺醺(zuì xūnxūn):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하다

怎麼辦(zěnmē bàn): 어떻게 처리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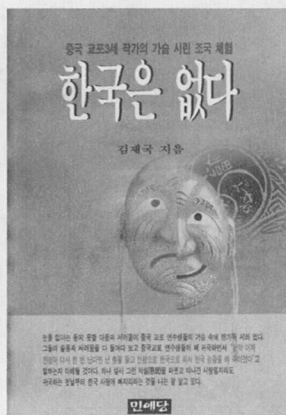
儘管(jǐnguǎn): 얼마든지, 마음놓고

惹事生非(rě shì shēng fēi): 일을 저지르다

憂愁(yōuchóu): 근심, 걱정

禱告(dǎogào): 기도

차이나/ 본지 편집기자



한국은 없다

김재국 지음
361쪽 · 8,000원
선교문화사



바람꽃

허련순 지음
375쪽 · 6,000원
범우사



사랑해요, 위 아줌마

루시 청 지음 · 이현주 옮김
상 215쪽, 하 243쪽 · 각권 6,000원
사람들

“한국에 만약 전쟁이 다시 한 번 난다면 총을 들고 선잠으로 달려와서 한국 놈들을 쏘 죽이겠다”

교포 3세로 한국문학을 전공한 조선족 작가 김재국 씨는 최근 출간한 이 책에서 이렇게 끔찍한 말을 전한다. 한국에 나왔던 중국 연수생들이 귀국하면서 되뇌인다는 말이다.

이 책은 그가 94년 3월부터 올 1월 초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하는 동안 조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꾸밈 없이 쓴 글이다. 애초부터 애증의 감정을 떠나서 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솔직한 보고서이며, 한국 문화론이자 중국 문화론이다. 그가 관찰한 현재 한국인의 생활상을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하는 대목들에서 이 글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을 서슴없이 비판하는 그의 목소리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왜 우리는 조국을 찾아온 그들에게 상처와 모멸감의 기억만을 심어주었는지에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을 경험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기 원하는 사람, 특히 중국인을 사랑할길 원하는 선교관심자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중국 조선족이 살고 있는 곳마다 바람처럼 휩쓸고 있는 조선족 작가 허련순 씨의 소설 『바람꽃』은 흑룡강 신문사 제 2회 신춘문에 당선작이다.

“조국은 사기꾼들만 사는 곳입니까? 그 사기꾼을 잡아주십시오”라며 울부짖는 소설이 바로 『바람꽃』이다. 지금 중국 조선족 문단에는 동포들이 조국인 한국으로부터 겪은 고통을 문학작품화하는 작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조국을 바라보며 꿈꾸던 희망의 씨앗은 그 여린 싹을 틔우기도 전에 바람꽃이 되어 흩어져 버린다. 바람이 불어왔던 곳과 바람이 자는 곳, 소설 속에는 두 세계 중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조선족들의 그리움, 원망,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글에는 중국 조선족이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의 애환이 담겨 있으며 울부짖는 절규가 들어 있다. 지금 그들은 한국을 향해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작가 허련순 씨는 말한다. “이 소설의 목적은 사기극과 같은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동포들이 좀 더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중국 광저우(廣州)의 부유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으나, 부모의 무지로 어렸을 때 시력을 잃은 중국판 헬렌 켈러 루시 청의 자전적 스토리다.

그녀는 귀동냥으로 얻은 지식으로 혼자서 점자를 익혀 독학하다가, 일반 중학교에 입학한다. 딸에게 무관심했던 그녀의 부모와는 달리 때론 부모처럼, 때론 친구처럼 그를 격려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준 가정부 위 아줌마. 그를 통하여 루시 청은 중국의 전통적인 통념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한 인간으로서 자활의 의지를 익혀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게 된다.

크리스천인 루시 청은 중국 사회에서 천대받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다시 귀국하여, 홍콩의 사회복지 사업에 뛰어들어 장애인 재활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빛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소리에 몰두하여 사물의 움직임을 분별하기에 애쓰며, 자신을 가두고 있는 어둠의 세계와 삶을 억압하는 고정관념과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법을 우리는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중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찬송가

十架爲我榮耀

십자가로 가까이

F. J. Crosby, 1869

조금 느리게 J. = 63

(찬 496장)

NAER THE CROSS: 7.6.7.6. REF.

W. H. Doane, 1869

求主使我依十架在彼有生命水
 Qiú zhǔ shǐ wǒ yī shí jiǎ zài bǐ yǒu shēng mìng shuǐ
 치우 주 스 워 이 스 지아, 짜이 배 요우 생 밍 슈이

有各各他山流下白白賜人洗罪
 Yǒu gè gè tā shān liú xià bái bái cì rén xǐ zuì
 요우 겸 겸 타 산 리우시아 바이 바이 츠 런 시 쥘이

후렴

十字架十字架永是我的榮耀
 Shí zì jiǎ shí zì jiǎ yǒng shì wǒ de róng yào
 스 즈 지아 스 즈 지아 옹 스 워 디 룡 야오

我衆罪都洗清潔有靠耶穌寶血 아멘
 Wǒ zhòng zuì dōu xǐ qīng jié yǒu kào yē sū bǎo xuè ā mèn
 워 중 쥘이 또우 시 칭 지에 요우 카오 예 수 빠오 쉬에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우리말 가사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중국어 복음성가

每一天, 每一刻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每一 天 所 度 過 的 每 一 刻, 我 得 着 能 力 勝 過 試 煉 我 倚
 Měi yī tiān suǒ dùguò de měi yī kè, wǒ de zháo néng lì shèng guoshì liàn wǒ yī
 메이 이 티엔 수오 두구오 디 메이 이 커, 워 더 자오 녕 리 성귀 스 리엔 워 이



靠 天 父 主 詳 的 供 應, 我 不 用 再 恐 慌 與 掛 念 祂 的
 kào tiān fù zhǔ xiángdì gòng yìng wǒ bù yòng zài kǒnghuāng yǔ guà niàn tā dì
 카오 티엔 푸 주 상 디 공 잉 워 뷔 용 짜이 쿵 황 위 구아 니엔 타 디



心 極 仁 慈 無 可 測 度 祂 每 天 都 有 最 好 按 排 不 論
 Xīn jí rén cí wú kě cè dù tā měi tiān dōu yǒu zuì hǎo ān pái bú lùn
 신 지 런 츠 우 커 처 투 타 메이 티엔 투우 요우쥬이 하오안 파이 뿌 룬



憂 成 喜 祂 慈 愛 顯 明 勞 苦 中 祂 賜 一 安 一 泰
 yōu chéng xǐ tā cí ài xiǎn míng láo kǔ zhōng tā cì ān tái
 요우 청 시 타 츠 아이 시엔 밍 라오 쿠 중 타 츠 안 타이

가사 내용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중국 동향 초점

중국선교 탄압 강화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한국 선교사 불법 선교혐의 구류

중국은 최근 한국인들의 중국 내 '불법 선교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 12월 들어서만도 4~5명의 불법 선교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각각 1주일 간의 구류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개월여 전부터 불법 선교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단속강화 방침을 표명한 중국 관계당국이, 이달 들어 사업을 명분으로 중국에 입국한 후 선교활동을 해온 부산 모교회 목사 등에 대해 처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의 중국인 선교에 대해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불법 선교활동을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선교활동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의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구류처분을 받은 한국인들의 구체적인 불법 선교활동 유형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선교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국 현행법을 위반한 한국인의 명단과 처벌 내용을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 이후 한국인들의 중국 내 불법 선교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청한 바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인들의 불법 선교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도록 강력히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현재 동북삼성에서만 도 모두 4천~5천 명의 한국인들

이 법적으로 중국인인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동아일보 96. 12. 24-



재중(在中) 한국인 선교사 실태

중국이 동북삼성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선교단체들을 집중 단속, 12월 들어 4~5명의 선교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주일 간 구류처분을 내린 사건이 국내 종교계에 파장을 몰아오며 그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종교계의 중국 내 선교활동은 공식적으로는 전무한 상태. 중국 측은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법으로 금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선교사나 포교사를 파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지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한국인은 모두 개인자격의 사업이나 방문·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중국 측에 구류당한 사람들의 경우, '사업이나 교포사회 지원 활동 등을 위해 현지에 체류한 사

람들로, 자신의 종교에 따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알려준 것 때문'이라는 게 국내 종교계의 공식 반응이다.

국내 종교계의 중국·러시아·북한 등 북방선교는 지난 60년대 중반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전파를 통한 방송선교로 시작, 80년대부터 미국 등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목회자, 승려들이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선교의 고두보를 확보, 지난 94년 재미교포 목회자 6명과 장로 3명이 북한에 파송되는 선까지 발전했으나,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교활동은 알려진 것이 없다.

북방선교의 주목적은 통일을 대비한 대북한 선교의 고두보 확보가 주요한 목적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내 개신교·불교·천주교 등에서는 중국 지역에 주목해왔고, 개인 자격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계자가 2백여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종교계는 추산하고 있다. 개인 자격의 진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 '중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선교활동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게 교계의 반응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천주교가 북한선교부, 불교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등의 단체를 구성, 대북한선교의 고두보로서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을 주시해왔다.

또 94년에 문화체육부가 러시아 등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국내 기독교계 인사들이 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으며 현지법의 준수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국내



광저우 석실(石室) 성심성당의 수녀들

종교계가 추산하는 숫자 이상의 선교사나 포교사·신부·수녀 등이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중앙일보 96. 12. 25-

정부, 중국선교 자제 요청

정부는 1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중국선교 관련 교단 및 선교단체 책임자 초청간담회에서 "대중국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개신교 선교사는 총 35개 단체, 260명"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대중국선교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실 및 외무부 등 정부 관계자, 예장총회 예장통합 기성 등 교단선교 관계자, 바울선교회, 한국해외선교회 등 선교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교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정부의 최대 현안은 체제 유지이며, 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종교와 소수민족 독립문제를 꼽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홍콩 반환 및 덩샤오핑 사후 체제 구축 등 정치안정을 초미의 관심사로 삼고 있는 만큼, 포교 활동으로 국민들이 유신론과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법을 준수한 선교활동을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의 대중국 선교 자제 요청은 96년 1월부터 공식 외교 통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요청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참석한 선교단체 책임자들은 "중국이 종교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신구속을 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동북삼성에 대한 영토문제 등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책임자들은 "장기적 측면에서 일시적인 선교활동의 자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정부의 의견을 존중, 완급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독신보 97. 1. 22-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교황, 중국에 카톨릭 허용 요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중국에 카톨릭을 합법화하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신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중국이 경의감을 갖고 인간의 생존권인 진정한 자유를 존중하고 기독교 신도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재능을 국가발전에 바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중앙일보 96. 12. 5.

중국 미신타파운동 전개

중국 언론이 미신타파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영 TV 방송은 중국 산시(山西)성에서 농민들이 미신타파를 위해 신전을 파괴했으며, 신전이 무너진 자리에 정부가 학교를 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96. 12. 16.

위구르족 1천7백 명 처형

중국은 지난 4월 이래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서 현지 회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 총 5만 7천여 명을 구속하고 그 중 1천7백 명을 처형했다고 홍콩의 핑귀르바오(蘋果日報)가 보

도했다.

조선일보 96. 12. 17.

교황청에 ‘내정간섭 중단’ 경고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달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교황청 측에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교황청은 종교를 이용한 중국 내부 문제 개입 등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며 또 그들의 정규적인 종교 활동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97. 1. 6.

대만, 달라이 라마 초청- 대중관계 악화 전망

대만 당국이 한 종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티베트 독립운동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대만 관계는 지난해 3월 이래 다시 한 번 긴장에 휩싸일 전망이다.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은 빠르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7. 1. 7.

티베트 연쇄폭탄 테러 긴장 고조

중국 티베트(西藏) 자치구의 정부청사와 수도 라사(拉薩)의 인민정부 청사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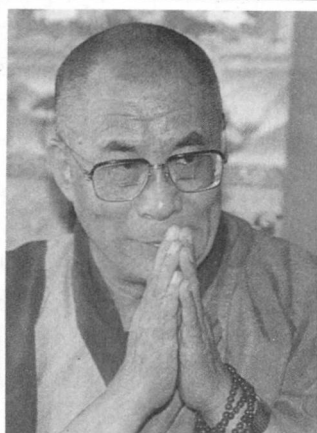
한 폭탄테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검문 검색이 강화되는 등, 티베트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공안당국은 티베트 독립운동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대대적인 범인 색출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달라이 라마를 따르는 티베트불교(라마교) 신자에 의한 테러라는 심증 아래 주요 불교사원에 대한 수색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97. 1. 12.

티베트 사원관리위원회 설치

티베트 자치구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정부세력의 중심이 됐던 불교사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원에 ‘사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원 상주 공안요원이 사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7. 1. 15.



195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라마.

홍콩 귀속 이후에도 종교자유 계속 허용

중국은 홍콩이 올 7월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종교 자유를 계속 허용될 것이라고 선귀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홍콩의 종교 문제가 오는 7월부터 정식 가동되는 홍콩 특별행정기구의 통제를 받을 것이나, 중국의 기존 종교정책이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홍콩의 종교단체는 외부 세계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콩과 중국의 종교단체들 간의 관계는 ‘상

호존증과 불간섭'의 원칙에 따를 것이
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97. 1. 17.

중국기독교협회 제6차 총회 한원자오 선출

중국기독교협회(CCC)는 구랍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베이징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자”는 주제 아래 열린 제6차 전국협의회에서, 평신도인 한원자오(韓文藻) 박사와 화동신학교 쑤더츠(蘇德慈) 원장이 협회 회장과 총무에 선출되었다.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과 총무에는 부주석이었던 뤼관중(羅冠宗)과 저장(浙江)성 기독교협회 총무인 덩후춘(鄧福村) 목사가 선임되었고, 심양 서탑교회 오애은 목사는 기독교협회 부의장에 유임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현장을 개정하였다.

한국기독교공보 97. 1. 25



각 성(省) 지도자들을 접견하는 리펑 총리

정치·외교

리펑, 러시아 방문

리펑(李鵬) 중국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겨냥한 러시아 방문을 위해 12월 26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국민일보 96. 12. 27.

덩샤오핑 한때 혼수, 지도부에 긴급통보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92)이 이번 주 들어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장쩌민 주석 등에게 긴급 통보가 전달됐다고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덩이 지난해 12월 30일 밤 혼수상태에 빠져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다가 그날 밤 늦게 의식을 회복했으며, 이로 인해 장 주석을 비롯한 고위 지도부에 비상연락이 취해졌다고 덩 일가의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말했다.

조선일보 97. 1. 1.

홍콩 최대 난민수용소 폐쇄

'89년부터 8년 간 베트남 난민을 수용했던 홍콩 최대 난민수용소인 '화이트헤드 수용소'가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 폐쇄되었다.

한국일보 97. 1. 4.

중국 반혁명죄 대폭 손질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혁명죄'의 명칭이 그동안의 여러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손질이 가해진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24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반혁명죄'의 명칭 변경과 해당범죄의 범위조정 등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초안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중앙일보 96. 12. 27.

중국 군부 대만통일 임전태세 촉구

중국 군부는 대만통일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중심의 전략을 수립해 임전태세를 갖추 것을 촉구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베이징 소식통을 인

용해 보도했다.

경향신문 97. 1. 10.

교황청에 대만과 단교 요구

중국 외교부는 로마 교황청은 대만과 모든 외교관계 단절 및 중국내 종교문제 불간섭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최근 중국과 로마교황청 간 수교를 위한 비밀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경고이다.

중앙일보 97. 1. 15.

덩샤오핑 집무실 공식폐쇄

중국 공산당은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집무실을 공식 폐쇄했다고 홍콩의 명바오(明報)가 보도했다. 덩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으나,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해말 덩의 집무실을 공식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97. 1. 15.

차기 총리에 주룽지 부총리 유력

중국 경제 사령탑인 주룽지(朱鎔基) 부총리가 오는 98년 퇴임하는 리펑 총리의 후임에 발탁될 것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고 홍콩 평귀르바오(蘋果日報)가 보도했다. 주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의 건축 정책으로 인기를 잃었으나 중국이 지난해 외환보유고 1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경제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다.

중앙일보 97. 1. 20.

중국 인권관련법 폐기 요구에 홍콩 민주계 큰 반발

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은 중국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홍콩 주민의 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조선일보 97. 1. 21.

경제

3개 외국은행에 인민폐 영업 허용

중국인민은행은 홍콩의 발권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 만국보통은행, 일본의 미쓰비시은행 등 3개 외국은행에 대해 상하이 푸둥지구에서 인민폐营业을 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링바오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97. 1. 4.

주택건축 부가금 폐지

중국 정부는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 건축비의 20~30%를 차지하던 각종 정부 부과금을 폐지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조치로 주택 건축 승인과 감리, 등록 등과 관련한 20개 부과금과 부대시설 및 환경관리, 보안감독 등에 관한 각종 부과금이 폐지되었다.

중앙일보 97. 1. 7.

농민 순소득, 풍작 덕에 20% 증가

지난해 중국 농민의 1인당 순소득이 95년도보다 20% 증가한 1천9백 원(1만 9천 원)에 이르러 지난 9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풍작이 농민 소득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중부와 서부 지역의 농업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크게 성장했다고 밝히고 주로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이 지역 농민의 소득은 지난 90년 이후 저

음으로 동부 지역 농민의 소득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97. 1. 10.

중국 주해(珠海)-홍콩 신계(新界) 연결

중국의 주하이와 홍콩의 신계를 잇는 27km 길이의 링딩양교가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97. 1. 19.

대만, 중국 투자 제한

대만은 최근들어 양안(兩岸)간에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등, 양안관계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압력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주로 홍콩을 통해 중국에 모두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일보 97. 1. 21.

중국-대만 직항로 개설 합의

1. 22일 중국과 대만 측 교통부 관리와 해운회사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홍콩에서 열린 직항로 개설 협상에서, 50년 만에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양안을 연결하는 무역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관리들이 밝혔다.

국민일보 97. 1. 23.

외환준비고 1천억 달러 돌파

중국인민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외환준비고가 1천억 달러를 돌파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3년 만에 거의 5배나 불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준비고가 올해에도 1백억~2백억 달러나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조선일보 97. 1. 26.

사회

후난성 농민 폭동

중국 후난(湖南)성 리엔위엔(連源)시에서 지난달 1천여 명의 농민들이 공산당 간부의 집을 습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으며 사태를 진압한 무장경찰이 여전히 시내에 진주하고 있다. 농민 1천여 명은 11월 13일, 당국의 고속도로 건설비 등 갖가지 불만을 품고 시 서기 집으로 쳐들어가 가재도구를 파괴하는 등 전 시가지에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다고 한다.

동아일보 96. 12. 19.

중국 내 외국인 범죄 급증

중국의 외국인 범죄가 지난 5년 간 급증했다고 신민만보(新民晚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안부 보고서를 인용, 지난 90년부터 95년 사이에 1만 5천 명의 외국인이 절도와 사기, 매춘, 간첩, 밀렵, 마약 및 총기 밀매, 중국인 해외 불법 송출 등의 혐의로 추방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96. 12. 27.

반체제 인사 리하이 9년형 선고

중국 반체제 인사 리하이(42)에게 국가 기밀 침해혐의로 9년형이 선고됐다고 그의 어머니 공 리웨이 밝혔다. 베이징 대 철학부 연구원 출신인 리는 천안문 사태에 연루돼 체포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 주소, 형량, 억류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혐의로 95년 5월



체포됐으며, 지난해 12월 18일 베이징 차오양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97. 1. 2.

탄광 폭발사고로 91명 사망

중국 북부 산시(山西)성 따통(大同)시의 한 탄광에서 지난달 27일 가스가 폭발, 최소한 91명이 숨졌다고 '산시일보(山西日報)'가 보도했다.
동아일보 1. 3.

저작권 침해 정보제공자에 현상금 내걸어

중국 정부는 카세트나 비디오테이프 등의 불법 복사를 추방한다는 방침 아래, 복사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불법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의 유통망이 사라져 중국에서 불법 복사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일보 97. 1. 5.

6백 개 언론 정간 명령

중국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과 잡지를 포함해 6백여 개의 신문·잡지를 올해 안에 정간시킬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7월의 홍콩반환과 가을의 제15회 당대회를 앞두고 보도기관들의 비판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일보 97. 1. 6.

쓰촨성서 여객선 전복. 40여 명 이상 사망

중국 쓰촨성에서 하천의 여객선이 화물선과 충돌, 전복해 승객등 40명 이상이 숨졌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정원이 42명인 사고 여객선은 무면허 운항기사가 운항하는 등 불법으로 장거리 운항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적재톤수도 어기고 40t 이상의 모래까지 적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 97. 1. 7.

인터넷 감시기구 설립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정부기구를 설립했다, 리펑 총리

지시로 설립된 '국무원 정보기술발전 영도소조'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차이나넷(Chinanet)'을 비롯해 'GBnet', 'CEInet' 등의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감독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국일보 97. 1. 8.

베이징, '정보수도' 추진

베이징(北京)시는 25일 중국의 '정보수도'가 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경립 베이징 시장 대리는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로서 정보를 교환하고 전파하는 데 많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도적인 정보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의 정보산업은 베이징 노동력의 44% 이상을 흡수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97. 1. 15.

강진으로 12명 사망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차지구에서 21일 오전 리히터 규모 6.3을 넘는 강진(強震)이 두 차례 잇달아 발생, 최소한 1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조선일보 97. 1. 21.



홍콩의 신문, 잡지 가판대.

8백만 명 노동수용소 수용

중국인 노동수용소(勞改)에 6백만~8백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고 중국의 반체제 인사 해리우가 한 프랑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87년 노동수용소가 문을 연 이래 정치범과 일반범 모두 학대와 굶주림 속에서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예처럼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7. 1. 25.

중국, 인터넷 성장률 세계 1위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폭발적인 팽창을 하고 있는, 인터넷의 '신흥국가' 중국은, 1년 동안 무려 1,003%라는驚異적인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보 97. 1. 27.

한·중 관계

중국 삼강평원에 북한주민 집단농장 운영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돕기 위해 북한 주민의 중국 장기이주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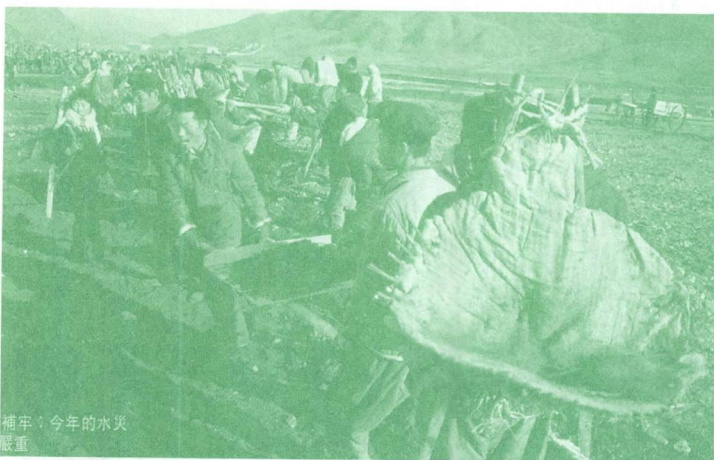
2월부터 연차적으로 북한 주민 수천명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삼강평원에 이주해 집단농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주민의 중국이주 기간을 적어도 2~3년으로 하고,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주민들을 귀국시키기로 했다.

한국일보 96. 12. 16.

가짜 북-중 통행증 2천장 압수

북한 신의주와 중국의 대북한 변경무역 창구인 단둥(丹東)에서 최근 대규모 변경출입 통행증 위조사건이 적발되었다. 중국·북한간 국경수비 임무를 맡고 있는 단둥시 변방 무장경찰부대는 단둥 시내 인쇄소를 급습, 위조 출입통행증 2천 장을 압수했다.

중앙일보 96. 12. 31.



補牢: 今年的水災嚴重

수재복구에 여념이 없는 북한 주민들.

중, 탈북자 수용소 추진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 오는 7월로 예정된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맞춰 연변(延邊)을 비롯한 중국 동북삼성에 탈북자 전용 수용소 건립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김의 방문을 계기로 최근들어 다소 소원해졌던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탈북자 처리 방침을 강경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시사해 주목하고 있다.

중앙일보 97. 1. 3.

북한, 중국과 경제 및 기술지원 협정

중국이 지난해 5월 북한과 체결한 조-중 경제 및 기술지원협정을 통해 1996~2000년 5년 동안 매년 50만톤(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원이 분석했다.

한국일보 97. 1. 10.

‘두만강개발회의’ 5개국 실무접촉

두만강개발계획 투자보장 워크숍이 남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 회원국 및 두만강개발계획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2박3일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렸다.

한국일보 97. 1. 16.

중국 공무원 결탁 한국여권 위조 성행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공무원들과 결탁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한국에

절차를 마련해 지난해 11.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중국 외교부가 조선족 여성들의 미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았었다.

한국일보 97. 1. 14.

대만 핵 폐기를 북한 폐광에 매립

대만전력공사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탄광지역에 총 20만 배럴의 핵 폐기물을 이진, 매립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모두 2억2천여만 달러를 주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중앙일보 97. 1. 21.

한국 정부 ‘대만 핵 폐기물’ 외교 공조

정부는 대만이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철회하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對) 대만 압박 등 다각적인 외교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국민일보 97. 1. 21.

중국에서 한국인 여권 분실 급증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여권 분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분실 여권의 상당수는 밀매 등을 통해 중국인 등의 제3국 밀입국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중(駐中)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분실 여권은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서방 선진국 등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고 4만위엔(한화 4백만원)에 팔리고 있다. 때문에 여권을 지닌 한국인들이 낚시, 강탈 등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불순분자의 한국 침투 등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국민일보 97. 1. 25.

대만-북한 접촉 경고

선귀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의 북한에 대한 핵폐기물 수출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나라의 핵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대만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한국 및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파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97. 1. 28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개혁 개방 경제 용어(3)

● 관시후(關係戶)

중국의 경제부문 혹은 기타 직장 생활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국가 이익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이용, 사사로운 거래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저우허우먼(走後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개혁 개방이 실시된 이후 더욱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이용,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부정적인 풍조를 일컫는 데 주로 사용된다.

● 상치옌칸(向錢看)

오로지 자신의 금전적 이익만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원래 이 단어는,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당 전체의 사상을 해방시키고 실사구시하며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한 데서 나온 “앞을 향해 보다(向前看)”의 변용이다. 일부 사람들이 ‘向前看’을 ‘向錢看(돈을 보다)’로 부르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 전체를 휩쓸고 있는 돈벌이의 물결을 잘 보여준다.

● 다이예칭넨(待業青年)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의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일시적인 분리현상으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공급과잉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취업을 기다리는 상태를 ‘초기적 실업’이라고도 부른다.

● 저우두(走讀)

학생들이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생활은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개혁 개방 이후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많은 대학에서 이른바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저우두생(走讀生)’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이들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참고자료

- 「中國百科」, 동아일보사
- 「最新 中國用語・情報辭典」, 극동문제연구소
정리/ 편집부

선교단신

세미나 안내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정기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는 4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 현대의 중국선교 - 최근 중국 상황과 중국선교

강사: 조나단 차오(국제 중국복음선교회(CMI) 총재)

장소: 중화한성교회 소예배실(정동 경향신문사 옆)

일시: 1997년 4월 24일(목) 저녁 7시 ~ 9시

참가비: 5천 원

자세한 문의는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로

TEL 021318-3956

오픈도어 '97 선교대회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국제 오픈도어선교회 중국사역 책임자인 자니 리와 김성태 교수를 강사로 '97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주제: 핏박 속에 부흥하는 교회

일시: 1997년 3월 17일~18일 저녁 6시

장소: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

강의: 자니 리- "중국선교의 경험과 현황",

"바람직한 중국선교 방향"

김성태- 북한교회와 선교현황 및 바람직한 선교 방향

참가대상: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오픈도어선교회로

TEL 021403-6797

훈련반을 일꾼을 모집합니다

OMF 월요선교학교

한국 오엠에프는 선교사의 생활과 자기관리 등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월요선교학교를 개최한다.

기간: 1997년 3월 17일~6월 16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장소: 한국오엠에프 훈련원

대상: 선교관심자, 선교헌신자, 신학생

훈련비: 15만 원(부부는 12만 원씩)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엠에프로

TEL 021563-7574

오픈도어 화요선교학교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선교 관심자들을 위해 선교학교를 연다. 특히 북방과 회교권 선교 관심자들의 참여를 바란다.

기간: 1997년 3월 봄학기(창의적 접근지역)

1997년 9월 가을학기(이슬람)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30분

(주 1회 수업, 3개월 과정)

장소: 헤림교회(지하철 5호선 둔촌역에서 5분)

회비: 봄학기 12만 원, 가을학기 15만 원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오픈도어선교회로

TEL 021403-6797

GMP 제7기 선교 오리엔테이션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에서는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자질개발을 목표로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기간: 1997년 4월 7일~ 6월 30일

장소: 서초동 영화교회

대상: 선교관심자, 선교헌신자, 선교사후보자

신청방법: 지원서

등록비: 2만5천 원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개척선교부로

TEL. 02)556-9130(담당: 박광희 간사)

GMP 타문화권 선교적응훈련(FETC)

한국해외선교회는 타문화권 선교의 전반적인 내용 및 영어 훈련 등, 타문화권 적응을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97년 3월 31일~6월 23일

장소: 마닐라 GMTC 훈련원

지원자격: 타문화권 선교에 헌신한 자

자세한 문의는 FETC로

TEL. 0345)408-6950

GMTC 제15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한국해외선교회는 장, 단기 선교 경험자와 특수분야 훈련과 기본적인 선교훈련을 받을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 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1997년 8월 25일~11월 29일

모집인원: 30명

원서마감: 1997년 5월까지

자세한 문의는 GMTC 선교사훈련원으로

TEL. 02)649-3197

GMP '97 터키 비전트립 훈련생 모집

타문화권 선교사 적응 훈련의 하나로, 이슬람권 사역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 이슬람의 선교사역의 원칙 등 선교사의 현지 사역 준비를 위한 비전트립을 갖는다.

기간: 97년 7월 말~ 8월 중 3주간

인원 및 비용: A팀-터키, 불가리아(15명, 180만 원)

B팀-터키, 아제르바이잔(15명, 190만원)

신청마감: 96년 5월 31일

자세한 문의는 GMP 개척선교부로

TEL. 02)556-9138

KWMTI 제5기 선교사 후보생 모집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산하 세계선교훈련원에서는 학문적 깊이와 오랜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 공동체 선교훈련을 실시한다.

기간: 1 학기- 1997년 3월 24일 ~ 4월 25일

2 학기- 1997년 5월 6일 ~ 6월 5일

장소: 명성교회 하남선교관(TEL. 0347-791-7557)

자격: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위탁하는 선교 소명자

등록마감: 2월 20일

자세한 문의는 세계선교협의회로

TEL. 02)363-7091 FAX. 02)393-8462

바울선교회 선교사 모집

한국바울선교회에서는 제16기 공동체훈련을 거쳐 타문화권 선교사로 일할 일꾼을 찾는다.

서류마감: 1997년 3월 1일까지

서류접수: 바울선교회(서울, 전주)

훈련장소: 필리핀 바울선교회 훈련원

훈련기간: 8개월

자세한 문의는 바울선교회로

TEL. 02)3672-2037, 0652)254-8417

의료선교교육훈련원 훈련생 모집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부설 의료선교교육훈련원에서는 제7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의료선교에 헌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훈련기간: 1997년 3월 8일 ~ 6월 21일

훈련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9시

장소: 의료선교협회 강의실(서대문구 아현동)

자세한 문의는 의료선교교육훈련원으로

TEL. 02)312-8681

GWM 화요 제자훈련학교

갈릴리세계선교회(GWM) 제자훈련원에서는 2년 동안 4단계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제자 훈련을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420-1450, 424-1144, 1244

갈릴리세계선교회 간사 모집

갈릴리 세계선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드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헌신할 전임 간사를 모집한다.

사역분야: 제자훈련, 의료선교, 국제선교, 문서선교, 사무국

인원: 10명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420-1450, 424-1144, 1244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용 문서목록

본지는 이번호 특집 『중국 교회와 지도자』와 관련하여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용으로 쓰이고 있는 중문판 문서목록을 자료실에 실는다. 여기에 실린 책들은 주로 대만이나 홍콩 등에서 발행하는 신학, 훈련교재이며 대부분 서구 문서들의 번역본이다.

이 외에 더 많은 적합한 문서들이 있으나, 우선 중국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책들을 선정하였다. 여기에 기재된 문서를 중국 교회에 전달하거나 훈련용(국내 중국인 사역용도 기능)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출판사로 연락하여 주문할 수 있다. 중국 교회 지도자 훈련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고 바란다.

대만 샤오우옌(校園)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소책자

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저 자	내 용	가격 (US\$)
當代護教手冊	현대 기독교 변증 핸드북	NORMAN L.GEISLER RONALD M. BROOKS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한 11가지 문제	13.65
當代信仰實踐手冊	현대 신앙실천 핸드북		75명의 명교수와 작가들의 실천신앙에 대한 견해	21.45
當代基督十架	그리스도의 십자가	JOHN R.W.STOTT	십자가의 의미와 그로 인한 성취, 십자가를 묵상하는 생활	13.3
當代聖靈工作	오늘날의 성령의 사역	JOHN R.W.STOTT	성령의 약속과 충만, 열매와 은사 등을 연구함	3.9
當代信仰手冊	라이온스 신앙 핸드북	ROBIN KEELY 편저	다른 신앙전통의 소유자-9명의 편집팀,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집필한 책.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을 연구함	31.2
認識聖靈的能力	성령의 능력을 알자	DAVID M.HOWARD	성령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쓴 책.	3.35
認識聖經	성경을 알자	STOTT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성경의 권위 등을 논하다.	5.3
認識教會	교회를 알자	MICHAEL GRIFFITHS	성경의 교회관 및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	4.6
認識永生神	영원한 하나님을 알자	R.T.FRANCE	성경신학의 대표작	3.7
認識解經原理	성경해석 원리를 알자	陳濟民	독자들의 조직적인 성경공부 능력을 향상시키는 책	4.25
認識主基督	예수그리스도를 알자	R.T.FRANCE	기독론	5.4
認識基督教教義	기독교 교리를 알자	BRUCE MILNE	조직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분석	11.65
認識上帝的國	하나님의 나라를 알자	GEORGE ELDON LADD	객관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탐구	4.7
認識新約神學	신약신학을 알자	LEON MORRIS	신약성서를 토대로 각 권의 신학사상을 토론	15.55
認識三一神論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자	ALISTER MCGRATH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진리를 우리가 왜 믿어야만 하는지를 알려준다.	4.5

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저 자	내 용	가 격 (US\$)
佈道神學	전도신학		복음과 지상명령의 본질을 설명하고 신학을 기초로 복음전파를 행동으로 하는 전도신학이야말로 교회 성장의 열쇠임을 알려줌	3.9
辨別聖靈與邪靈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다	吳恩溥	성경말씀과 저자의 실제 체험기로, 성령과 사단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줌	2.45
全權之神	전능하신 하나님	JAMES BOICE	성경의 완전무결성과 하나님의 속성 및 창조 사역	6.5
基督教要理精華	기독교 요리 모음집	ZACHARIUS URSINUS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성경말씀을 인용해 증명함	2
早期基督教會簡史	초기 기독교 교회 역사	HARRY R. BOER	초기 교회 역사에 대한 소개	4.85
青年信仰問題	청년들이 알고 싶은 신앙 문제	吳恩溥	교회의 유명인사 50명을 초청하여 청년들의 신앙문제를 상담	4.3
從恐懼到信仰	두려움에서 믿기까지	MARTIN JONES	구약 하박국서에 대한 해석	2.75
保羅	사도바울의 생애	JOHN W. DRANE	바울의 생애	9.15
耶穌與四福音	예수의 생애와 4복음	DRANE	예수의 생애	9.95
早期教會生活	초대교회 생활	DRANE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실록. 화보가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9.15
新約書信讀經講義	신약성서 강의집(총10권)	陳終道	중국 성도들이 즐겨보는 신약 서신서 강의집	
丁道爾新舊約聖經註釋·創世記	신구약 성경주석(창세기)	DEREK KIDNER	강력한 복음주의 주석이다.	7
"	" (욥기)	FRANCIS I. ANDERSON		9.4
約伯記	" (전도서)	MICHAEL A. EATON		4.85
傳道書	" (아가서)	LOYD CARR		6.65
"	" (사도행전)	I. HOWARD MARSHALL		11.4
使徒行傳	" (로마서)	F.F. BRUCE		7.3
羅馬書	" (야고보서)	DOUGLAS MOO		5.75
雅各書	" (데살로니가전후서)	LEON MORRIS		5.45
帖撒羅尼迦前後書	" (고린도전서)	MORRIS		7
哥林多前書	" (계시록)	MORRIS		7
啓示錄	말세의 큰 재난	黃丹尼	성경의 예언과 말세의 큰 재난을 논함.	5.45
末世大災難	이단사설의 분별	吳恩溥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줌.	5.85
辨別異端邪說				

대만 사오위엔(校園)출판사

주문서(Self Mailing Order Form)에 주문자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표번호, 그리고 책을 운송받는 방식(선박, 항공)과 원하는 책의 제목, 가격, 수량을 적어 대만 사오위엔출판사에 보내십시오. 타 기독교 출판사의 문서도 사오위엔출판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책 제목과 저자명, 출판사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校園書房出版社 P.O.BOX 13-144 Taipei, Taiwan R.O.C.

전화: 02-365-3665 팩스: 02-368-0303

수표의 타이틀은 Campus Evangelical Fellowship

홍콩 텐다오(天道)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소책자

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가격 (HK \$)
加拉太書研經十法	갈라디아서 연구	46
新約文件可靠嗎?	신약은 믿을만한가?	43
讀經輔輯	성경 스터디 가이드북	18
舊約信息	구약연구	36
聖經與末世事件	성경과 말세의 사건	50
新約珠璣集	신약 용어 해석집	43
預言淺釋	예언 해석	36
新約信息	신약 연구	38
問題重重-林前自學研經	고린도전서 연구(자습서)	33
聖靈的工作	성령의 역사	38
末世預言綜覽	말세 예언 연구	50
簡易讀經與解經法	성경읽기와 해석방법	54
聖經問題解答	성경 1문1답	50
耶穌基督的神蹟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60
小先知書講義(上/下)	소先知서 강의(상하)	116
提摩太前後書註釋	디모데전후서 주석	70
兩約之間	성경 중간사 연구	36
四福音註釋	사복음서 주석	90
教會教育事工簡介	교회 교육사역 소개	32
宣教學原理	선교학 원론	33
教會兒童教育事工	교회 주일학교 사역	37
栽培手冊	양육(제자훈련) 핸드북	8
大眾聖經百科全書(修訂本)	성경백과사전(수정판)	228
聖經新辭典(上)	성경신사전(상)	380
聖經風俗習慣	성경의 풍속과 습관	72
總體辯道學(一) 基要篇	변증학 총론(개론편)	55
(二) 哲學篇	(철학편)	65
(三) 宗教篇	(종교편)	82
(四) 文化篇	(문화편)	77
研經導讀叢書(38本)	성경공부 가이드총서(총38권)	미정
申命記, 約書亞記 等	신명기, 여호수아 등	
天道聖經註釋(28本)	천도 성경주석(총28권)	미정
羅馬書, 希伯來書 等	로마서, 히브리서 등	

홍콩 텐다오출판사(天道書樓:TIENTAO PUBLISHING HOUSE LTD.)

전화나 팩스로 연락한 뒤 구입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주소: 香港九龍土瓜灣貴州街6號, 東方報業大廈 10樓 天道書樓

전화: 2362-3903 팩스: 2774-3756

홍콩 쉬엔다오(宣道)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문서

원 제 목	한글 제목(번역)	저자	가격(HK\$)
能力的澆灌	능력의 원천(구약 성령론)	SIMPSON	22
列王與先知	구약시대 열왕과 선지자	SIMPSON	30
約翰福音講義	요한복음 강의	賈玉銘	40
由初信到成長	초신자에서 성장하기까지	陳終道	26
新約綜覽	신약개론	滕慕理	80
前車可鑑		프란시스 웨퍼	60
舊約精覽	구약총론	JOHNSON	140
新約精覽	신약총론	JOHNSON	100
約翰福音詮釋	요한복음 해설	馬有藻	42
字裏藏珍	신구약 용어 해석	J. PACKER	40
傳道書主題詮釋	전도서 주제 해석	馬有藻	28
活在聖靈中	성령 안에서 살자	J. PACKER	54
人人聖經註釋-以賽亞書	The Everyman's Bible Commentary(성경주석) 이사야서	ALFRED MARTIN	25
人人聖經註釋約書亞記	" 여호수아서	IRVING L. JOHNSON	25
人人聖經註釋耶利米書, 耶利米哀歌	"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IRVING L. JOHNSON	32
人人聖經註釋以西結書	" 에스겔서	RALPH ALEXANDER	34
人人聖經註釋 士師記,路得記	" 사사기, 룻기	ARTHUR LEWIS	28
人人聖經註釋 哈該書, 瑪拉基書	" 학개, 말라기	HERBERT WOLF	28
人人聖經註釋 約拿書, 那鴻書	" 요나, 나훔	WILLIAM L. BANKS	26
人人聖經註釋系統神學 (一)聖道論	조직신학 (1)성경	章力生	60
(二)上帝論	조직신학 (2)하나님	"	138
(三)人類論	조직신학 (3)인간	"	76
(四)基督論	조직신학 (4)그리스도	"	50
(五)聖靈論	조직신학 (5)성령	"	56
(六)救恩論	조직신학 (6)구원	"	50
(七)教會論	조직신학 (7)교회	"	60
(八)末世論	조직신학 (8)말세	"	50

쉬엔다오출판사(宣道出版社: CHINA ALLIANCE PRESS)

홍콩 쉬엔다오출판사에 전화나 팩스를 보내어 구입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주소: China Alliance Press P.O. BOX 72289 Central Post Office Kowloon, Hong Kong

전화: 2782-0055 팩스: 2782-0108

CCL(福音證主協會)에서 발견하는 소책자

책 제 목	내 용
每日天糧	매일 한 편의 묵상이 실린 큐티(QT)교재.
小天路客	한 소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우화 형식의 간증
教會歷史名人錄	역대 기독교 명사들의 기독교 역사상에 남긴 공헌
眞理與異端	진리와 이단의 차이를 밝힌 책. 신신학, 천주교, 여호와증인, 물몬교, 제칠일안식교 및 기독교과학회 등의 이단에 대한 논설
信心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
靈程	크리스천의 구원, 승리, 영광에 이르는 3단계
奇妙的誕生	성탄의 의미를 서술한 책
詩歌三百首	중국내 성도들이 즐겨부르는 삼백곡의 찬송가를 모은 찬송집
生活指南	구원의 기준과 구원받은 후 마땅히 해야할 일을 설명한 책
聖靈的工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
答覆你的問題	초신자가 갖기 쉬운 삼백여 가지의 문제와 답안
有效的禱告與讀經方法	기도와 성경을 읽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 서술한 책
門徒訓練	성경에 기재된 주 예수와 바울의 제자훈련 방법을 알게 함
敎牧學(1)	교회생활에 대한 가르침
敎牧學(2)	교회생활에 대한 가르침
神蹟奇事	이적과 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佈道與栽培	전도와 양육의 방법
講道學	설교방법
敎牧書信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基督教教育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내한 책자
約翰福音	요한복음에 대한 개략과 해석
保羅書信	바울서신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1)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2)	레위기, 신명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3)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4)	사무엘상하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5)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대한 개략과 해석
舊約歷史(6)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에 대한 개략과 해석
哥林多前書研讀	고린도전후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羅馬書講義	로마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異端與極端	이단과 극단의 착오에 대해 살펴봄
智慧書	지혜서에 대한 개략과 해석
生活之趣	성경구절을 이야기와 비유의 형식으로 해석함
天路歷程(圖解)	크리스천이 종종 부딪히는 신앙경험을 그림과 비유형식으로 표현
主和救主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대한 이해
怎樣禱告	기도의 의미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怎樣讀聖經	성경연구와 이해방법에 대한 지도
聖經眞理與信息	성경 각 권의 기본진리와 중심 메시지
中國文化與基督教思想	유불도를 비롯한 각종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비교연구한 책
回教徒信主的難處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신앙차이를 설명
豐盛的恩典	존 번연의 생애를 서술한 책
聖經詞彙	성경에 나오는 특수한 용어를 주제화 방식으로 설명한 책
基督教信仰綱要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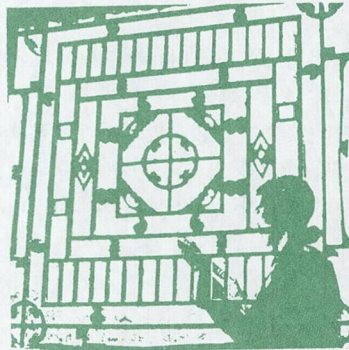
책 제목	내용
解經與研經(合訂本)	성경해석과 연구에 대한 원칙과 방법
解經原理	성경해석의 정확한 방법
信仰要道(合訂本)	성경의 기본진리
聖經光亮中的靈恩運動	크리스천의 성령운동에 대한 정확한 태도
靈命操練	기독교 영적훈련의 지침
初信造就	초신자가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성장을 하도록 돕는 책
兩性之間	성경, 심리, 의학의 관점에서 본 성(性)에 대한 정확한 태도
人際要則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원칙
金蘋果在銀網子裏	성경의 언어에 대한 가르침
終身大事	혼인에 관련된 가르침
救恩三部曲	구원의 세 과정, 즉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고 사랑으로 거룩하여지며 소망으로 영화롭게 되는 진리를 설명함
神的工人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
領受從上頭來的能力	성령충만으로 얻는 능력
新生命	「大使門徒訓練」시리즈 중 첫 단계인 전도용 성경공부교재
新生活	「大使門徒訓練」시리즈 중 두 번째 단계인 양육용 성경공부교재
真理十二課	12과로 된 성경 기본 진리로 제자훈련하는 교재

홍콩 CCL(福音證主協會)에서 발간하는 소책자

위의 책자는 중국어문선교회 CCL협력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품질로 구비하지 못한 책이 있을 경우도 있으니, 미리 연락을 주셔서 확인바랍니다.

구입 및 연락처: 중국어문선교회 CCL협력부 차이나 간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94-8038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새(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CCL 소책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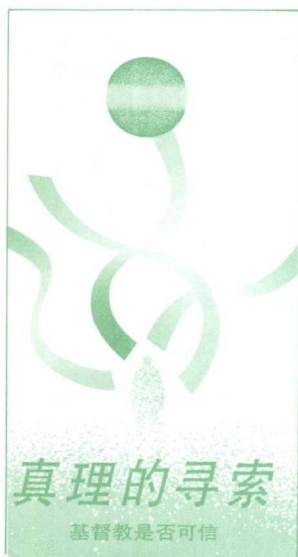
真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티(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티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충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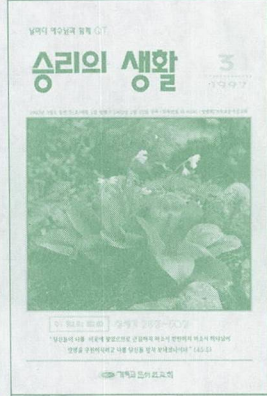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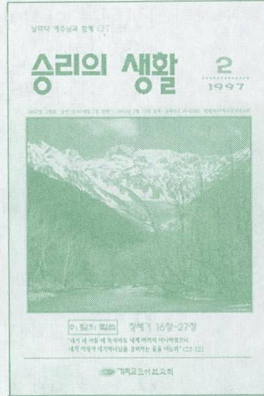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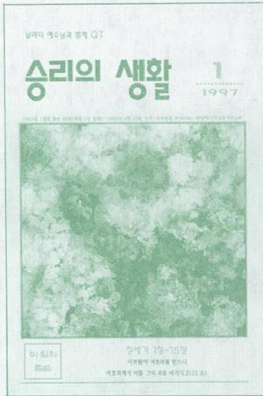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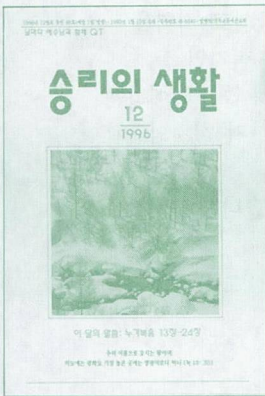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큐티가 어렵다고요?

승리의 생활

승리의 생활로 큐티를 시작해 보세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QT
승리의 생활에는.....

- 1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세계선교정보와 선교회 소식 및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싣고 있다.
- 2 성경 본문과 묵상기록란이 나란히 위치해 있어 묵상하며 기록하기 좋다.

- 3 묵상 질문과 묵상 정리가 있어서 큐티 초보자들과 신앙 초년생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법과 함께 성경의 풍부한 메시지로 인도해 준다.
- 4 시, 예화, 묵상을 위한 글, 신앙간증, 칼럼, 영화평 등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는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싣고 있다.
- 5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읽기표가 되어 있다.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2(137-063)
TEL:586-8761~3 FAX:523-0131

동아시아 선교회 EAM(East Asian Mission)

EAM은 1984년 소수의 재미교포 대학생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선교제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결실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사역을 위해 미연방정부 비영리 교육문화 사회법인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1989년 한국후원회가 결성된 후, 1992년 7월 한국에서도 동일한 정신으로 복음주의적 초교파 기독교 기관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사역의 방향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선교적 자원의 발굴과 세움을 위하여 금년부터 공개적 사역을 위해 EAM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AM은 아시아 주요지역의 신속한 복음화 및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건전한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발굴, 그들을 잘 성장시켜 섬기도록 돕는 일이라는 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현지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현지 중심의 제자훈련과 단순화된 신학교육을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
2. 현지 교회 지도자 양육을 위한 신학교재 개발 및 출판
3. 각 학교와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연구, 기도모임 운영
4. 단기 선교학교, 단기 현지적응 선교훈련 프로그램 운영
5. 지도자 양육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 발굴 및 훈련 파송 (선교훈련원 운영)

EAM을 섬기는 분들

고문/ 신복운
자문위원/ 이원설 정동구
이사장/ 정화영
부이사장/ 오덕교
감사/ 이병식
실행이사/ 구자우 김정우 문성배 박영선
박은조 박초영 박해자 안대욱 오덕교 유영기
이경란 이성희 이천성 정삼지 정화영
원장/ 안대욱
선교사/ 현지: 김영인 김경수 서정현
안대욱 문경숙 하애인
본부: 정현진 이미숙
협동선교사/ 현지: 이주영 천연랑
신요한 채하경
본부: 김영식 임미숙 이기도 고명자
총무/ 정현진
간사/ 조안나 박화빈 박인철
협동간사/ 이기도 문선일

EAM의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48-16 상일빌딩 5층
(☎) 02-878-3750, 878-3751(FAX겸용)

선교도서 안내

중국 선교 소재지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저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저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저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 | 1,500원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사복음서(現代中文譯本) 낭독 Tape:12개 | 12,000원 |
| 6.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5,000원 |
| 7. 中國語 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16개:20,000원) | 10,000원 |
| 8.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700원 |
| 9.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 25,000원 |
| 10. 중국어 찬양 Tape | |
| ◆ 是愛(사랑은) | 3,000원 |
|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5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의: TEL. (02) 535-4255, FAX. 599-2786(담당 김수미 간사)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7년 3·4월호(통권44호)

발행처/ 시립(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하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이민선
권수영·김은화·안정숙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이준석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7년 2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화: 0344)906-9191~4

값/ 4,500원
1년 정기구독/ 24,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 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 PC 통신 **천리안, 아이텔**

sinim



중국 교회 지도자와 한국 선교사

이번호 특집 “중국 교회와 지도자”를 기획하면서, 이제 중국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현재 중국 교회가 지도자 부족과 세대간의 단절이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등이 무조건 해외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의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맞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으며, 스스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비롯한 해외의 사역자들은 이제 중국 교회 ‘신세대’ 지도자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무신론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고 핍박받은 ‘구세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중국 교회가 맞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경제적인 유흥’에 직면해 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도우며, 진정한 중국 교회가 자생력있고 능력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선교사들이 이들과 유대되어 독분장군처럼 일하기보다는, 중국 교회와 같은 교제와 협력을 이루는 자세를 계속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선교사들은 파송한 교회와 단체들 또한 선교사들이 겸손히 중국 교회를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물질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선교사와 중국 교회,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연합된 중보기도가 중국 교회를 튼튼히 하고, 결국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24,000원, 우편료 10,950원, 합계 34,95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3,950원, 합계 37,95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 팔, 파키스탄 책값 24,000원, 우편료 18,150원, 합계 42,15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동아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9,050원, 합계 43,05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 4. 1-1998. 3. 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 4. 1-1998. 3. 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습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혀지기 원합니다.

희어진 발,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 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24,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십시오.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